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통전(通戰, transwar)의 일본문학

-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1940년대 작품에 주목하며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아시아언어문명학전공

장 홍

통전(通戰, transwar)의 일본문학

-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1940년대 작품에 주목하며 -

지도교수 윤 상 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아시아언어문명학전공

장 홍

장 홍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구 하연 (인)

부위원장 조 관자 (인)

위 원 윤 상인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본 ‘전후’ 개념의 가치적 성격, 그리고 ‘전후’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후문학’이 그려내지 못하는 사회상에 주목하여, 통전(transwar)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전시’를 향한 ‘전후’의 회한(悔恨)에 휩싸인 시선과 이것이 암시하는 전시기 개인 및 주체성의 존재에 대한 간과를 의식하며 전시와 전후를 잇는 문학의 독해 방식을 추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전성에 관한 사회학, 사학, 사상사의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1940년대 일본문학이 지니는 통전적 독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일상사적 관점에 의한 회한 구조의 극복을 노리며 일상의 서술과 시대적 일관성이 엿보이는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1940년대 작품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국일본의 전쟁이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된 1941년 12월 8일, ‘내지’(內地)의 한 중산층 가정을 그린 「12월 8일」(1942.2), 전쟁 말기의 전시동원에 따라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된 소녀를 목격하며 벌어지는 「동경 소식」(1944.8), 중국의 대문호 루쉰(魯迅)의 일본 유학 시절을 다룬 「석별」(1945.9), 백엔 지폐의 시점에서 전시를 그리는 「화폐」(1946.2), 들려오는 망치소리로 인해 집중할 수 없는 복원(復員) 청년의 고민을 둘러싼 「타앙탕탕」(1947.1)을 다루었으며, 작품을 ‘제국일본의’ 다자이 오사무 소설과, 자립의 다자이 오사무 소설의 두 부류로 크게 나누었다. 앞의 세 작품이 전자에 속하며, 뒤의 두 작품이 후자에 속한다.

일상과 연관을 보인 위의 다자이 소설들은 집필 시기와 무관하게 개인과 주체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제국일본의’ 다자이 오사무 소설들에서는 주체성 실현의 장 혹은 실현의 도구로서 제국일본이 등장한다. 「12월 8일」에서 구원자처럼 나타나는 남편은 천황마저도 탈맥락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전유한다. 「동경 소식」의 화자는, 전시동원에 의해 노동의 기회를 얻은, 장애를 지닌 소녀를 아름

답게 바라본다. 「석별」에서는 제국일본을 통한 아시아 독립의 가능성이 한가득 제시된다. 다만, 이는 집필 배경이 된 '동아'(東亞)의 선천적인 연결됨 주장, 나아가 제국일본의 선천적 가치가 지닌 허구성을 암시하며 이루어진다.

자립의 다자이 오사무 소설에서는, 인물이 주체성 혹은 가치관을 의탁하는 대상으로서, 혹은 일종의 해결책으로서 등장하였던 제국일본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진다. 「화폐」의 주요 인물인 작부(酌婦)는 '나라'가 이기기를 바라는 평범한 소시민이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제국일본에 갇혀 한계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작부는 스스로가 얼굴을 지닌 존재이기에 레비나스적인 의미에서 타인의 얼굴을 바라볼 줄 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모욕을 준, 그리고 정작 '나라'에 도움은 되지 않을 군인일지라도 그를 기꺼이 구해낼 수 있다. 그녀의 행동은 구원받은 군인에게 전염된다. 「타앙탕탕」은 개인과 주체성에 관심을 가져온 다자이의 종합적 위치에 선다. 작품은 제국일본이 패전을 맞이하며 제대한 청년이 보낸 편지와 모 작가의 답신으로 구성된다. 청년은 무언가에 몰입하려 할 때 "타앙탕탕"하는 망치 소리를 듣는다. 그를 몰입하게 만드는 전시의 유산, 전후의 흐름 모두가 망치 소리에 의해 정지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소리는 정지를 통하여 청년이 스스로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쌓아가고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돕는다. 청년의 고민을 편지로 전해 들은 작가는 확신에 찬,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소리를 멈추고 싶다는 청년에게 답을 건넨다. 불친절한 작가의 자세와 서술자에 의해 무학무사상으로 묘사되는 작가의 모습을 고려한다면 답신이 청년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주의(主義)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다자이의 자화상 같기도 하다.

이상의 논점을 통해 전시와 전후를 꿰뚫으며 사회 혹은 국가가 보인 개인에의 압도, 그에 맞선 주체의 등장, 주체성의 내재적 근거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면, 억압된 전시 그리고 회한의 전후라는, 일본 '전후문학' 혹은 1940년대 일본 문학을 향한 시선의 이분법적 관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바깥을 전유하되 의탁하지 않는 주체, 개인, 동일자의 획득을 전진시켜 타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타인의 얼굴을 외면하기에 발생하는 시대

적 문제를 풀어내는 것으로도 이어지리라 믿는다.

주요어 : 통전(transwar), 개인, 주체성, 일상사,
1940년대 일본, 일본문학, 다자이 오사무
학 번 : 2019-26951

목 차

1. 서론 ····· 1
1.1. ‘새로’ 출발하려는 일본의 ‘전후’ ····· 1
1.2. 20세기 초 일본(문학)에 대한 통전적 독해와 일상사적 접근 ····· 15

2. ‘제국일본의’ 다자이 오사무 소설 ····· 28
2.1. 총동원 속 개인들 ····· 28
2.2. 전시기 타자의 정치학과 다자이 오사무 ····· 52

3. 자립의 다자이 오사무 소설 ····· 65
3.1. 전시 기록하기 ····· 65
3.2. 통전 공간 넘어서기 ····· 76

4. 결론 ····· 89

참고문헌 ····· 92
Abstract ····· 99

1. 서론

시끄러운 시대가 지나가고 이삼일 안심하고 있었더니, 또다시 시끄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인연 같은 것은 미신이라느니, 필연적이라고 말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비판하는, 그 성가신 우익 이전의 성가신 좌익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것도 사양하겠습니다.[1)]

うるさい時代が過ぎて、二三日、ほっとしたと思ったら、また、うるさい時代がやって来ました。縁などというのは迷信である。必然的と言わなければならぬ、なんて、一言一言とがめられる、あの右翼のやっかい以前の左翼のやっかい時代が、また来るのかしら。あれももう私は、ごめんです。[2)]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답신」(返事, 1946)

1.1. '새로' 출발하려는 일본의 '전후'

1945년 8월 15일 정오, 천황의 「대동아전쟁 종결 조서」(大東亜戦争終結ノ詔書, 이하 종전 조서)가 제국일본의 전역에 '옥음방송'이라는 유례없던 형태로 발신되었다. 조서는, 전쟁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전쟁으로 고통받는 신민과 인류를 안타까이 여긴 천황이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영중소 4개국에 '그 공동선언'의 수락을 통고하도록 하였다"며, 항복이나 패배와 같은 용어를 일절 배제한 채 전쟁의 종결을 알렸다. 해당 조서는 오늘날까지도 일본 '전후'의 기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공식문서

---

1) 다자이 오사무(2014), 김재원 역, 「답신」, 『다자이 오사무 전집 10』, 도서출판 b, p. 354. 이하 다자이 오사무의 한국어 전집에서 작품을 반복 인용할 시, 「작품명」, p. 페이지수. 로 표기한다.

2) 太宰治(1989), 「返事」, 『太宰治全集 10』. 東京: 筑摩書房, p. 368.

본고는 현대 일본어로 표기법을 교정한 다자이 오사무 전집(太宰治(1989), 『太宰治全集 全10巻』, 東京: 筑摩書房.)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다만 해당 전집에 생략된 서간문이나 일부 해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옛 가나 표기법을 사용한 전집을 인용하였다. 한국어 전집과 마찬가지로 이하 작품을 반복 인용할 시, 「작품명」, p. 페이지수. 로 표기한다.

로써 연합국에 알린 8월 14일, 일본 정부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미국이 대일전승기념일(Victory over Japan Day)로 삼았던 9월 2일(혹은 국가에 따라서 9월 3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연합국 각국과 일본의 전쟁상태가 종결된 1952년 4월 28일 등의 날짜가 각기 '전후'의 기점으로서 지니는 자격을 고려한다면, '옥음방송'으로 시작하는 '전후'란 패전을 계기로 삼아 형성된 사실(fact), 혹은 당위가 아닌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치(value)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3] 바꿔 말하자면, 일본의 '전후'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결에 따라 당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쟁과 패전의 내막은 최대한 흐린 채 "장래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말을 맺는 「종전 조서」에 의해 인위적으로 시작된 것이다.[4]

일본 '전후'의 시작에서 발견되는 '미래지향적'인 얼버무림, 혹은 과거를 외면하며 구현되는 분절성은, 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장치로도 해석 가능한 종전에 관한 의례[5]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도드라진다. 추축국의 중심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의 정부는 각기의 패전을 일종의 기념일로써 계승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패전을 맞은 이탈리아는, 전황의 악화에 따라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왕국 내부에서 축출된 후에 세운, 파시스트 망명

---

3) '옥음방송'과 8월 15일을 중심으로 삼는 일본 내 전후 이미지의 구성과정은 佐藤卓己(2005), 『八月十五日の神話—終戦記念日のメディア学』, 東京: 筑摩書房.(사토 다쿠미(2005), 원용진·오카모토 마사미 역, 『8월 15일의 신화 – 일본 역사 교과서, 미디어의 정치학』, 궁리.)에 의해 상세히 연구된 바 있다.

4) 「종전 조서」의 구성과정과 구성상의 목표, 해당 조서를 통해 드러나는 전쟁 다시쓰기, 이어지는 GHQ와의 타협, 전후 체제의 구성은 小森陽一(2003), 『天皇の玉音放送』, 東京: 五月書房 (고모리 요이치(2003), 송태욱 역,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 뿌리와 이파리)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5) 국가적인 의례가 민족주의(Nationalism)적인 차원에서 갖는 사회학적, 혹은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Michael Billig(1995), *Banal Nationalism*, London : Thousand Oaks(마이클 빌리그(2020), 유충현 역, 『일상적 국민주의』, 그린비)는 특히 주목할만하다. 빌리그는 앞선 연구들을 끌어안으며 민족주의적 상징이나 국가 의례(ceremony)들이 미시적인 의례 자체로서의 의미도 지닐 수 있지만, 설령 그러한 형태를 지니지 않거나 인식되지 못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과정 자체가 해당 의례의 가치를 내재적인 것으로 만들기에 오히려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의례 자체가 표출하는 직접적인 민족주의적 상징성이 눈에 띄지 않는 이 시점에 의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할 때 더욱 필요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의 해체일인 1945년 4월 25일을 '이탈리아 해방일'(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d'Italia)로 지정하였으며, 1946년부터 매년 4월 25일을 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삼는다. 1946년 4월 22일에 포고된 법규명령 185호(Decreto Legislativo Luogotenenziale 22 aprile 1946, n. 185)의 1조에는 그 취지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며, "이탈리아의 완전한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1946년 4월 25일을 국경일로 삼는다."[6]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무조건항복 명령이 모든 나치독일 통제 아래의 지역에서 발효된 5월 8일을 기념한다. 우선 동독에서는 5월 8일을 1950년부터는 해방의 날(Tag der Befreiung), 이어서 75년부터 90년까지는 승리의 날(Tag des Sieges)로 지정하였다. 한편 서독에서는 상당 기간 패전의 기억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패배에 선행했던 도덕적 쇠퇴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äcker) 대통령이 1985년 5월 8일에 서독 국회에서 행한 '유럽에서의 전쟁 및 국가 사회주의 압제 종결 40주년 기념행사 연설'[7]을 통하여 정리될 수 있었다. 그는 5월 8일을 독일인이 겪은 패전의 절망과 그에 따른 고통의 기억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말의 궁극적 원인이 된 1933년 1월 30일, 즉 아돌프 히틀러의 총리 취임에 따른 압제가 종말을 맞이한 해방의 날로서 기록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연장선상에서, 독일 정부는 종전 75주년을 맞이한 2020년 5월 8일을 국가사회주의 해방 75주년 기념일(75. Jahrestag der Befreiung vom Nationalsozialismus)로 지정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부터 나흘이 지난 1952년

---

6) "A celebrazione della totale liberazione del territorio italiano, il 25 aprile 1946 e' dichiarato festa nazionale.", Art. 1. DECRETO LEGISLATIVO LUOGOTENENZIALE22 aprile 1946, n. 185 (1946).

7) Richard von Weizsäcker(1985, May 8), "Speech by Federal President Richard von Weizsäcker during the Ceremony Commemo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ar in Europe and of National-Socialist Tyranny on 8 May 1985 at the Bundestag, Bonn", trans. Bundespräsidialamt, https://www.bundespraesident.de/SharedDocs/Reden/DE/Richard-von-Weizsaecker/Reden/1985/05/19850508_Rede.html .

5월 2일에 최초의 기념행사인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가졌다. 의식 주최에 관한 1952년 4월 8일의 각의결정문[8]은 “평화조약[9]의 발효에 따른 독립에 즈음하여, 나라가 하나가 되어 전몰자를 추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전몰자를 ‘지나사변’[10] 이후 전쟁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11]로 정의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묵념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며 추도식에는 ‘전국’으로부터 유족대표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형식은 전몰자에 대한 추도이나, 내실은 전후 일본의 특성 중 하나인 ‘단일민족국가 개념’으로의 위축[12]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행사가 8월 15일로 옮겨져 연례화된 것은 십여 년 후인 1963년의 일이며, 1982년에 이르러서야 8월 15일은 내각의 각의 결정[13]에 의해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戦没者を追悼し平和を祈念する日)로 지정된다. 기념일 지정 취지는 “앞선 대전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도하여 평화를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간결하게 서술된다. 종전 75주년과 신형코로나바이러스를 맞이한 2020년 현재의 기념식에서도 이는 거의 그대로 인용, 유지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탈리아와 독일의 공적인 목소리는 전쟁 당시에 대해 시선을 투사, 전전, 혹은 전시에 기반을 둔 극복 서사를 정립, 과거를 향한 해석의

---

8) 参議院厚生委員会専門員室(1952), 「全国戦没者追悼式の実施に関する件」, 『厚生情報 4(5)』, 東京: 参議院厚生委員会専門員室, p. 140.

9) 1952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0) 중일전쟁의 당시 일본 내 명칭.

11) 52년 4월 8일 각의 결정문에는 숫자나 국적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厚生労働省(2002), 「全国戦没者追悼式について」, 東京: 厚生労働省 에 인용된 1963년 추도식의 전몰자 통계에 따르면, 군인 군속 230만명, 일반국민(一般邦人) 80만명, 총 310만명으로 서술된다. 즉, 구 일본제국군 전사자와 일본제국 신민 사망자만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사망자의 민족성(ethnicity)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며,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피폭경험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략에 의한 일본인으로의 수렴이 이 지점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12) 관련하여 小熊英二(1995), 単一民族国家の神話, 東京: 新曜社(한국어 역 : 오구마 에이지(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조현설 역, 소명출판)는 근, 현대 일본에서 일본민족 개념의 변천과, 제국일본의 붕괴 후 발생한, “단일민족국가라는 신화”로 대표되는, 일본인 개념의 급격한 축소에 대해 깊은 고찰을 보여주고 있다.

13) 内閣官房(1982), 「「戦没者を追悼し平和を祈念する日」について」,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M0000000000001159147.

폭을 넓히며 이를 의례에 적용하고 국가건설을 진행한다. 반면, 일본의 공적인 목소리는 전쟁을 소재로 삼되, 과거에 시선을 투사하기보다는 과거의 모습을 일부 잘라내는 형태의 의례를 실시, '단일민족국가 신화'라는 축소 지향적인 동시에 당대적인 민족개념 재구축을 통하여 국가건설을 진행해나간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1945년 이후 일본의 '전후'를 구성해나간 '미래지향적'인 얼버무림 혹은 잘라내며 이루어지는 '당대적' 재해석은 국가로부터 출발하였으나 단지 국가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었다. 전쟁 이후라는 시대 인식을 담는 용어로서의 '전후'가 언제 처음 등장하였으며, 어떠한 의미를 담아왔는지는 명확히 밝히기도, 간단히 정리하기도 어렵지만[14] 적어도 패전 후 주류적 위치에 자리했던 일본의 지식인들이 출발점으로서 당대를 점차 실감, 정의해나갔다는 점은

---

14) '전후문학'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세누마 시게키(瀬沼茂樹)는 문학 속 '전후'에 접근하는데,

"이른바 '전후문학'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 사용하였는지는 지금 와서 확실히 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마 히로시의 데뷔소설집 『어두운 그림』(暗い絵)이 진선미사(真善美社)에서 간행될 때(1947년 10월 10일 발행) 그 커버에 'aprèsguerre creatrice'라는 문자가 들어있었다(하지만 이 문자는 책의 표지에는 들어있지 않다. 책의 표지에 포함된 것은 제2책 나카무라 신이치로(中村真一郎)의 『죽음의 그림자의 아래에』(死の影の下に)부터이다). 나카무라의 회상에 따르면, 이는 하나다 기요테루(花田清輝)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창조적 전후세대'에 가까운 뜻이라고 전하고 있다. 즉 이것이 기회가 되어 '아프레 게르 총서'를 속간하게 되었으며, 아프레 게르가 세간에는 무규범한 청년남녀와 그 풍속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 되었으나 이것이 전후파문학, 혹은 작가들을 일컫는 명칭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다. 패전에 의해 텅 비어있던 이 시점에 전후 혹은 전후문학이라는 호칭은 아직 보편화적이지 않았으며, 내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L'après-guerre'는 프랑스에서 제1차대전 종결 이후인 1918년부터 1930년 정도까지의 20년 사이에 데뷔한 특정 작가들의 명칭이었으며, 아마도 나카무라 신이치로는 기지를 발휘하여 이 명칭으로부터 떠올렸을 듯하다. 제2차 대전 후의 우리나라의 '전후파'문학은 제1차 대전 후의 프랑스의 '전후' 작가에 대한 마르셀 아를랑(Marcel Arland) 등의 정의를 비추어 보았을 때 꽤 다른 인상을 주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과 방법을 따져보았을 때, 전후의 새로운 문학을 짊어진 사람이며, 문학적 전위이며, 전후 신문학의 중핵(中核)이며, 그 후의 문학적 업적을 참조하였을 때 전후의 문학의 성격을 대표하는 자(者)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전후문학사라는 명칭은 협의로서 '전후파'문학사를 의미하며, '전후파'문학의 역사적 서술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한 바 있다. 瀬沼茂樹(1965), 「戦後文学史論」, 『國文學,解釈と教材の研究-特集:戦後の文学- 十一月号』10(13), 學燈社. pp. 9~10.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대표적인 예로서 전후 공간에서 널리 읽힌 마루야마 마사오는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 1946) 등의 논설을 통해 일본의 패전을 초국가주의의 몰락이자 새 출발의 기점으로 바라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전후는 단절된(혹은 머지않아 단절될) 과거 위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근대를 구축하는 시대였으며, 자신을 포함한 당대 지식인들을 '회한 공동체'로 지칭하였다. 마루야마가 제기한 '회한'은 전시의 협력적인, 혹은 비 저항적인 태도를 돌이켜보던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되던 감정이었으며 전쟁의 의미를 강력하게 부정(否定)하였다는 점에서 「종전조서」와는 상반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否定)이 전시(戰時)에 관한 모든 시도를 덮어버렸다는 점에서 「종전조서」와 같은 편에 서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시에 대한 강력한 거부는 정치단체로서는 공산당이 거의 유일한 정신적 권위로서 등극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15]

이상의 맥락을 참고하며 1947년 즈음부터 '전후'기 문학의 첫발을 정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치와 문학 논쟁'(혹은 '주체성 논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논쟁은 '민주주의 문학'을 표방하며 구 프롤레타리아문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일본문학회'(新日本文学会, 1945년 12월 30일 창립)와 근대적 주체의 확립을 위한 문학(혹은 예술)을 천명하며 혼다 슈고(本多秋五), 히라노 겐(平野謙), 야마무로 시즈카(山室静), 하니야 유타카(埴谷雄高), 아라 마사히토(荒正人), 사사키 기이치(佐々木基一),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 등 일곱 명의 30대 동인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잡지 『근대문학』(1946년 1월 창간)에서 이름을 따온 '근대문학파'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전후 일본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지녔던 일종의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 출범한 '신일본문학회'는 문학의 정치적 기능을 강력하게 의식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앞서 평화적으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민주주의 혁

15)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 직후의 회한, 당대를 향한 현상 인식에 대하여는 오구마 에이지(2019), 조성은 역, 『민주와 애국』, 돌베개. 중 1부 5장 「좌익의 '민족', 보수의 '개인'」을 참조.

명노선에 따라 움직였다. 다만 이는 단순히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주의혁명만을 위한 모임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전의 프롤레타리아문학 운동에 거리를 두며 '사소설'적 전통을 이었던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등의 소위 원로 작가들까지 찬조회원으로 영입하는 등 전후 직후 일본에서 대표적인 문학단체의 지위에 가까웠다.[16] '근대문학파'의 구성원 다수가 '신일본문학회'의 구성원이었음은 이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당대 일본 문학계 일반에서 나누었던 '회한 공동체'적인 자기 인식은 이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원인이었다.

한편 '근대문학파'는, '신일본문학회'의 사회주의 혁명노선에서 드러나는 정치성과 구분되는 세 가지의 문학상을 표방하며 나섰다. 『근대문학』의 창간 당시를 다룬 하니야 유타카의 회고록 「『근대문학』 창간까지」(「「近代文学」創刊まで」, 1955)에 따르면 "첫째는 정치의 직접적인 착색을 배제한다는 것, … 둘째는 실감에서 출발해서 문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이른바 주체성의 존중, … 셋째는 혁명 운동, 전향, 전쟁이 거듭되던 시대를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들여다보았던 30대의 사명이라는 '주류설(主流說)'에 바탕한 세대론의 견해"[17]였다.

다만 '근대문학파'의 주장은 단순한 정치의 우위 대 예술의 우위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 예술지상주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근대문학』 창간호에 실린 혼다 슈고의 창간 선언문, 「예술·역사·인간」은 '정치의 논리'를 외율적인 것으로, 문학을 내유적인 것으로 정의하였지만 해당 논의는 양자의 완전한 분리로 종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영토화'에 관한 일종의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영토화는 곧 "'나'의 내유적 요구에 의해 형성되는 예술 영역의 사회적 공간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18]

---

16) 서동주(2013), 「'새로운 전쟁'과 문학적 자유주의의 행방 -〈근대문학〉을 둘러싼 사상 공간」, 『전후 일본의 지식 풍경-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 4』, 장인성 엮음, 박문사, p. 32.

17) 호쇼 마사오 외(1998), 고재석 역, 『일본 현대 문학사 상』, 문학과 지성사, p. 258. …는 인용자에 의한 중략이며, 이후의 인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한다.

18) 서동주(2013), p. 34.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와 문학 논쟁'의 양쪽 당사자는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서 있었다고 읽어낼 수 있다. 세누마 시게키는 1963년에 집필한 전후 일본의 문학에 대한 회고, 「전후문학사론」(戦後文学史論)을 통하여 두 축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게 된 까닭과 '근대문학파'의 위치를 서술한다. 그에 따르면, 전후 일본의 문학장을 사소설, 풍속소설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문학, 프롤레타리아문학 계열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문학', 새로운 방법 의식에 입각한 '전후파문학'의 셋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전후파문학'을 이끌어나간 당사자들이 '민주주의 문학'의 중심이 된 신일본문학회의 회원이었음에서 드러나듯 '민주주의 문학'과 '전후파문학'의 교착(交錯)점 위에 '근대문학파'가 위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이들의 분기(分岐)는 전후 '민주주의 밀월'의 분위기 속 근대개인주의 사상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누마는 '민주주의 문학' 계열의 중심이 된 구 프롤레타리아 문학계의 문학자들이 인민전선적 이데아의 실현을 넘어 문학의 마르크스주의에의 종속을 기도(企圖)하였다고 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가정한다면 '근대문학파'의 분리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19] 요약하자면 '정치와 문학 논쟁'의 양 당사자는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였지만, '근대문학파'는 '민주주의 문학'의 움직임이 과거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뿐 아니라 전시 제국주의에의 종속에 닮아있다고 보았기에 근대개인주의의 문학적 실현을 위해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세누마의 주장이다.

나아가 서동주는 '근대문학파'의 분기를 구체화한다. 그는 '근대문학파'가 '신일본문학회'에 향한 정치의 우위성 비판이 민주주의 문학운동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다. 나아가 '근대문학파'가 '개'와 '예술'의 절대성을 근거로 삼아 '신일본문학회'와 대립한 현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우선 '신일본문학회'의 경우를 보자. … 그들의 전쟁 인식은 천황제 군국주의가 민중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지식인을 '탄압'했다는 서사에 기초하고 있

19) 瀬沼茂樹(1963), 「戦後派文学の系譜」, 『文学』 31(11), 岩波書店. pp. 1182~1183.

다. 그리고 이러한 전전 인식의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전후 최우선 과제는 부당한 권력을 정의로운 권력으로 교체하는 민주주의 혁명이 상정된다.

반면 '근대문학파'의 전쟁 인식은 이와는 달랐다. 천황제 군국주의의 전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신일본문학회'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이 아니라, 공산당과 천황제라는 두 개의 '정치'가 보여준 개(個)에 대한 철저한 억압성이다. … 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정치(혹은 집단)에 환원될 수 없는 개의 '고유성(singularity)'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20]

반세기의 간격을 둔 두 연구는, 당대의 문학장을 지배하였던 양 축이 전시와 전후를 향해 공통으로 지닌 시각을 보여준다. 억압으로 인해 무력했던 전시의 인민(혹은 지식인),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새로운 세상이다.

형성된 전시를 향하여 분절적인 자세는, 분야를 막론하고 패전 후 상당 기간 그림자를 드리워왔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많은 문학사 서술은 전시를 일종의 암흑기로 가정한 뒤 전후를 하나의 시작이자 시대구분으로 삼아 중심에 '전후문학'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양심적인 작가 활동의 대부분을 정지시켰다. 침묵과 도회(韜晦)에 의하여, 즉 현실과 단절된 지점에 아슬아슬하게 예술의 성을 지켜낸 소수의 작가를 제외하고는, 문학 전체의 가공할만한 부재가 분명해졌다"[21]며, 공백 이후 문학의 재출발[22]로서 '전후문학'을 정의하거나, 정치적 변화에 집중하며 작가들의 회한, 점령과 검열제도, 원폭문학 등을 소재로 삼아[23] 전후의 문학을 설명한다. 동시에 전후의 문학자를 자신들을 단련시킨 "정당한 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국가의 사상이 파괴되었기에 자신들이 '무' 또는 '공백'의 시간과 공간 속에 내던져졌다는 실감으로 인하여 사상과 관념의 창조에 나선 사람들로 바라본다.[24]

---

20) 서동주(2013), p. 34.
21) 久松潛一 編(1981),『日本文學史 : 近代 II』, 東京 : 至文堂, p. 1022.
22) 久松潛一 編(1981), p. 1024.
23) Kensuke Kono, Ann Sherif(2016), "Trends in postwar literature, 1945-1970s",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ed. by Haruo Shirane, Tomi Suzuki, David Lurie). Cambridge, United Kingdom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즉, 일본 전후의 문학이 일반적으로 전쟁 체험에 사상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후의 모든 문학이 '전후문학'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다. 즉 전후의 일본 문학을 '전후문학'으로 읽어내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전전을 잘라내고 있으며, 자연히 전시에서 전후로의 이어짐은 일반적인 '전후문학'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25]

그러나 전시를 향한 실질적인 외면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절적 전후관(戰後觀)은 1990년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다. 야마노우치 야스시(山之内靖)와 빅터 코슈만(J. Victor Koschmann),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 등이 주축이 된 공동연구팀의 사회학적 연구가 앞선 사례로서 존재하며, 사학자인 앤드루 고든(Andrew Gordon),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 또한 살펴볼 수 있겠다. 그들은 근대 역사에서 전시와 평시는 차이를 갖지 않고, 전시는 평시의 연장에 위치하며, 총력전 체제를 대표적인 "전시의 평시화 혹은 평시의 전시화"[26]의 사례로 본다. 해당 연구는 1945년 일본의 패전을 기점으로 삼는 기존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20세기 초반부터 형성된 사회구조가 전후까지 이어져 지금의 일본을 구성해냈다고 주장한다. 야마노우치 야스시를 포함한 공동연구팀은 총력전 체제에 집중해 "'전후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철저히 이해하며 비판하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이 이전 시기와 깊은 연속성을 지녔고, 나아가 (전후민주주의와 직전의 시대 모두)일관되게 근대적인 것"[27]임을 밝혀내려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930년대 즈음하여 형성된 일본의 총력전 체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전시 혹은 전후에서 발견되는 병폐 또한 일본적 특수성이나 전근대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근대적인 결

24) 호쇼 마사오 외(1998), pp. 308~309.
25)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후문학'으로, 전후 일본 문학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한적인 분류를 지칭하고자 한다.
26) 이요타니 도시오(2010), 김지연 역,「야마노우치 야스시 · V.코슈먼 · 나리타 류이치 엮음,『총력전과 현대화』」,『내셔널리즘론의 명저 50』, 일조각, p. 463.
27) 山之内靖, ヴィクター·コシュマン, 成田龍一 編(1995),『総力戦と現代化』, 東京 : 柏書房, p. iii.

과물이라는 것이다.

한편 사학자인 앤드루 고든은 일련의 연속성을 일컫는 용어로써 통전사(transwar history)를 사용하며

> "1945년 8월(의 항복을 둘러싼)의 내적 경험과 미 군정기 개혁의 외부적 압력은 '전후 일본'을, 명확한 출발점을 지닌, 자연스러운 역사적 시대구분으로 만들었다. '재탄생'으로서의 일본적 기억을, 그리고 미국 중심의 개혁 서사를 분석의 틀로써 받아들이는 것은 전후 일본의 역사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한계로서 작동한다. 많은 방향에서 1940년대~50년대는 전전, 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 세기가량이 지난 지금 바라보았을 때, 전후 일본의 새로운 사회적 패턴이란 1950년대 후반, 혹은 60년대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쟁을 가로지르며 놓인 (20)세기 중반의 수십 년에 걸친 시기는, 사람들이 '전후'로 부르는 시기의 전 단계로서 자리한다. 전쟁의 종결에 따른 수많은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으나, 1945년 이후 십여 년간의 이 매력적인 시기는 변화한 정치 구조와 문화적 환경, 그리고 비교적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된 통전기 사회의 겹쳐짐 위에 놓여있다."[28]

라고 풀어낸다. 그는 각종 사회경제적 상황을 제시, 정치적 조건에 의해 명명된 '전후'와 (생활) 수준으로서 구분되는 '전후'에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나카무라 마사노리는 앤드루 고든의 통전사 개념을 의식하는 동시에 전후 일본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경제사적 측면과 동원체제에 집중,

> "관전사(貫戰史)[29](trans-war history)란 무엇인가. 전쟁은 국제관계를 크게 바꾸고 국내의 정치경제, 사회구조에 격변을 초래하여 사람들의 사고와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 따라서 종래와 같이 '단절이냐 연속이냐'라는 양자택일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이상과 같은 새로운 시점에서 전후사란 무엇이었는가

---

28) Andrew Gordon(2000), "Society and Politics from Transwar through Postwar Japan", In *Histor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East As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 273.

29) Trans-war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관전사(貫戰史)로 번역된다.

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해보자는 것이다.[30]

라는 자세로서 전쟁에 의한 격변과 그 영향을 짚어내고 있다. 이상의 통전적 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통전성이란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일본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바뀌지 않는 사회구조를 지적하고, 당대인의 자발성 혹은 주체성의 가능성을 의식하며 가려진 전시를 다시 끌어오는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연속성의 실증적 확인을 발판으로 삼아 연구는 사상으로도 나아갔다. 강상중(姜尙中)과 나카노 도시오(中野敏男)가 대표적인데, 우선 강상중은 '국체(國體)' 개념을 중심으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분석하며 일본의 패전을 통해 전시의 '국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생 민주 일본'이 채워졌다는 기존의 관념을 재검토한다. 그는 전후의 기점이 되는, 8월 15일의 '옥음방송', 즉 천황의 「종전조서」에 대한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존 다우어(John Dower)의 의미규명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종전조서」 속 일본어는 '대일본제국'의 중심적 사상을 표현해낸 「군인칙유」와 「교육칙어」의 문체와 같았으며, 내용상으로도 "굴욕적인 패배의 선언을, 일본의 전쟁 수행의 재긍정과 천황의 초월적 도덕성의 재확인으로 전환"[31]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그는, 「종전조서」를 미 군정기에 발신된 1946년의 「연두조서」와 결합한다. 요약하자면, 종전 국면에서 국체 보전과 사회구조의 전환 방지를 최우선 명제로 삼은 일본의 정치 권력이 새로이 등장한 상위 권력 미국과의 종속적 협조를 선택했고, 그 결과 작금의 파멸에 대해 1930년대 이후 이른바 '본연의 모습'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국체로 그 원인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제국으로 확대되어 있던 '국체'의 터진 자리를 꿰매고, 민족적(ethnic) '일본인'='일본국민'과 딱 들어맞는 '단일민족적' 국민국가로 수축"해 나아갔으며, 자연스레 "'탈식민화'의 과제는 주체적으로 재고되지 못한

30) 나카무라 마사노리(2006), 이종욱 역, 『일본 전후사 1945~2005』, 유재연, 논형, p. 15.
31) 강상중(2004), 임성모 역, 『내셔널리즘』,이산, p. 120.

채 싹둑 잘라내 버려야 할 것"[32]이 되었다. 즉 전후의 현실이란 8.15를 기점으로 하는 새 출발이 아닌, 전시부터 「연두조서」 혹은 그 이후의 시간에 걸쳐 형성된 '단절'과 '연속'의 복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나카노 도시오는 연속적 요소에 관한 타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를 끌어안으며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바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전시-전후가 연속되었음에도 왜 '나라 전체의 가치가 180도 전환한 전후의 일본'이라는 단절의 의식이 생겨나 '전후의 제로에서의 출발'이라는 인식이 큰 문제없이 수용되어 왔을까"[33]라는 물음이다. 전후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이 총력전의 사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주장[34]하는 나카노는 전후 사상의 형성을 그려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루야마 마사오와 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로 대표되는 '전후 계몽' 사상가들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그는 8.15를 초국가주의의 종언과 전후민주주의의 시작으로 호명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언설과 실제 전후의 괴리에 주목한다. 나카노는 전후 일본이 전시에서 벗어나 전후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책임의 추궁이 불가결하였으나, 추궁이란 흔히 "패전 직후의 상황에서는 심각한 분열을 낳을 수 있는…'일본을 깨는 비판'"이었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웠음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을 추궁하면서도 깨지 않는 마루야마의 언설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나카노는 전후 공간의 도래에 따른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변화, 그리고 사후적 해석을 통과하며 마루야마의 주장이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졌고, 결과적으로 일본 근대화의 기점에서 '재출발'하자는 '일본' 비판으로서 충분히 비판적이면서도, 패전이라는 사태를 일본인의 미성숙 탓으로 돌리고 오규 소라이(荻生徂徠)론 등을 경유하여 '일본인' 본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 계몽을 추구하는 구조였기에 '일본을 만드는' 형태의 비판으로 작동 가능한 구조를 지녔다고 풀어낸다. 따라서 국민에게도, 엘리트적인 회한 공동체에게도, 심지어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이뤄진 전후 개

32) 강상중(2004), p. 125.
33) 나카노 도시오(2005), 서민교·정애영 역, 『오쓰카 히사오와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의 총력전 체제와 전후 민주주의 사상-』, 삼인, p. 22.
34) 나카노 도시오(2005), p. 12.

혁에도 호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후 계몽가=마루야마의 ‘일본’ 비판은 ‘일본’을 만드는 형태의 비판이었고, 그것은 패전이라는 결정적 기로에 서서 ‘일본’을 깨는 책임을 회피시키고 내성적으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일본인’을 국민으로 묶는데 기여”하여 패전의 실제적 원인인 “근대 일본에 대한 비판은 뒤로 미루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나카노 도시오 주장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그는 “전후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근대화’와 ‘전후 부흥’에 매진하면서 탈식민주의 과제를 직시하지 않는 ‘전후’ 일본의 담론풍경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점을 논증해낸다.[35]

35) 나카노 도시오(2005), pp. 197~202.

1.2. 20세기 초 일본(문학)에 대한 통전적 독해와 일상사적 접근

만약 일련의 고찰이 유의미하다면, 사회와 사상에 발을 딛고 형성된 문학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20세기 초·중반의 일본 문학, 혹은 시야를 좁혀 전후 일본의 문학을 그려내는 과정에 존재해온 전후의 거대함과 전시(戰時)에 대한 간과라는 한 쌍을 향한 재고(再考)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일례로 세누마 시게키는 전후로부터 20년가량이 지난 시점에 집필한 전후의 문학을 총괄하는 짧은 글에서 일본 '전후문학'이 과거의 문학을 강하게 비판하고 단절을 주장한 것은 새로운 문학이 일어날 때 흔히 발견되는 사례이며, 문학 보편으로부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을 주장한다. 연장선상에서 그는 현대문학사의 틀로 해당 시대를 바라볼 때 '전전'과 '전후'의 연속과 비연속을 살핌을 통하여 변증법적 발전이 가능할 것임을 말하며, 전후 문학사를 쇼와 문학사의 후기로 설명한다.[36][37] 이때의 '쇼와 문학사'라는 틀은, 비록 1926년부터 시작되는 쇼와 천황의 통치를 기준으로 하여 시대를 구분한

---

36) "새롭게 굴기해 온 전후문학은 격한 어조로 전대의 문학을 비판적으로 부정하고 이런 전통과의 단절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전후의 신문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문학이 흥륭(興隆)할 때 보이는 자기주장의 방식이며, 전통에 대한 연속과 비연속에 변증법적인 발전이 있다면 현대문학사로서는 '전전'과 '전후'의 연속과 비연속을 통할 할 수 있는 곳에서 비로소 역사적 구조연관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후 문학사를 쇼와 문학사의 후기로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전망에 있어서 올바르게 역사적 관련을 포착하도록 만들 것이다." (瀬沼茂樹(1965), p. 9.)

37) '쇼와 문학사'라는 구분은 히라노 겐에 의해서 사용된 예시가 있으나 세누마의 사용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히라노 겐의 대표적인 저서 『쇼와문학사』(昭和文学史)의 구성에서 드러나듯 쇼와 연호가 사용되던 시기를 쇼와 초년대, 쇼와 10년 전후, 쇼와 20년대로 나눈 후, 개별 구분을 다시 주요한 정치적 사건(마르크스주의 문학 성립,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미군정 등)과 연관 짓는다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관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고에서 관심을 둔 '쇼와 문학사'의 사용과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 히라노 겐의 '쇼와 문학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오하라 유지(大原祐治)의 연구가 존재한다. 그는 "히라노가 이미지하는 '문학사'란 그야말로 한 무리의 작가들을 줄지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사관(유물사관*인용자 주)으로 관통되는 '일계열', '일체계'의 역사로 기술되는 것"이며, 히라노에 의한 '쇼와 문학사'란 그 자신이 "살아온 시대 그 자체의 정치 상황을 대상화하며 엮어낸 하나의 '현대사'이며, 그곳에는 정치로부터 자립한 문학의 영역을 확정해나가는 것이 명확히 지향"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大原祐治(2006), 『文学的記憶・一九四〇年前後 昭和期文学と戦争の記憶』, 東京: 翰林書房, pp.323-337. 을 참조.

다는 점에서 천황제를 근거로 한 단절과 연속의 구조의 문제를 여전히 껴안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시기와 정의(定義) 측면에서 더 넓은 간격을 지닌 채 '전후문학'을 품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현행 '전후문학' 속의 분절성은 앞서 검토한 일본 '전후'에 대한 고찰과 마찬가지로 넓은 범위에서 보충할 필요가 있겠으며, 일본에 한정된 특수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세누마의 지적과 같이 문학사적 보편으로 보는 것 역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초·중반에 걸친 일본 문학은 전후의 연속과 비연속을 살피며 적절히 이해되어야 하겠으되 그 방식은 일본 안에 얽매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일련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까. 가장 폭넓은 단계에서, 한국 문학사를 둘러싼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 김명인은 그의 글[38]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왔던 한국 사회의 과제가 막다른 벽을 맞이하며 발생한 문학사적 현상을 정리한다. 이전까지 '통일된 자주적 근대민족국가의 건설'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 과제로서 폭넓게 인식되었으나, 해당 과제의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자명한 '근대' 그리고 선형적이며 보편적인 소위 대문자 '역사'는, 탈근대적 사유들이 1990년대 이후 한국에 도착하며 내재하는 배제와 억압의 성격을 자연스레 드러내었고, 이에 따라 과제에 크게 의존하여 세워진 '한국 문학사',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족 문학사' 개념 역시 내용과 존재의의 모두에서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설령 '민족 문학사'의 절대성이 허구적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부분을 근대성(물론 이때의 근대성은 자명하고 필연적인 것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움직일 뿐 아니라, 몸은, 어쩌면 머리까지도, 근대민족국가와 같은 근대에 의해 만들어지고, 근대를 만들어간 현실 조건들에 의탁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 결과 김명인은 기원과 바깥을 성찰하며 이루어지는 내파적 글쓰기로서의 민족(문학)사/

38) 김명인(2018), 「문학사 서술은 불가능한가-정치적실천으로서의 민족문학사/쓰기를 위하여」, 『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 소명출판.

쓰기의 중요성을 강변하게 된다.[39]

한편 다루기 힘든 것, 혹은 의도적으로 간과되었던 것을 재조명하는 구체적 참고항으로서 한수영의 한국 전후문학 연구[40]가 존재한다. 그는 전후세대의 체험 속에 존재하는 균열에서 출발하는데, 해방 후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전후세대의 "식민지 경험이 지닌 고유한 결과 무늬가,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체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지점이 지금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경험 중 내외부적 억압으로 인해 표출되지 못한 부분은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에서 우회적으로 귀환하며 문학에도 나타났으나, 전후세대의 문학을 읽어내는 기존의 시선이 해당 특성을 충분히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1] 구체적 사례로서 한수영은 전후문학을 관념 과잉 현상으로 풀어내려는 다수의 시도 속에서 발견되는 비역사적 방법들, 즉 민족 수난의 서사로 '국민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을 재정립을 위해 '전후세대'를 향해 구현되는 타자화 논리를 지적한다. 이상의 흐름은 00년대에 접어들며 등장한 세대와 언어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들로서 보충을 맞이한다. 문화사 등 전후문학 바깥의 연구 성과에 따라 전후세대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된 결과였다.

종합하며 저자는 한국 전후문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필요사항을 몇 가지 제기한다. 첫째로, 한국전쟁 체험의 재해석이다. 그는 한국전쟁의 체험을 역사적으로 고립된 개별적 체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선 '태평양전쟁'이나 '중일전쟁'의 경험과 연계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는 참전을 '수난'이나 '폭력의 경험'과 같은 미시적 차원을 넘어 한국전쟁을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으로 바라보며 '동원된 국민의 경험'으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이다. 연장선상에서 한수영은 1950년대 문학주체들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보여준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을 맥락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선우휘와 같

39) 김명인(2018), pp.111-116.
40) 한수영(2015),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41) 한수영(2015), p. 25.

은 1950년대 문학인의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는데, 1950년대 문학인들 사이에 공유된 반공이데올로기,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 등 사상은 전쟁 과정이나 전후라는 분절된 시기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 식민지 시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란히 병치시키는 것은, 반공이데올로기를 구축하기 위한 억지가 아니라, 그 자신이 경험하거나 학습한 역사적 자장 안에서의 주관적 맥락화”였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시기의 문학이 말하는 바를 적절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역사적 시공간과의 연결을 통한 맥락의 파악이 필요함을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 전후문학 뿐 아니라 ‘전후문학’ 또한 전쟁의 경험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시의 것이기도 하며, 전쟁의 미시적 비극을 넘어선 앞선 시대의 총체적 유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수영은 ‘전후세대’를 둘러싼 문화사적 배경의 이해, 보다 구체적으로 전후세대 대부분이 지닌 ‘이중언어자’ 성격을 강조한다. 그는 해당 성격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학 창작의 특성상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었으나 한국 전후문학의 연구와 비평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전후문학의 주체들이 겪은 언어적 정체성에 따라 나타난 혼란과 균열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간과의 이유에 대한 고찰인데, 그는 “‘식민주의 이후’와 ‘식민지적 과거’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과거에 대한 억압’의 욕망”, 그리고 욕망과 맞물린 “최소한 해방 이후의 ‘한국문학’은 식민지 시절에 강제로 빼앗긴 ‘말과 글’을 되찾아 자유롭게 향유하는, ‘민족’의 ‘문학’이라는, 자기동일성의 신화”가 “전후문학에 ‘식민화된 것들이 왜곡되어 존속하는 것’을 은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42] 이를 응용한다면 일본 전후 속 회한 공동체가 휩싸였을 욕망이 ‘전후문학’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단서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한수영의 연구 속 회한, 혹은 사회적 억압에 기인하는 은폐의

42) 한수영(2015), pp. 47~50.

발견은, 일본 문학 연구 속 '전후'가 전시의 자발성, 혹은 주체성의 영향을 가리어왔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항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전후'에 가리어지는 전시 일본인의 '나' 이미지를 되찾는 지점은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적 의미에서 주체성을 구축하는 기점이기도 하다. 되찾은 "나의 욕구에 따라 세계를 향유(jouissance)하고 관리"함에 따라 나의 세계로 끊임없이 귀환하는 '존재론'을 형성[43]할 수 있고, 그러한 존재론을 기반으로 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 형이상학적으로 나아간 자리, 즉 "주체의 주체성은 … '타인을 영접하고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성립"[44]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수영의 논의를 일본 문학으로 옮겨와 적용할 수 있을까. 오사와 마사치(大澤真幸)는 유용한 단서를 제시한다. 그는 통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시와 전후를 연속적인 구조로 포착할 단서를 제공한다. 오사와는 전쟁이 "자기 체험의 본질을 표현하는 데에, 바꿔 말하면 사상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으로서 존재하였으"[45]나, 한편으로 패전 역시 자기부정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억압적[46]이었다고 말한다. 즉, '전후문학'이 주목하는 사건인 패전을 통해 군국주의적인 내셔널리즘이 지위를 잃게 되어 사상표현의 어려움은 일단 해소되었지만 곧이어 자기부정의 경향성으로 대체된 것으로, 표현의 어려움이라는 구조는 전쟁을 매개로 삼아 통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신일본문학회'와 '전후문학파'가 공통으로 보였던 전시에 대한 억압으로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더 쉽게 설명해낼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해당 구조는 한국문학이 전후에 맞이하였던 과거를 향한 간과, 욕망 등 여러 어려움과도 명백히 닮아있다. 따라서, 이상에 의존하여 전시와

---

43) 서동욱(2000),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p.142
44) 강영안(2005),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p.124.
45) 오사와 마사치(2010), 서동주·권희주·홍윤표 역, 『전후 일본의 사상공간』, p. 31.
46) 오사와 마사치(2010), pp. 33~34,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다수는 일본인으로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일본인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과거의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부득이하게 과거의 조건에 대해 전면적인 부정을 강요하는 것이 패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후를 가르며 일관적으로 글을 써낸 작가를 포착한 후 해석해나갈 수 있다면, 기존 일본 전후문학의 접근법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풍부한 시대 인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주목할 작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알프 뤼트케(Alf Lüdtke)의 일상사(Alltagsgeschichte) 개념은 한 가지 힌트를 제시한다. 일상사의 개념은 "참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객체이자 동시에 주체였는지를, 또는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역사적 변동이나 지속성은 오히려 구체적 개인들과 집단들의 행위에 귀속"되며, 이를 통해 거대한 체제가 아닌, 인간들의 사회적 실천이 중심이 놓이게[47] 되는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해당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후민주주의와 같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전후' 개념에 대안적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일상사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일상사의 미시적 특성이 모든 거시적 관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상사를 방법론으로 채택한 독해는 과학적으로 객관화된 형식들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시적인 연구 대상에 전적인 감정이입을 꾀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해를 반구상(反構想)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일상사가 집중하는 것은 미시적 관찰을 통해 얻어진 "우리들"과 "타인들"간의 거리가 지니는 한계를 인식하며 "자신의 표상을 항상 사후의 재구성으로서 새로이 이해하는 것"이다.[48] 즉 일상사적 시각은 연구자들이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단위에 매몰되기보다는 맥락을 바라보도록 요구하며, 나아가 사회적 상황과 관계, 즉 착종(錯綜)과 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시선을 필요로 한다.[49] 결과적으로 "독일 일상사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즉 평범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역사 안에 행위자의 경험과 행동 여지뿐만 아니라, 지나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규정하고 만들고 준비하는 공적

47) 알프 뤼르케 외(2002), 이동기 외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pp. 21~22.
48) 알프 뤼르케 외(2002), p. 25.
49) 알프 뤼르케 외(2002), p. 46~48.

인 정책과 실천작업까지를 포함"[50]하게 된다. 일상사에 의해 그려지는 인민은 "작업장과 집안 부엌의 소음과 열기, 자신과 동료 및 상사들의 몸, 이웃이나 자녀들의 존재, 작업재료 …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 노동 위탁, 관리들,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대한 개인적 · 가족적인 혹은 세간의 기대와의 창조적인(또는 지루한) 대면"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온갖 물질성과 관련을 맺으며 그것을 전유하는 실천자이다. 전유는 위의 상황들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되는 한편 감시, 상여금 규정에의 순응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정치 혹은 경제)권력과 같은 외부적 조건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노동자 자신의 이익 증대, 생산의 자부심에 의해 내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는 자기통제였다. 자연스레 "전유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종속자는 행위자가 된다."[51] 따라서 일상성은 많은 경우 망(網)에 의존하며 "개인적 행위와 감정이 '위대한 전체'와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52].

이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전후 계몽'에 대해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가 행한 비판을, 나카노 도시오가 평가하였던 내용과도 상통한다. 마루야마는 다양한 논의에서 제국일본의 전근대적인 천황제 구조로 인하여 전시의 잔학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요시모토는 기본적으로 마루야마론(論) 속 민중에 대한 타자로서의 취급에 동의하지 못했다. 설령 그러한 타자성을 받아들일지라도 정당화하기 힘들 정도의 잔학함을 전쟁 상황에서 목격한 결과 마루야마의 언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신에 그는 병사 개개인의 차원,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활사에서 원인을 찾았다. 요시모토가 설명하는 생활사는 개체와 사회의 차원으로 나뉘며, 잔학은 둘 중 '사회의 생활사'에 의해 구현되고, '사회의 생활사'는 다시 '일본적 양식' 혹은 '국민성'으로 귀결된다. 나카노는 이를 해설하면서, 요시모토의 해석이 마루야마가 실패했던 '일본을 깨는 비판'의 지점에는 가까이 도달했으나, '잔학의 일본적

50) 이유재, 이상록(2006), 「프롤로그, 국경 넘는 일상사」, 『일상사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책과함께, p. 13.
51) 알프 뤼르케(2006), 「일상사 – 중간보고」, 『일상사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고유경 역, 책과함께, pp. 45~50.
52) 알프 뤼르케(2006), p. 56.

인 양식'이나 '잔학 양식의 민속적 흐름'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짚어낸다. 성실해 보이는 자기반성이 실제로는 개별 행위자의 모습을 가리고, 발생할 사건을 결정론이나 불가피론에 근거한 것으로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타자의 물음을 차단하고 문제를 안으로 갇히게 만든다는 지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53]

이와 같은 목적의식 하에서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본명 쓰시마 슈지(津島修治), 1909~1948)를 주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품활동이 1933년부터 사망 직전인 1948년까지로, 전쟁을 복판에 껴안은 약 15년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논문의 첫머리에서 인용한 「답신」에서 엿보이듯 전전, 전시, 전후를 반복, 혹은 연속되는 시간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글 속에 직간접적으로 새겨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다자이 오사무에게서 연속성으로서의 시대 인식이 유달리 엿보인다고 주장한다.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 이시카와 준(石川淳) 등 다자이와 함께 무뢰파로 분류되는 대표적 작가들이 전후의 바람을 타고 글을 썼다면, 다자이 오사무는 전시의 태도를 전후까지 견지했다는 것이다[54]. 이에 더하여 다자이의 많은 작품은 일상을 소재로 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 "나는 시정의 작가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나라고 하는 작은 개인의 역사의 범위 안에 머무른다. 이것을 답답해하거나, 게으르다고 욕하거나, 혹은 상스럽다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를 살필 때, 소위 '역사가'가 쓴 책보다 우리가 능 쓰는 한 개인의 단편적인 생활 묘사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지각색의 사상가들의 연구와 결론에 구애받지 않고, 내 개인적인 사상사(思想史)를 여기에 쓰고자 한다."[55]

---

53) 나카노 도시오(2005), pp. 225~231.
54) 카또오 노리히로(1998), 「패전후론」,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서은혜 역, 창작과 비평사, pp. 133~134, 오사와 마사치(2010), pp. 24~25.
55) 다자이 오사무(2014), 김재원 역, 「고뇌의 연감」, 『다자이 오사무 전집 10』, 도서출판 b, p. 365.

私は市井の作家である。私の物語るところのものは、いつも私という小さな個人の歴史の範囲内にとどまる。之をもどかしがり、或いは怠惰と罵り、或いは卑俗と嘲笑するひともあるかも知れないが、しかし、後世に於いて、私たちのこの時代の思潮を探るに当り、所謂「歴史家」の書よりも、私たちのいつも書いているような一個人の片々たる生活描写のほうが、たよりになる場合があるかも知れない。馬鹿にならないものである。それゆえ私は、色さまざまの社会思想家たちの、追究や断案にこだわらず、私一個人の思想の歴史を、ここに書いて置きたいと考える。[56]

라고 언급한 점에서 드러나듯 이 논문이 목표로 삼는 문학상의 확보에 적절한 소재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다자이 오사무에 대한 대중적인 시선은 약물의 사용, 반복되다가 결국 생을 마감케 한 자살 시도 등 그의 불안정한 사생활에서 추출되어, 자전적 이야기로서 흔히 읽히는 소설 『인간실격』(人間失格, 1948)을 통해 강화된 허무, 무력(無力), 우울 등 다자이 오사무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 내 초기 다자이 연구의 경향도 이러한 어두운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초기 다자이 오사무 연구에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오쿠노 다케오(奥野健男)는 1956년의 『다자이 오사무론』(太宰治論)을 통하여 그의 연구를 일차적으로 종합하였는데, 부제를 "하강 지향의 문학"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해당 연구는 "이후 연구의 기반이 되어 계승되기도, 부정되기도 하며 영향을 미쳤다."[57]

본고의 논의는 다자이에 대한 하강 지향적인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며 가능해진다. 오쿠노 다케오의 연구가 초점을 맞춘 『인간실격』 중심의 몰락과 하강 지향성은 흔히 다자이의 데카당스(dècadence)로 지칭되는데, 데카당스가 지니는 성격을 세심하게 이해한다면 다자이 문학은 다른 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 윤상인은 그의 연구[58]에서 "세기말"(fin-de-siècle)과 "데카당스"의 관

56) 太宰治(1989), 「苦悩の年鑑」, 『太宰治全集 8』. 東京: 筑摩書房, pp. 268-269.
57) 山内祥史(1980), 「太宰治研究史」, 『太宰治必携』(三好行雄 編), 東京: 學燈社, p. 209.

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는 데카당스라는 단어 자체는, 붕괴, 쇠퇴 등으로 번역되며, 정신의 하강, 후퇴, 역행 등의 태도를, 확장하여 일종의 난숙에 따른 퇴폐를 지시하지만, 데카당스를 단일 사조의 해석에 한정하여 끌어오는 것은 그 의미를 충분히 펴내지 못함을 지적한다. “19세기 말부터 세기 전환기까지의 20~30년간에 걸친 ‘데카당스의 계절’은 묵시록적인 비전과 극도로 세련된 감각에 탐닉하는, 비길 데 없는 ‘탐미의 향연’의 순간이었다. 나아가, 온 예술을 둘러싸는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아찔한 모험을 통해 20세기 모더니즘을 준비하던 ‘맹아’의 시대였다”[59]는 윤상인의 데카당스에 관한 가능성으로서의 인식을 응용하였을 때, 다자이의 하강 지향에 관한 앞선 연구마저도 양분으로 삼아 다자이 문학에 새겨져 있을 시대에의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자이가 지닌 전시 및 전후의 일관성을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전후기에 큰 인기를 끈 작가라는 저명성 때문에 통전성을 다룬 연구에서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정작 전후 직후의 가스토리 문화[60]와 연관되며 “다자이 오사무와 사카구치 안고는 작품에서도 사생활에서도 전시 중의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비인간성과는 대조적인 평화시의 퇴폐주의적 인간성을 찬미했다.”[61]라고 표현되는 등 전시로부터의 작가적, 작품적 연속성에 대한 발견 시도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천황에 관한 논쟁적인 어구[62]로

58) 尹相仁(1994),『世紀末と漱石』, 東京 : 岩波書店.
59) 尹相仁(1994), p. 24
60) 가스토리 문화(カストリ文化)는 전후 직후 일본의 하위문화를 일컫는 말로, ‘가스토리’(술 지게미)로 만든 값싼 술, ‘가스토리 소주’에서 유래하였다. “가스토리 문화는 1950년대에 번성하며 현실 도피주의와 성적 감흥, 저속성의 속물적 화려함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성적으로 편향된 오락물과 폭포처럼 쏟아지는 펄프 문학이 지배하는 상업적 세계였다. 하지만 판판(주로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여성을 일컫는 말, 인용자주)과 암시장처럼, 가스토리 문화 속 사람들 또한 열정과 생명력을 과시했으며, 그러한 열정과 생명력 던분에 그들은 권위와 교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인상을 강하게 보였다.” (존 다우어(2009), 최은석 역,『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p. 179.).
61) 앤드루 고든(2015), 문현숙, 김우영 역,『현대일본의 역사 2』, 이산, p. 503.
62) “천황폐하 만세! 이 외침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식이었지. 하지만 오늘날 무엇보다 새로운 자유사상이 되었어. 십 년 전의 자유와 오늘날의 자유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야” 다자이 오사무(2013), 정수윤 역,「판도라의 상자」,『다자이 오사무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은『판도라의 상자』(パンドラの匣, 1946)의 개별적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이 지닌 전시와 전후에 대한 연속적, 단절적 성격이 주목받기도 하였다.『판도라의 상자』는 다자이가 전시에 완성하였으나 출간 직전에 소실된『종달새의 소리』(雲雀の声)를 전후에 개작하여 출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고 가쓰미(東郷克美)[63]는『종달새의 소리』의 골격이 전후라는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음에 주목하며, 이를 가능케 한 요인으로 천황제의 연속에 집중한다. 김영롱[64]은 도고의 연구와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안도 히로시(安藤宏)의 연구[65], 그리고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匡史) 등에 의한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접목한다. 그는 다자이가 옥음방송을 듣고 단절을 느끼는 인물들 사이에 "천황폐하만세!"라는 소리를 넣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8월 15일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전중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작품이 그려졌다고 읽어낸다.

한편 전쟁과 다자이 오사무를 연관 지은 선행연구의 경향은 더욱 폭넓게 발견된다. 우선 오쿠노 다케오는『다자이 오사무론』에서 다자이의 전쟁을 향한 자세를 "일관되게 전쟁에 대한 부정을 감춘 무시의 태도"라고 설명하며 '예술적 저항'설의 확장을 가져왔다. 오쿠노는 전쟁 말기 다자이의 입지에 대하여 "특히 전쟁 말기에 여타 문학가들이 문학활동을 접고, 발표를 포기한 곤란의 시기에, 다자이 오사무만이『우대신 사네토모』(右大臣実朝, 1943),『쓰가루』(津軽, 1944),「석별」(惜別, 1945),『옛날이야기』(お伽草紙, 1945) 등 예술지상주의적인 작품을 써 일본 문학의 불씨를 지켜온 점은 특기할만하

전집 7』, 도서출판 b, pp.111-112.

63) 東郷克美(1995),「天皇·エロス·死」,『シンポジウム:太宰治その終戦を挟む思想の転位』, 東京: 双文社出版, pp. 46-68

64) 金ヨンロン(2014),「〈断絶〉と〈連続〉のせめぎ合い : 太宰治『パンドラの匣』論」,『日本近代文学』90, pp.63-76.

65) 안도 히로시는 도고와는 달리 전후 천황제의 변화에 다자이가 따라가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마루야마 마사오에 의한 전시 일본의 설명, 즉 천황과의 거리에 비례하는 권력, 및 정체성 확인이 일본어의 구조에 내재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해당 구조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던 다자이의 집필은 전후와 천황제의 접붙이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安藤宏(2019),「太宰治と現代――「自己の内なる天皇制」をめぐって」,『永遠の太宰治』, 東京: 河出書房新社, pp.80-87. 및 安藤宏(1989),「太宰治·戦中から戦後へ」,『国語と国文学』, 66(5), pp.105-116. 을 참조.

다.”[66]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 하시카와 분조(橋川文三)등에 의해 이분법적인 전쟁 협력/저항의 틀에 재검토가 시작되었고, 80년대에는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단편이 점차 전집 이외의 별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쉽게 다뤄지지 못했던 전시 말기, 종전 이후의 단편이 검토의 대상으로 올라와, 전시 작품 속 순응의 측면과, 표현론적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앞서 인용한 가토 노리히로의 1997년 저술『패전후론』은 전중전후의 연속성에 대한 논의를 던지며 학계에서 강한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였다.[67]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연속성의 포착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토 노리히로의 연구에서 암시되는 ‘전시에의 기억’에서 나아가, 새로운 가치로의 지향을 추가하고자 하며, 더불어 다자이의 작품이 전시와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상을 그려낸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개인의 통전성까지 확인코자 한다. 일상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채숙향의 연구[68]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논문은 패전이 다자이에게 격동의 변화로서 중요한 결절점으로 작용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본고의 지향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논문은 다자이 오사무의 40년대 소설 속 제국일본과 다자이의 관계를 고려하며, ‘제국일본의’ 다자이 오사무 소설과, 제국 이후를 위한 소설로 분류해볼 것이다. 비록 다자이의 문학에 모종의 일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바뀐 정치적 상황에서 메시지가 발현되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자에서는 제국일본에서 살아가는 인물의,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초기 다자이 연구의 흐름은 많은 경우 양자를 상반된 것으로 가정하며 공적인 압박에 대하여 저항하였거나, 굴복했다는 식의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이분법적 구도가 현상을 충분히 그려내지 못하는

66) 奥野健男(1977),『目本文学史』, 東京: 中央公論社, p. 162.
67) 内海紀子, 小澤純, 平浩一(2019),『太宰治と戦争』, 東京: ひつじ書房, pp. x~xi.
68) 채숙향(2008),「다자이 오사무(太宰治)후기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현상을 앞선 일상사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한바, 이를 다자이 오사무 전시 작품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후자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전시에 비해 다소 가벼워진 표현의 제약, 그러나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속 다자이의 작품들을 검토하며, 다자이의 현상 인식, 전시의 극복, 제국으로부터의 자립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는 전후 활황을 맞은 출판계의 바람을 타고 출간된 소설 속 전시의 일상사적 모습의 포착을 넘어, 다자이가 어떻게 전후의 변화 속에서 과거를 안은 채 이야기해나가는지를 통전적 시각에서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일련의 작업을 통해 본고는 다자이 오사무가 지닌, 전시-전후를 가로지르는 가치관을 확인하고자 한다. 많은 전후문학이 취하는 시선인 주체성의 '부재'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이미 가진, 형성된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다자이 오사무의 모습을 읽어내며, 전후문학이라는 범주화에 대한 보충으로서 독해를 시도할 것이다.

2. ‘제국일본의’ 다자이 오사무 소설

전후 사상의 뿌리와 ‘전후문학’의 발생은 전시에 대한 회한에 상당 부분 기인함을 앞선 장에서 확인하였다. 주요한 사상적 축이었던 마루야마의 논설에서 보이듯, 그들은 전시의 자신들, 넓게는 제국일본의 신민을 객체로 파악하며 전후를 가능성이자 시작으로서 제시하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많은 문학가의 전시 작품은 전시 협력, 전쟁 동원, 당대의 문학-사상계가 지닌 암흑기적 성격을 이유로 삼아 상당 기간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른 시기부터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전시 속 한계들을 인정할지라도, 다자이의 전시기 작품들은 해당 요소를 넘어선 독해를 가능케 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번 장에서 다룰 「12월 8일」, 「동경 소식」, 「석별」에서는 제국 속 대조적인 인간상의 적절한 묘사, 실천과 전유를 통해 완성되는 행위자의 모습, 사회, 천황, 혹은 제국일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 일상사적 의미로 자신과 닿아있는 망(網)에의 인식, 회피할 수 없는 물질성과의 대면 방식 등을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2.1. 총동원 속 개인들

본고에서 가장 먼저 다룰 작품은 「12월 8일」(十二月八日)로, 진주만 공습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42년 2월 1일, 『부인공론』(婦人公論)지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1941년 12월 8일[69]은 진주만, 싱가포르 등지의 공습을 통하여 중일전쟁이 본격적인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된 날이었다. “미일 개전 때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전쟁을 찬미했다. 이전부터 서양에 대한 열등감에 고민하던 지식인들은, 여러 전투의 승리에 갈채를 보냈다.”[70]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싱가포르 함락에 즈음하여」(シンガポール陥落に際

69) 일본 시간 기준
70) 오구마 에이지(2019), p. 58.

して)[71]나 시가 나오야의 「싱가포르 함락」(シンガポール陥落)[72]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두 편의 글이 같은 잡지의 동일호에 유사한 제목으로 실렸다는 점에서 쉬이 짐작되는 국책의 가능성, 직간접적인 언론 통제[73],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며, 실제로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문학을 프로파간다로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간접적 장치의 역할 또한 고려할 필요는 있다. 나아가 당대의 문학이 "어디까지 독자의 지지를 모았으며, 독자를 열광적인 파시스트로 바꿔놓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74]는 문제제기 또한 존재한다. 다만 대미, 대영 개전이 어떠한 가치의 전환점으로 다가왔음은 여러 증언을[75] 참고하였을 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12월 8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읽어나갈 수 있을까. 선행연구는 주로 전쟁에 대한 저항, 혹은 영합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나누어 접근해왔다.[76] 오쿠노 다케오는 다자이가 당대의 파시즘적 분위기에 그대로 들떠 움직이지 않았다며 평가하는 한편 작품 자체에는 전쟁을 공손히 맞이하는 자세가 보인다고 읽어냈다. 다카키 도미코(高木知子)는 해당 작품을 국책문학의 전형으로 평가하였으며, 개전 당시 국가권력의 구속력이 작품, 나아가 문학장의 방향성을 강제했다고 바라보았다. 한편 쓰즈키 히사요시(都築久義)는 작품을 개전 당일 상황의 희화화로 읽어내며, 이러한 비엄숙화는 다자이가 유일했다고 주장, 전쟁에 대한 순응성을 지적받아온 작품의 재평가를 시도한다. 소마 쇼이치(相馬正一) 또한 유사한 입장에서 애국심 왕성한 부인의 시선

---

71) 谷崎潤一郎(1942), 「シンガポール陥落に際して」, 『文藝』 10(3).
72) 志賀直哉(1942), 「シンガポール陥落」, 『文藝』 10(3)
73) 오구마 에이지(2019), p. 60~61.
74) 紅野謙介(2013), 「太平洋戦争前後の時代-戦中から占領期への連続と非連続」, 『コレクション戦争と文学 別巻〈戦争と文学〉案内』, 東京: 集英社, p. 82.
75) 平浩一(2016), 「一九四一年一二月-一九四二年四月 「開戦」と文学 : 〈連続/切断〉の問題」, 『太宰治スタディーズ』 6, pp. 8-9. 에 따르면, 실생활의 극적인 변화와는 별론으로, 지식인, 문학가들의 서술에서 대미, 대영 개전을 하나의 획기적 사건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가 다수 등장하였다.
76) 일례로 志村有弘, 渡部芳紀 編(2005), 『太宰治大事典』, 東京: 勉誠出版에서는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 중 저항 항목을 설명하며 저항과 영합의 평가가 갈리는 작품의 예시로 「12월 8일」을 삼았다.

을 통해 남편의 무능함을 야유, 결과적으로 전시체제에서 삐져나온 작가 자신을 그리려고 함을 논한 바 있다. 다자이 오사무의 「12월 8일」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아니나 12월 8일을 둘러싼 문학 창작에 관한 히라노 겐의 선행연구는 특히나 주목할만하다. 그는 당대의 12월 8일이 일본의 현실을 크게 바꿔놓은 날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인간이란 일순간에 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12월 8일을 하나의 거대한 계기로 호명하였던, 대미, 대영 개전 직후 창작들에 내재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77]

이상을 의식하며 다자이의 단편 「12월 8일」을 읽어보도록 하자. 작품은 충량(忠良)한 제국신민인 한 주부가 일본 기원 2700년(서기 2040년)을 상상하며 남기는 1941년 12월 8일의 일반 '제국신민' 가정과 그 주변 풍경을 담은 일기이다. 그러나 그녀의 충량함과는 달리 작품의 서사는 어딘가 삐걱댄다.

작품은 1941년 12월 8일의 이야기를 미처 서술하기도 전에 잡담으로 시작한다. 기원 2700년이라는 말에 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억으로, 남편의 친구인 이마(伊馬)씨가 언젠가 찾아왔을 때 남편과 나눈 이야기이다. 이마씨는 일본어로 7이라는 숫자를 시치(しち)와 나나(なな)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기원 2700년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부르게 될지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묻는다. 질문받은 남편은 마찬가지 진중한 자세로 고민하다가, 아예 전혀 다른 식으로 읽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한다. 옆방에서 이야기를 듣던 부인은 남편이 "항상, 이처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일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손님과 얘기를 나눈다"[78]며 일화를 정리한다. 하지만 부인 역시 남편에 대해 그리 잘 아는 것 같지는 않다. 일례로 부인은 남편이 쓴 소설은 일부러 읽지 않기에 어떤 글을 쓰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

---

77) 奥出健(1995), 「『十二月八日』」, 『太宰治作品研究事典』(神谷忠孝·安藤宏 編), 東京: 勉誠社, pp. 125-126.
78) 다자이 오사무(2014), 최혜수 역, 「12월 8일」, 『다자이 오사무 전집 5』, 도서출판 b, p. 38.

12월 8일은 “대본영 육해군부 발표, 제국 육해군은 8일 새벽 서태평양에서 미영군과 전투상태 돌입”이라는, 집 밖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로부터 시작한다. 부인은 방송을 통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강한 빛에 쬐여 온몸이 투명해지는 느낌, 혹은 성령의 숨결을 받아 가슴속에 차가운 꽃잎 한 장을 품은 듯한 느낌”[79]을 받는다. 오늘 아침부터 다른 일본이 되었다는 감각 속 부인은 한층 더 적극적인 제국 신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다듬는다. 그러나 그녀가 맞이하는 온갖 상황은 그녀의 각오를 못 본 것만 같다. 함께 라디오 방송을 들은 남편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 “서태평양이라는 게, 어디쯤이지? 샌프란시스코야?”, “하지만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미국이 동쪽이고 일본이 서쪽이라는건 기분 나쁜 일이잖아. … 나는 태양이 일본에서만 뜨는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안 돼. … 어떻게든 손을 써서 일본을 동쪽으로 하고 미국을 서쪽으로 할 방법 없나?”[80]

> 「西太平洋って、どの辺だね？ サンフランシスコかね？」,「しかし、それは初耳だった。アメリカが東で、日本が西というのは気持の悪い事じゃないか。… 太陽は日本からだけ昇るものだとばかり僕は思っていたのだが、それじゃ駄目だ。… なんとかして、日本が東で、アメリカが西と言う方法は無いものか。」[81]

남편의 발언을 극단적인 애국심에서 나온 이상한 말로 치부하는 부인이지만, 전쟁을 향한 그녀의 각오, 그리고 제국의 지지자로서의 남편상에 변함은 없다. 남편을 뒤로하고 우물가로 나가는 그녀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난다. 새로이 지역반장[82]이 된 아주머니를 향해 부인은 개전을 염두에 둔, “앞으로

---

79) 「12월 8일」, p. 39.
80) 「12월 8일」, p. 40.
81) 太宰治(1989), 「十二月八日」, 『太宰治全集 5』. 東京: 筑摩書房, pp. 22-23.
82) 도나리구미(隣組)의 장(長), 도나리구미는 1940년의 내무성 훈령에 따라 마을조직(정내회, 町内会)의 아래에 설치된 최말단의 지역조직으로, 중일전쟁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개시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생활조직으로 작동했다. 39년 이후 실시된 목탄, 성냥, 미곡 등 생필품의 배급제 속에서 배급 업무, 군인유가족 지원, 방공, 소방 훈련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2014), 「隣組」, 2020.11.30. https://kotobank.jp/word/%E9%9A%A3%E7%B5%84-105507)

힘들어지겠네요."라는 인사를 건넨다. 이번에 돌아오는 반응은 남편과는 다른 의미로 당황스럽다. 아주머니의 답에는 아침의 라디오로 전해진 소식에 대한 소식보다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 새로운 전쟁은 황국신민이 일치단결하여 나아가야 할 계기가 아닌, 개인에게 닥쳐온 책무로서 체감되는 것이다. 또한, 아주머니가 미국, 영국과의 개전에 따라 추가로 져야 할 책임이란 실질적으로 라디오 방송 이전에 이미 구축된 구조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2월 8일을 계기로 새로운 일본을 느끼는 부인의 감상, 나아가 12월 8일을 하나의 분절점으로 제시하였던 문학장에서의 프로파간다 정책들의 위치는 무언가 어색해 보인다.

부인은 다시 가사(家事)로 상징되는 일상에 돌아온다. 그러나 생각은 여전히 전쟁에 머물러 있다. 그녀는 지금까지 치러온 중국과의 전쟁과 새로이 맞이한 전쟁을 전혀 다르게 느낀다. 이어서, 눈동자와 털의 색이 다른 미국의 병사들이 일본 땅에 발을 디딜 것을 상상하며 전쟁과 일본군을 향한 지지 의사를 다진다. 살림의 어떠한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각오하는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나 작품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소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점심 무렵, 분위기에 도취 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부인은 딸 소노코(園子)를 안고 마당에 나가서까지 옆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승전 소식을 귀동냥한다. 남편은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하고는 웃을 뿐,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고, 곧이어 잡지사에 원고를 전하러 외출한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열광적으로 논하고 싶다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전쟁의 영향은 차례로 느껴져 온다. 물자에 매겨지는 세금은 올랐고, 남편의 지인은 입영 소식을 전한다. 한편으로 배급을 둘러싼 경쟁은 고조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한편 현실을 희화화한다.

>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오셨다. 12월분 청주 배급권이 왔는데, 아홉 세대에 할당된 한 되짜리 배급권이 여섯 장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다. 순번으로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홉 세대 모두 필요하다고 해

서 결국 여섯 되를 아홉 등분하기로 했다. 바로 병을 모아 이세모토로 술을 사러 갔는데 … 한 되짜리 병 아홉 병을 주욱 늘어놓고 꼼꼼히 분량을 비교하여, 같은 높이로 나눴다. 여섯 되를 아홉 등분 하는 것을 꽤 어려운 일이다.[83]

夕飯の仕度にとりかかっていたら、お隣りの奥さんがおいでになって、十二月の清酒の配給券が来ましたけど、隣組九軒で一升券六枚しか無い、どうしましょうという御相談であった。順番ではどうかしらとも思ったが、九軒みんな欲しいという事で、とうとう六升を九分する事にきめて、早速、瓶を集めて伊勢元に買いに行く。…　九本の一升瓶をずらりと一列に並べて、よくよく分量を見較べ、同じ高さずつ分け合うのである。六升を九等分するのは、なかなか、むずかしい。[84]

배급제가 시행된 현실의 묘사이며, 동시대를 살아갔을 독자에게도 공감과 웃음을 불러일으켰을 자연스러운 장면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시에 한마음이 된,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어느 한 곳 양보하는 집안 없이 아홉 세대 모두 똑같이 청주가 필요한데다가, 나누려는 마음을 내보이기보다는 질세라 분량을 비교하며 배급을 가져가는 상황은 일치단결하여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부인은 이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배분에 참여하고 있다. 공감과 웃음이라는 표면 아래에는 전쟁 격화에 따른 궁핍과 불협화음이 서술되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어색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부인은, 배분이 끝난 후에 석간에 실린 선전포고와 승전의 기사를 보며 후방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제국의 일원으로 자신을 재차 주체화시킨다.

저녁이 왔다. 부인은 딸인 소노코를 업고 목욕탕에 간다. 딸을 목욕시키는 부인은 작품의 행적 속에서 유일하게 전쟁과 무관하게 대상에 집중할 수 있다. 딸의 아름다움과 귀여움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날 정도다.”[85] 하지

83)「12월 8일」, p. 46.
84)「十二月八日」, p.29.
85)「12월 8일」, p. 47.

만 집중은 목욕을 끝마침과 동시에 깨어진다. 집으로 오는 길은 등화관제로 인해 어둡다. 훈련이 아닌, 실제상황에서의 등화관제이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학생 시절에 겪었던 길 헤맴의 공포를 재차 느낀다. 느껴지는 것은 등 뒤의 딸, 소노코뿐이다.

그러던 중 등 뒤에서 틀린 음정으로 군가를 부르며 남편이 나타난다. 남편은 부인과 소코노에게는 신앙이 없기에 밤길을 힘들어하는 것이라며 앞장서 걸어 나간다. 부인은 그의 말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어쩔 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남편을 묘사하고, 작품은 끝난다.

전시의 모범적인 국민을 주인공으로 삼는 작품이지만, 이상의 독해를 통해 뒤뚱거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남편과 그 친구의 잡담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곧 궤도에 올라 12월 8일의 소식으로 이어져 전시(戰時)의 신민을 경건하게 만든다. 그러나 경건함은 남편의 방위(方位)에 관한 언사로 머지않아 깨어진다. 깨어진 언사는 동료인 전시 신민을 만나며 강화될 계기를 얻으나, 새로이 개전을 맞이한 일심동체의 황국신민으로서 공감을 이루지는 못한다. 다시 집안일을 하며 부인은 새로운 전쟁상대국을 향한 적개심과 전쟁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남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키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남편의 가벼운 응답에 재차 이루어지지 못한다. 변화한 물가, 주변인의 입영 소식은 전쟁을 체감하게 하지만 배급된 여섯 되의 술을, 아홉 가정이 각자의 병에 꼼꼼히 분량을 비교하며 나누는 장면은 독자의 몰입을 깨어버린다. 이후로 모범적인 신민에 다가가려는 부인의 시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소노코를 데리고 목욕탕에 간 부인은 소노코를 씻기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듯하나, 개전으로 인한 등화관제에 의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전쟁에의 자기 위탁을 포기하는 순간, 전쟁이 가져온 어둠은 그녀를 덮쳐오는 것이다. 부인의 등 뒤에서 소노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있을 뿐이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딘가 모자란 남편의 등장이라는 점 또한 이야기를 뒤흔든다.

뒤뚱거림에 주목한다면, 적어도 부인의 묘사를 통한 전쟁 주체의 형성과

찬양이라는 작품의 독해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뒤뚱거림에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이분법적 틀을 사용한다면, 가장 간편한 길은 전쟁에 순응하는 겉모습을 띄운 채 내부적으로 제국, 혹은 전쟁에 저항했다는 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결말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것 또한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말에서는 길잃은 부인과 소노코의 앞에 남편이 예고 없이 나타난다. 이를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천황 기념 2700년을 고민하고, "우리 천황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군가의 가사를 부르며 등장하는 구원자란 전쟁과 제국에의 순응으로도, 저항으로도 규정하기 힘든 기묘한 존재이다. 따라서 뒤뚱거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협력과 저항의 이분법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명확해진다.

돌파구로서 부인과 남편이 각기 보여주는 교류 양상을 대조하고자 한다. 국책의 영향이 존재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중 화자이자 서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부인의 교류 장면을 자세히 뜯어 보았을 때 구석구석에서 실패가 암시된다. 가장 먼저, 부인은 남편이 소설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을 읽지도 않으며 나아가 어떤 글을 쓸지 상상하지도 못한다. 이어서 그녀는 남편에게 전쟁에 관하여 몇 차례 말을 걸고 대답을 듣지만, 그것이 대화로 성립되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가장 먼저, 그녀는 남편의 답변을 시국과 연관 지으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그가 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아래의 장면을 자세히 뜯어보았을 때 그녀의 짐작이 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대본영 육해군부 발표. 제국 육해군은 8일 새벽 서태평양에서 미영군과 전투상태 돌입."
>
> …그걸 가만히 들으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갔다. 강한 빛에 쬐여 온몸이 투명해지는 느낌. … 일본도 오늘 아침부터, 다른 일본이 된 것이다.
>
> 옆방의 남편에게 알리려고 여보, 하고 남편을 불렀더니 바로,

“알아. 알아.”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말투가 거친 걸 보니, 남편도 긴장되는 모양이다. 항상 늦잠을 자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 있는 것도 이상하다. 예술가는 직감력이 뛰어난 법이라니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라고 할 법한 게 있었는지도 모른다. 조금 감탄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너무 깨는 말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다.

“서태평양이라는 게, 어디쯤이지? 샌프란시스코야?”

…

하는 말이 다 이상하다. 남편의 애국심은 너무 극단적이다. 얼마 전에도 양놈이 아무리 설쳐댄다 한들 이 가다랑어 젓갈은 못 먹는데, 나는 어떤 서양식 요리든 다 먹을 수 있다는 이상한 자랑을 했었다.[86]

「大本営陸海軍部発表。帝国陸海軍は今八日未明西太平洋において米英軍と戦闘状態に入れり。」

…それを、じっと聞いているうちに、私の人間は変ってしまった。強い光線を受けて、からだが透明になるような感じ。…　日本も、けさから、ちがう日本になったのだ。

隣室の主人にお知らせしようと思い、あなた、と言いかけると直ぐに、

「知ってるよ。知ってるよ。」

と答えた。語気がけわしく、さすがに緊張の御様子である。いつもの朝寝坊が、けさに限って、こんなに早くからお目覚めになっているとは、不思議である。芸術家というものは、勘の強いものだそうだから、何か**虫の知らせ**とでもいうものがあったのかも知れない。すこし感心する。けれども、それからたいへんまずい事をおっしゃったので、マイナスになった。

「西太平洋って、どの辺だね？　サンフランシスコかね？」

…

おっしゃる事みな変である。主人の愛国心は、どうも極端すぎる。先日も、毛唐がどんなに威張っても、この鰹の塩辛ばかりは嘗める事が出来まい、けれども僕なら、どんな洋食だって食べてみせる、と妙な自慢をして居られた。[87]

---

86)「12월 8일」, pp. 39-40. 강조는 인용자.
87)「十二月八日」, pp.21-23. 강조는 인용자.

부인은 남편을 제국의 열성적인 신민으로 가정하며 그의 반응을 해석한다. 부인은 평소 같지 않은 남편의 빠른 기상을 예술가적 직감에 따른 전쟁의 예감으로 받아들이나, 이어지는 부분과 연계하였을 때 남편의 빠른 기상이 전쟁을 향한 열의에 기인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대미, 대영 개전의 소식이 라디오로 들려왔을 때 남편의 첫마디는 전쟁 그 자체와는 동떨어진, 뉴스 속의 지명에 얽혀 있다. 뉴스의 본질인 개전에 대해 남편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총동원 속 후방의 신민이란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여 마땅히 승리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여야 할 터인데 말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어구를 분석하였을 때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다자이가 부인이 남편의 직감을 서술할 때 사용한 표현은 벌레의 알림(虫の知らせ)이라는 관용어로, 무언가의 전조, 혹은 예지라는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표현에 부정어가 일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동물적 직감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쓰인다는 사실이다. 번역본의 “불길한 예감”이라는 표현이 후자의 해석을 강하게 담고 있다. 예지, 예감, 전조 등 직감을 드러낼 많은 대체어 사이에서 이중성을 지닌 해당 관용어를 채택하였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승리의 소식에 열광해야 할 사람이 “불길한 예감”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표면적인 부정어가 “벌레의 알림”이라는 관용어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부인 혹은 다자이의 단순한 단어 선택 실수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새로운 전쟁을 찬미하지 않는다는, 혹은 한발 더 나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더욱 넓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음 인용부를 읽어보자.

> …소노코를 안고 밖으로 나가 단풍나무 아래에 서서 옆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말레이 반도에 기습 상륙, 홍콩 공격, 선전의 조칙, 소노코를 안고 있는데 눈물이 나와서 혼났다. 집에 들어가서 일에 한창 몰두해 있는 남편에게 방금 듣고 온 뉴스를 모두 전한다. 남편은 전부 듣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하고는 웃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더니, 다시 앉았다.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는 모양이다.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때 남편은 일 하나를 끝냈는지, 그 원고를 가지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잡지사에 원고를 전해주러 가는데 그렇게 갔으니, 오늘도 귀가가 늦어질지도 모른다. 어쩐지 그렇게 허둥지둥 도망가듯 나갔을 때는 대체로 귀가가 늦어지는 것 같다. 나는 아무리 늦어도 외박만 안 하면 괜찮지만 말이다.[88]

…園子を抱いて外に出て、お隣りの紅葉の木の下に立って、お隣りのラジオに耳をすました。マレー半島に奇襲上陸、香港攻撃、宣戦の大詔、園子を抱きながら、涙が出て困った。家へ入って、お仕事最中の主人に、いま聞いて来たニュウスをみんなお伝えする。主人は全部、聞きとってから、

「そうか。」

と言って笑った。それから、立ち上って、また坐った。落ちつかない御様子である。

お昼少しすぎた頃、主人は、どうやら一つお仕事をまとめたようで、その原稿をお持ちになって、そそくさと外出してしまった。雑誌社に原稿を届けに行ったのだが、あの御様子では、またお帰りがおそくなるかも知れない。どうも、あんなに、そそくさと逃げるように外出した時には、たいてい御帰宅がおそいようだ。どんなにおそくても、外泊さえなさらなかったら、私は平気なんだけど。[89]

낮에 부인이 귀동냥해 온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남편은 “그렇구나.”라고 답하며 웃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을 보일 뿐이다. 곧이어 남편이 원고를 가지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것, 그리고 허둥지둥 도망가는 모습에서 늦어지는 귀가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남편의 짧은 답과 안절부절못하는 자세가 과연 전쟁으로 인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오히려 완성된 원고를

88)「12월 8일」, p. 43.
89)「十二月八日」, pp.25-26.

넘긴 후 한 잔 하고 싶지만, 그러한 속내가 술을 싫어하는 아내에게 들켜 붙잡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부인이 전쟁에 정신 팔려있으니 기쁜 것은 아닐까. 결국 부인은 남편을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제국일본이라는 공동체에 자신을 의탁하는 그녀이지만 정작 주변인을 바라보지는 않으며, 오히려 주변을 향할 때는 항상 자신이 받아들인 공동체적 이상(理想)을 경유하여서만 접근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제국의 일원이 되고자 발돋움하지만, 총동원에 모든 것을 의탁해버린 그녀는 정작 타자와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그녀의 모습에서 레비나스적인 무한성의 단서, 혹은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성되는 주체의 근거[90]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인이 유달리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중 부인이 처한 상황이나 묘사를 보아도 그러하지만, 단편이 실린 『부인공론』지의 특성, 그리고 시국적 요청을 고려했을 때도 작품은 일반가정의 부인이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감해야 하는 부인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결점은 시대의 일반 상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주체의 가능성은 엉뚱하게, 아둔하게 그려지는 남편에게 있다. 친구의 어찌 되어도 좋은 이야기를 진지한 태도로 들어주는, 부인의 오해를 구태여 정정하지 않는, 부인의 오해를 통하여 무난하게 상황을 넘겨 나가는 모든 행동은 타자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지언정, 그 외재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이야기를 주체성에 관한 비유로 읽어내고자 한다면, 마지막으로 해명

---

90) 레비나스는 주체의 출현을, '자기 보존 경향'(conatus essendi)의 중단에 따라 시작될 수 있음을 말한다. 주체는 자신 바깥의 '그저 있음'(il y a)의 존재들을 향한 의존에서 출발하여 독립을 가능케 만드는 향유에 기원을 두나, 이를 통해 형성된 동일자가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향유 할 수는 없는 타자와 직면하며 균열을 수립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자와 맺는 관계란 어떠한 융합도 없이 타자성으로 고려되지만, 얼굴이라는 양상으로 동일자인 '나'에게 인식된다. 에마뉘엘 레비나스(2020), 김도형·문성원 역, 「타자의 근접성」, 『타자성과 초월』, 그린비, pp. 118-132는 해당 구조를 간략히 설명한다. 「12월 8일」의 전반에 걸쳐서, 부인은 주어지는 제국 신민의 정체성을 향유하며 동일자의 가능성을 세우지만, 타자성의 인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해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 바로 작품이 말미 남편의 등장이다. 남편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부인의 뒤편에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우리 천황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가사의 군가를 부르며 나타난 후, 이어서 “당신이랑 소노코에게는 신앙이 없으니까 고작 이런 밤길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야. 내겐 신앙이 있으니까 밤길도 대낮 같아. 따라와.”[91] 라고 말한다. 만약 해당 장면에서 남편을 구원자로 읽을 수 있다면, 천황을 섬기는 군가와 “신앙이 있으니까”라는 표현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먼저, 앞서 확인한 부인과의 어긋남을 고려했을 때 남편의 구원자로서의 등장을 천황제에의 신앙을 가진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신에게 귀의한 사람이, 신에 대한 충성을 틀린 음정으로 고백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전시하의 국민 협력(war effort)에 게을렀던 남편의 모습을 의식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남편이 부르는 군가는 천황에의 귀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가져와 인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천황, 군 등을 향한 무관심함과 암묵적인 동조를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불경함을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결말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작품을 꿰뚫는 일련의 흐름은 천황과 군가를 전유 혹은 재전유(re-appropriation) 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작중에서 일관되게 일상의 레이어(layer)를 유지해 온 남편이야말로 「12월 8일」에서 독특하게 읽어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상의 자기 인식, 자기중심성의 인식이 곧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알프 뤼트케는 밀고 행위를 통해 근대국가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검토하는데, 미셸 푸코의 ‘자기가치인식’(Selbstaffirmation) 논의를 인용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오로지 저항이나 저항의식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자기가치인식’은 지배-그리고 착취-에 대한 동의와 참여로 드러날 수 있”[92]음을 지적한다.

91) 「12월 8일」, p. 48.

나아가 “전체의지(Volonté de Tous)를 표현하려는 계기로서의 지배는 일반의지(Volonté de Générale)를 실현하려는 지배와 동일하지 않”다는 루소의 논의를 빌리며 “근대에 나타난 ‘밀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체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의지’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발하는 행위는 각자 이러한 ‘일반의지’의 지배에, 다시 말해 ‘일반행복’의 실현에 참여하는 표현이자 수단”[93]이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알프 뤼트케는 ‘근대’에서의 지배란 ‘피지배자’의 수동적인 복종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제시하는 것이다.[94] 남편은 작중에서 가장 열렬하게 자신을 유지해나가지만, 동시에 전유를 통하여 가장 열렬하게 지배에 협력해나갈 가능성 또한 지니게 된다. 이런 면에서 “남편의 애국심은 너무 극단적”[95]이라는 부인의 대사를 작중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본질을 바라본 대사라고 읽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뤼트케의 연장선에 설 때 「12월 8일」을 저항과 영합의 이분법에 위치시키려는 시도는 힘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12월 8일」에서 발견되는 개인의 가능성은 심화하는 전쟁에 따라 어찌 변해갈 것인가. 다자이 오사무에게는 전시의 일상을 그리어 낸 또 다른 작품, 「동경 소식」(東京だより)이 있다. 일본문학보국회(日本文學報國會)에 의해 간행된 순간지(旬刊紙) 『문학보국』(文學報國)[96]의 33호(1944년 8월 10일)에 발표된 장편(掌篇)이다.

---

92) 알프 뤼트케(2020), 송충기 역, 『알프 뤼트케의 일상사 연구와 ‘아집’』, 이유재 편, 역사비평사, p. 127.
93) 알프 뤼트케(2020), p. 129.
94) 알프 뤼트케(2020), p. 138.
95) 「12월 8일」, p. 40.
96) 1940년 10월 31일, 문학 각 분야를 통합일원화하여 문학계의 신체제를 확립한다는 의도하에, 문예가협회(文芸家協会)의 회장이었던 기쿠치 간(菊池寛)의 발의로 9개의 문예단체가 가맹하며 일본문예중앙회(日本文芸中央会)가 결성되었다. 1941년 1월 3월 10일에는 기존의 『일본학예신문』(日本学芸新聞) 10호를 일본문예중앙회의 기관지 1호로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문예중앙회를 문학자전체의 연락, 협의 기관으로 삼아 조직을 국책에 순응하는 익찬단체로 재정비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삼아 대정익찬회 문화부는 거국적 일치협력태세의 촉진을 표방하며 문단 측과 협의, 1941년 12월 24일 문학자애국대회를 개최하였다. 1942년 5월 29일에는 문예가협회가 해산을 결정하였고 내각 정보국과 익찬회의 지도하에 모든 임무를 5월 26일에 새로 설립된 일본문학보국회(日本文學

다자이 오사무의 글과 말은 『문학보국』지가 발행되었던 1943년 8월부터 1945년 4월 사이 두 차례 지면에 올랐다. 한 차례는 44년 8월 「동경 소식」의 게재였으며, 나머지 한 차례는 1944년 12월 19일에 열린 「대동아 공동선언 5원칙」의 이념 공청회(大東亜共同宣五原則の理念を聴く会)에 참가하여 발언한 기록(1945년 1월 10일, 44호)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해당 선언의 취지설명[97]에 대한 단 31글자로 구성된 한 문장[98]의 질문이기에 주변 텍스트, 혹은 『문학보국』에 실린 그의 작품과 연관하여 읽을 수밖에 없다. 국책문학의 자리를 빌린 「동경 소식」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대체로 "아름다운" 소녀를 해석의 중심으로 삼아, 작품이 태생적으로 껴안고 있는 국책에의 영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는 1982년의 연구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절실함에 다자이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찾아낸 것이다."라고 평한 바 있으며, 후노 에이이치(布野栄一)는 『문학보국』 속 저항을 지적하는 연구에서 "1억1심의 애국정신을 향한 비판"으로 독해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관점의 빈약한 근거가 지적되며, 소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면밀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9] 권석영은 시대의 획일화에 대조적으로 "개인 사정"을 지닌 소녀의 모

報國會)에 넘기게 되었다. 1942년 7월 15일에는 기존의 『일본학예신문』은 그 체제를 모두 일본문학보국회에 넘겼고, 8월 1일 발행한 신문부터는 일본문학보국회의 기관지가 되었다. 1943년 7월 1일호로 종간하며 여타 문학관련 신문과 통합되었고 8월 20일부터 『문학보국』(文學報國)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지를 새로이 발간하였다. 山内祥史(1995), 「解題」, 『復刻板,文学報国 : 第1号~第48号』, 山内祥史 編, 東京: 不二出版, p. 3.

97) 법학자인 오노 세이이치로(小野清一郎), 오쿠시 도요오(大串兎代夫) 두 사람이 언론보국회에서 초빙되어 「대동아 공동선언 5원칙」(이하 대동아선언)의 이념을 설명하였다. 두 사람은 1941년에 미국과 영국이 발표하고 소련을 포함한 33개 국가가 승인한 대서양헌장에 대응하는 세계질서에 관한 선언으로 대동아선언을 위치시켰다.

98) 東亜の諸国がどんな政体で独立してもこれに何も言わないのだろうか。(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정치체제로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보는가?) 日本文学報国会(1995), 「文学報国 第33号, 1944/01/10」 『復刻板,文学報国 : 第1号~第48号』, 山内祥史 編, 東京: 不二出版, p. 109.

99) 権錫永(1995), 「『東京だより』」, 『太宰治作品研究事典』(神谷忠孝·安藤宏 編), 東京: 勉誠社, p. 202.

습을 강조하며, “사회상을 부각시키고, 비꼼을 더하여 비평”[100]한 것이라고 접근한다. 한편 이지현은 비교적 최근 연구[101]에서 다자이의 단편들에 그려진 소외자에 주목하는데, 「동경 소식」을 인용하며, 징병도, 근로동원도 가지 않는 소외된 화자가 “산업전사”들과 일하되 “산업전사”적인 무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소녀의 아픔을 보며 공감하는, 기존의 영합-저항의 관점에서 벗어나 방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실로서의 독해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품은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 지금 도쿄는 일하는 소녀들로 가득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공장을 다니는 소녀들은 이 열 종대로 줄지어 산업전사의 노래를 합창하면서 도쿄 거리를 행진합니다. 남자아이들과 거의 같은 복장입니다. 하지만 붉은 나막신 끈, 여자아이의 냄새가 남아 있는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어느 아이든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대략의 나이조차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나라에 바치고 나면,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그 나이에 어울리는 차림새마저 말끔히 잃어버리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도쿄 거리를 행진할 때뿐만 아니라 그 여자아이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혹은 다른 사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마다의 특징은 한결 더 찾아볼 수 없고, 이른바 ‘개인 사정’이고 뭐고 모두 잊어버린 채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102]

> 東京は、いま、働く少女で一ぱいです。朝夕、工場の行き帰り、少女たちは二列縦隊に並んで産業戦士の歌を合唱しながら東京の街を行進します。ほとんどもう、男の子と同じ服装をしています。でも、下駄の鼻緒が赤くて、その一点にだけ、女の子の匂いを残しています。どの子もみんな、同じ様な顔をしています。年の頃さえ、はっきり見当がつきません。全部をおかみに捧げ切ると、人間は、顔の特徴

100) 権錫永(2002), 「アジア太平洋戦争期における意味をめぐる闘争 (3) : 太宰治「散華」・「東京だより」」,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紀要』 106,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 p. 76.
101) 李智賢(2015), 「戦時下の太宰小説に描かれる疎外者と共感意識 –『東京だより』・『作家の手帖』における〈産業戦士〉を軸に–」, 『日本研究』 (63),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研究센터 日本研究所, pp. 291-309.
102) 다자이 오사무(2013), 최혜수 역, 「동경 소식」, 『다자이 오사무 전집 6』, 도서출판 b, p. 77.

も年恰好も綺麗に失ってしまうものかも知れません。東京の街を行進している時だけでなく、この女の子たちの作業中あるいは執務中の姿を見ると、なお一層、ひとりひとりの特徴を失い、所謂「個人事情」も何も忘れて、お国のために精出しているのが、よくわかるような気がします。[103]

화자는 도쿄가 가득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서술되는 것은 비어있는 모습이다. 일하는 소녀(少女)들로 가득한 도쿄라지만, 여자아이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여자아이들에게 한정된 일이 아니며, 사람들은 모두 "개인 사정"을 뒤로한 채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1937년 8월 24일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이 각의 결정을 통해 발표한 국민정신총동원(国民精神総動員)의 정신이 구현된 멸사봉공의 "이상향"이며 1943년 6월 25일 각의결정에 따른 학도전시동원체제(学徒戦時動員体)확립의 결과였다.

화자 또한 비어있는 도쿄의 일부이다. 물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전쟁 속 삶의 양상 또한 그러하다. 그는 동원체제의 부름을 받지 않은 듯하나 자신의 방식으로 총동원체제에 참여한다. 그러나 참여에는 어딘가 껄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는 자신의 소설집에 대한 평판이 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거절해왔던, 화가 친구의 표지 작업 제안을 받아들이며 "내가 쓴 변변찮은 소설집 표지화를 그린다는 것 하나만으로 징용공으로 일하는 그가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104]이라고 자신을 납득시키지만, 친구의 구상을 향해 내뱉어지는 한 무더기 불평은 "고마운 일"이라는 표현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그림이 좋고 나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번 소설집은 그의 그림 때문에 망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다 어찌되든 상관없는 것입니다."[105]라며 말을 애써 정리하지만, 돋쳐있는 가시로 인해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어느 날 화자는 그림의 상담을 위해 친구가 징용공으로 일하는 공장을 찾

103) 太宰治(1989),「東京だより」,『太宰治全集 6』. 東京: 筑摩書房, p. 265.
104)「동경 소식」, p. 78.
105)「동경 소식」, p. 78.

아간다. 공장에는 근로동원으로 일하는 소녀들이 여럿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사람도 화자를 신경 쓰지 않은 채 "거만한 느낌이 조금도 없었고, 저마다 다른 마음의 표정도 읽히지 않고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사무를 보고 있을 뿐 … 어느 아이의 얼굴에도 이렇다 할 인상이 없고, 날개 빛깔이 똑같은 나비들이 꽃가지 위에 조용히 줄지어 앉아 있는 듯한 느낌"[106]을 주고 있을 뿐이다. 다른데 한눈팔지 않는 근면함의 결과일 터이지만 노동의 역동성은 느껴지지 않고, 나비에 비유하였으되 차라리 무채색에 가까운 장면묘사이다.

그러던 화자는 한 무리의 소녀들 사이 눈에 띄게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한다.

> 그 어떤 점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를테면 검은 호랑나비들 사이에 녹색 나비가 섞여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름다움이 돋보였습니다. … 제겐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 저는 조상의 피가 특별하다는 그럴싸한 단정을 내리고는 번잡한 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옛날부터 몇 대나 이어지는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 때문에 아무런 특징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향기가 나는 것이다. 인간에게 조상의 피는 실로 중대한 것이다.'하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홀로 흥분하고 있었는데,[107]

> どこも、何も、変っていません。それでいて、その人は、たとえば黒いあげは蝶の中に緑の蝶がまじっているみたいに、あざやかに他の人と違って美しいのです。… 私は、不思議でなりませんでした。… これは、先祖の血だ、と私はもっともらしく断定を下して、落ちつく事にしました。その父か母に昔から幾代か続いた高貴の血があって、それゆえ、この人の何の特徴もない姿からでもこんな不思議な匂いが発するのだ。実に父祖の血は人間にとって重大なものだ、などと溜息ためいきをついて、ひとりで興奮していたのですが、[108]

106)「동경 소식」, p. 79.
107)「동경 소식」, pp. 79-80.
108)「東京だより」, pp. 267-268.

무채색의 나비들 가운데 하나의 아름다운 나비를 발견한 듯한 감탄이 나오지만, 온전한 찬양, 혹은 숭배로 바라보기에는 이어지는 서술이 부자연스럽다. 걸작을 목도했을 때,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맞이했을 때, 기적을 목격했을 때 일어오는 감정의 동요는 더 오래 감상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감탄과 경외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아름다움의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본디 신비의 출처를 찾는 일은 감상보다는 차라리 깨어버리고자 하는 시도에 가깝다. 물론 마술에 감탄하면서도 손 뒤편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듯, 이상의 해체 시도가 유달리 특이한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품은 원인에 관한 의문은 흔히 발견되는 해체 시도와도 결이 다르다. 소녀의 아름다움을 일방적으로나마 규명한 이후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독해의 초점은 자연스레 소녀를 향한 화자의 상상으로 이어진다.

겉보기론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은 소녀가 아름답게 보이는 원인을 화자는 고귀한 혈통으로 짐작한다. 근거가 없음에도 그가 자신의 짐작에 납득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향한 익숙함이다. 제국일본의 중심을 이루었던 근대 천황제는 만세일계의 혈통에 의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곤 하였다. 그러나 정작 혈통을 담당하는 천황가의 '자연적 신체'(body natural)는 '정치적 신체'(body political)와 구분되어 전자는 숨겨졌고[109], "특히 천황제라는 '제도적 신체'(institutional body)를 기준으로 볼 때 황족의 자연적 신체는 그 제도적 신체를 매끈하게 유지해 나가는 비가시적인 하나의 역할에 불과"[110]하였다. 소녀의 사례에 이를 적용해 보았을 때, 그녀를 향한 "고귀한 혈통"의 가정은 화자에게 익숙한 것이었으며, 별도의 외부적 검증 없이 재귀적 구조로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된다.

---

109) Takie Sugiyama Lebra(1993), *Above the Clouds: Status Culture of the Modern Japanese Nobility*,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권숙인(2013),「전후 천황제와 젠더」,『일본비평』(9), pp. 25-26.에서 재인용).

110) 권숙인(2013), p. 26.

물론 이러한 익숙함, 혹은 일종의 자기 세뇌만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익숙함 위에는 화자가 그것을 믿을만한 다른 이유가 필요하다. 화자의 처지는 적절한 까닭이 될듯하다. 징집을 당하지도, 근로동원에도 나서지도 않은(혹은 못한) 화자의 상황이 소녀에의 응시에 기여하였다는 선행연구의 관점은 여기에 자리를 얻을 수 있다. 화자는 자신과 달리 동원체제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묘사의 세부를 뜯어보았을 때 어딘가 부정적인 구석을 항상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태도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아름답게 보이는 소녀이다. 인물들과 소녀가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화자의 모방 가능성이다[111]. 근로동원의 현장에서 만난 소녀의 아름다움이 후천적이며 모방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화자는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동원의 현장에 다가서지 못하는 그의 처지에서는 아름다움의 까닭에 가까워질 수 없고, 아름다움을 가질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반면 아름다움의 원인을 본문에서처럼 극복 불가능한 선천적 차원으로 넘겨버린다면, 동원체제에 참가할 수 없는 신민조차도 떳떳한 영역에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짐작은 세 번째로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깨어진다. 볼일을 마치고 공장에서 돌아올 무렵, 작업을 마친 소녀들이 2열 종대로 공장을 나서며 부르는 「산업전사의 노래」에 고개를 향한 화자는 행렬에 뒤처져 목발을 짚고 걸어오는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한다. 화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가 안 좋은 모양인 그 소녀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름다운 소녀는 목발을 짚고서 묵묵히 앞을 지나가고 작품은 마무리된다.

결말의 반전으로 화자의 도피는 길을 잃는다. 소녀에게는 화자와 마찬가지

111) 당대 일본의 징병검사 규정은 “신장 1.55미터 이상으로 신체강건한 자”를 갑종, 을종으로, “신장 1.55미터 이상으로 신체 을종에 어울리지 않는 자 및 신장 1.5미터 이상 및 1.55미터 미만인 자”를 현역병이 아닌 국민병에 해당하는 병종(丙種)으로, 신장 1.5미터 미만 및 질병 등이 있는 자를 정종(丁種)으로 규정하는 등 임의성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징병 되지 않은 화자가 여타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노동할 능력이 있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할 능력이 있었다는 가정은 소녀의 아름다움을 선천적 차원으로 돌릴 강력한 유인이 되기도 한다.

로 “개인 사정”이 있지만, 그것이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었음을 화자가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여태까지 화자를 떳떳하게 만들어주었던 ‘선천적’이라는 조건은 정반대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이제 화자가 본 소녀의 아름다움은 선천적 조건이 우월하기에 따라잡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아닌, 선천적 조건이 불리함에도(혹은 불리하기에) 자라난 아름다움이다. 따라서 화자가 동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 모종의 장벽은 그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 가능성이 된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공통성이면서 가능성의 자리에 오르게 된 “개인 사정”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마땅히 주목할 지점은, 작중의 서술로는 밝혀낼 길이 없는 그녀의 “개인 사정” 자체가 아닌, “개인 사정”이 주변과 이루는 관계이다. “개인 사정”을 보다 눈에 띄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작품의 배경을 뒤집어보자. 만약 소녀가 근로동원을 오지 않았다면, 즉 작품이 총동원체제의 후방을 배경으로 삼지 않았다면 “개인 사정”이 그녀를 돋보이게 할 기회는 발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평시라면 고용조차 거부당하였을, 장애를 지닌 소녀는, 공장에서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게 된다. 특히 그녀의 장애가 얼마나 의외인지는 후반부의 문장인 “그러고 저는 악연(愕然) 했습니다. … 아름다울 터인, 그 소녀는 날 때부터 다리가 안 좋은 듯했습니다.”(そうして私は、愕然としました。 … 美しい筈だ、その少女は生れた時から足が悪い様子でした。)[112]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존재조차 인식되지 못했던 그녀의 노동은 비록 남들과 같은 겉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노동과 같을 수 없다. 총동원체제가 배경이 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차단당한 채 소외되었던 존재가 쓰임을 직접 인정받았을 때 그것을 해방의 계기로 이용한 사례들[113]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요구에 압도되어 실력 없는 화가인

112)「東京だより」, p. 268.

113)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저서에서, 농가의 말보다 못한 가격으로 집안일을 하던 가난한 시골 농촌의 부인들이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었던 사례를 인용한 바 있다. 吉見義明(1987),『草の根のファシズム』,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pp. 83-85. 알프 뤼트케 또한 평범한 노동자 대중의 나치즘 협력에는 “최소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경받고자”했던 염원이 간간이 채워질 수 있었”던 사실

친구에게 표지 작업을 맡기고, 어쩐지 씁쓸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정리하자면 동원조차도 자신만의 노동으로 만드는 그녀의 모습은 “개인 사정”의 전복적 활용이며, 아무런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시국에 순응하고 매몰되는 화자는 “개인 사정”에 따른 굴복이다. 이때 작품의 핵심은 영합, 저항의 이분법이 아닌, 무력감과 대비되는 주체성 찾기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제국의 총동원체제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12월 8일」의 천황과 군가가 그러하였듯, 다자이는 제국에서 전유의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시국 협력의 혐의를 지워내는 것은 아니다. 방해로 작용하는 “개인 사정”조차도 아름다움으로 품어내는 제국에의 긍정적 묘사로 작품을 읽어내는 것 역시 가능하며, 나아가 작품은 제국을 전유하는 행위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해당 작품이 문학보국을 목표로 삼는 신문에, 문학자들의 시선을 거쳐서 게재되었다는 사실은 특히나 혐의를 벗겨내기 힘든 증거이다.

그러나 시국에 따른 요청이 다자이의 주장과 온전히 같은 맥락에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소설 표지에 대한 타협으로 드러나는 나의 제국을 향한 협력과 다른 소녀들의 몰개성적인 협력이 긍정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자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제국에 자체에 충성해야 할 제국 신민의 당위보다는, 전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가깝다.

다자이가 제국의 선험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앞선 독해뿐 아니라, 『문학보국』에 실린 「대동아 공동선언 5원칙」의 이념 공청회에서의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오쿠시 大串) “대서양헌장 따위는 국제세계의 사고방식에 입각해있다. 대단히 정신적 요소가 희박하다. 대동아선언은 장래에 걸쳐서도 불변성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깊은 것이다.”

이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알프 뤼트케(2020), p. 219.

大西洋憲章なんかは國際世界の考へ方に立脚してゐる。極めて精神的要素が希薄である。大東亜宣言は将来に亙つても不變性をもつてゐる。歴史的な意味の强い深いものである。

(오노 小野) "공존공영 혹은 자주독립등의 말은 영어로 옮겼을 때 저쪽(대서양 헌장)의 것과 표면적으로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초(起草)자가 의식하지 않은 부분에도 일본적·동양적 원리가 존재한다. (동아)연맹사상(聯盟思想)과도 유사하게 .… 친족적인 것이다. 따라서 자체로 질서가 있으며 가입, 불가입의 문제가 아니다. … 대동아는 인종적으로 하나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가 가깝다. 동양문화는 우리를 엮고 있다. 문화적, 역사적 연관이 있는 것이다."

共存共栄とか自主独立といふ言葉は英譯すれば向ふのものと同じで表面的には似てる點がないでもないが、起草者が意識しなかつたところにもちやんと日本的、東洋的原理が存してゐる聯盟思想のような…親族的なものである。従つて自ら秩序あり、加入、不加入の問題はない。…大東亜は人種的に一つとは言へぬが血の近い。東洋のぬ文化は我々を結びつけてゐる。

(다자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어떠한 정치체제로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인가?"

東亜の諸国がどんな政体で独立してもこれに何も言わないのだろうか。[114]

오쿠시와 오노의 설명은 소위 동양으로 불리는 지역의 연결을 선천적이며, 동시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다자이는 이의를 제기한다. "동아연맹"의 효용성을 설파하는 장소에서도 그는 제국과 신민, 아시아가 마땅히 그리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114) 日本文学報国会(1995), 「文学報国 第33号, 1944/01/10」『復刻板,文学報国 : 第1号~第48号』, 山内祥史 編, 東京: 不二出版, p. 109.

결국, 「12월 8일」과 「동경 소식」의 독해는 전시라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개인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핵심에 자리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2.2. 전시기 타자의 정치학과 다자이 오사무

제국일본의 “문학보국”은 제국 전체를 영역으로 삼았다. 이는 보국(報國)을 위한 문학의 영역에 제국 권역 내의 타민족이 등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였다. 특히 앞서 인용한 공청회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제국일본과 동양, 동아의 관계는 전쟁의 정당성을 외치는 중요한 근거였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1943년 11월 일본문학보국회는 대동아회의에서 결의된 「대동아공동선언」의 5원칙을 주제로 삼아 문학작품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44년 1월에 소설부회에서는 집필 희망자 약 50명이 모여 협의회를 열었다. 다자이 오사무는 그곳에 응모, “독립친화(獨立親和)” 원칙을 주제로 한 작품의 저자로 선정되었다. 다자이는 중국의 문호 루쉰(魯迅, 본명 저우수런(周樹人), 1881~1936)의 일본 유학, 그중에서도 센다이 의학전문학교 시절(1904~1906)을 소재로 삼아 소설 「석별」(惜別)을 집필하였다.[115]

해당 소설은 전시 프로파간다의 일부분이었으며, 묘사되는 루쉰 상 역시 이러한 목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다자이 오사무는 「석별」의 집필 과정에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저서 『루쉰』(魯迅)에 크게 의존하였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다케우치 요시미는 「석별」을 두고 전쟁 편승과 루쉰에 대한 곡해로서 비판하였다. 다만 90년대 말엽부터는 이러한 문제성을 달리 풀어내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기타가와 도오루(北川透), 도고 가쓰미 등에 의해 “석별 속에서는 정치성 짙은 외적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별을 단순히 실패작, 국책소설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116]는 취지로 기존의 독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중국 문학 연구자인 후지이 쇼조(藤井省三)는 실제 유학 시절 루쉰의 모습에는 다자이의 해석이 근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권석영은 검열을 의식한 결과 전쟁 협력적인 표현이 삽입

115) 다만, 전쟁 말기의 혼란상 때문인지 종전 후인 1945년 9월에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116) 채숙향(2007), 「태재치(太宰治)의 『석별(惜別)』론 -인물 구도를 통한 정치성의 탈락-」, 『한일군사문화연구』 Vol.5, 한일군사문화학회, p. 253

되었으나 다자이가 자신의 루쉰 상을 그리려 했다고 풀어내기도 했다.[117]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비록 「석별」의 문제성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더라도, 「석별」 속 그려진 루쉰은 작가 다자이 오사무, 혹은 다자이 오사무에게 글을 적을 기회를 제공한 제국 일본 및 문학보국회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절은 해당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가장 먼저 「석별」에서 그려지는 저우수런을 두고, 실제 인물 루쉰의 재현보다는 가공의 인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며 그와 주변 인물에 의해 구축되는 중국(중국인)-일본(일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해당 관계를 더 선명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몇 개의 문헌과 대조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케우치 요시미의 『루쉰』(魯迅)[118], 루쉰에 의한 센다이 시절 회고인 「후지노 선생」(藤野先生, 1928)을 통해 다자이가 접했을 센다이 시절 루쉰 상을 확인할 것이다. 동시에 루쉰의 「문화편지론」(혹은 문화편향론)(文化偏至論, 1908), 서광덕의 『루쉰과 동아시아 근대』 등에 나타난 일본 유학 시절 루쉰의 사상과도 비교할 예정이다. 만약 「석별」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는 곧 「석별」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일반적인' 문학작품과는 달리, 국책소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석별」의 집필 목적과 방향은 비교적 자세히 전해진다. 다자이는 「석별」의 집필에 앞서 조사위원회(일본문학보국회)에 「「석별」의 의도」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119]

---

117) 홍명희(2015),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국책소설〉과 루쉰(魯迅) - 『석별(惜別)』에서 〈나(私)〉에 의해 회상되는 '저우 씨(周さん)' -」, 『일본어문학』 70, 일본어문학회, p. 386.

118) 1944년 처음으로 일본평론사에서 출판 되었으며 다자이 오사무가 참고한 것도 이 판본으로 추정되나, 학교 중앙도서관의 고문헌자료실을 통하여서도 해당 판본과 번역본을 구할 수 없었기에, 본고에서는 1961년 미래사판을 기준으로 번역한, "다케우치 요시미(2003), 서광덕 역, 『루쉰』, 문학과 지성사"를 참고하였다.

119) 물론 공적으로 제출된 집필 의도가 작품 전체를 설명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적어도 문학보국회에게 「석별」이 위의 집필 의도로 설명될 수 있는 작품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1945년 9월에 발간된 실제 「석별」의 후기에서는 "문학보국회의 "의뢰"로 쓰기 시작한 소설이지만, 이러한 의뢰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쓸 작품이었다."라고, 집필 사정을 달리 밝

루쉰의 만년 문학론에는 저자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지 않기에, 말년의 루쉰은 전혀 다루지 않고, 그저 순정 다감한 젊은 한 청국(淸國) 유학생으로서의 "저우씨"를 그릴 예정입니다. 중국[120]의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또한 결코 경박하게 추켜세우지도 않고, 소위 결백한 독립친화의 태도로 젊은 저우주런을 바르고 어여삐 여기며(いつくしんで) 그릴 셈입니다. 현대 중국의 젊은 지식인이 읽도록 하여, 일본에 "우리들의 이해자가 있다"는 감정을 품게 하여, 백발의 탄환 이상으로 일지(日支) 전면 화평에 효력을 보이고자 합니다.

魯迅の晩年の文學論には、作者は興味を持てませんので、後年の魯迅の事には一さい觸れず、ただ純情多感の若い一淸國留學生としての「周さん」を描くつもりであります。中國の人をいやしめず、また、決して輕薄におだてる事もなく、所謂潔白の獨立親和の態度で、若い周樹人を正しくいつくしんで書くつもりであります。現代の中國の若い智識人に讀ませて、日本にわれらの理解者ありの感懷を抱かしめ、百發の彈丸以上に日支全面和平に效力あらしめんとの意圖を存してゐます。[121]

이를 고려한다면 「석별」은 소재로서 루쉰의 센다이 유학 시절을 선택하고 있으나, 실존 인물로서의 루쉰 재현은 목표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석별」에서 루쉰을 회상하는 나는, 세상에 알려진 대문호의 이름 대신 저우수런이라는 이름으로 센다이 시절의 그를 기억한다. 자연스레 루쉰은 중국의 대문호 자리에서 내려와 "어여삐" 여겨지는 중국 지식인 청년으로 변모하고, 시골 출신 의학전문학교의 학생인 화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지노 선생과 동격에 위치할 가능성을 얻는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우선 '바람직한 일지관계'와 '일지 전면 화평'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자.

「석별」에서 문학보국회가 기획한 '바람직한 일지관계'는 노골적이고 알기

히고 있으나, 전후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가정한다면 이 집필 후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듯하다.

120) 이하 인용문에서 중국은 모두 中國으로 표기됨

121) 太宰治(1999), 「「惜別」の意圖」, 『太宰治全集 11』. 東京: 筑摩書房(關井光男(1976), 「解題」, 『太宰治全集 7』. 東京: 筑摩書房, pp. 410-411)에서 재인용.

쉽게 제시된다. 이는 루쉰에 대한 곡해와 시국 영합 양면이라는 명목으로 비판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해당 표현들은 화자보다도 저우수런과 후지노 선생의 확신에 찬 언변을 통하여 구현되며, 시국을 향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화자를 설득하려 한다. 예를 들어, 저우수런은 아래처럼 말한다.

> 서양은 그런 정신적 빈곤을 과학으로 보강하려 했다. … 그것이 동양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본은 과학이 지닌 폭력성을 재빠르게 꿰뚫어보고, 적극적으로 이를 배워 자국을 방어해서 국풍이 혼란해지는 일 없이 그것을 소화하는 데 성공하여 동양에서 가장 총명한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 청나라 정부는 과학의 맹위를 보면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뿐,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 자기들이 졌다는 사실을 호도하며 임시변통으로 전통적 대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기에만 급급하다. … 나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중국을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불만도 많다. 지금의 청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태한 나라다. 이유모를 자부심에 취해있다. … 중국에는 지금 여유 따위가 있을 리 없다. 자만심을 버리고, 우선 서양 과학의 폭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싸우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호랑이굴로 뛰어들어서 하루빨리 그 정수를 배워야만 한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에 처음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 난학이라고 하는 서양 과학이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나는 중국의 스기타 겐파쿠가 되고 싶다.[122]

> 西洋はそんな精神界の貧困を、科学によって補強しようとした。… 東洋の精神界にまで浸透して来た。日本はいち早く科学の暴力を察して、進んで之を学び取り、以て自国を防衛し、国風を混乱せしめる事なく、之の消化に成功し、東洋における最も聡明な独立国家としての面目を発揮する事が出来た。… 清国政府は、この科学の猛威に対して何のなすところも無く、列国の侵略を受けながらも、… 自信を装って敗北を糊塗し、ひたすら老大国の表面の体裁のみを弥縫するに急がしく … 自分は支那を誰にも負けぬくらいに愛している。愛しているから、不満も大きい。いまの清国は、一言で言えば、怠惰だ。わけのわからぬ自負心に酔ってい

122) 다자이 오사무(2013), 최혜수 역, 「석별」, 『다자이 오사무 전집 6』, 도서출판 b, p. 305-306

る。… 支那には、いま余裕も何も有るはずはないのだ。自惚れを捨てて、まず西洋の科学の暴力と戦わなければならぬ。これと戦うには、彼の虎穴に敢然と飛び込んで、一日も早くその粋を学び取るより他は無い。日本の徳川幕府の鎖国政策に向って最初に警鐘を乱打したのは、蘭学という西洋科学であったという話を聞いている。自分は支那の杉田玄白になりたい。[123]

전근대적인 비 문명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중국의 독립을 위한 본보기로 일본이 암시되기에 '일지친선'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독립친화"라는 주제의식의 실현인 셈이다. 나아가 앞서 검토한 동양과 서양의 선천적 대립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서양을 통해 존재의의를 가지게 되는 일본의 모습이 인용부에는 실려 있다. 형태를 소설로 바꾸었을 뿐 문학보국회가 설파하고자 하는 대동아 공동선언의 핵심 사상을 재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인용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인의 사상은 모두, 충이라는 관념으로 einen(통일되어) 있군요. 저는 이제까지 일본인에게는 철학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충이라는 Einheit(통일)의 철학이 먼 옛날부터 Fleischwerden(육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철학이 너무나 purifizieren(순화)되어 있어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중국에서는)효가 권모술수의 수법처럼(되었습니다) …"[124]

日本人の思想は全部、忠という観念にeinenされているのですね。僕はいままで、日本人には哲学が無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忠というEinheitの哲学で大昔からFleischwerdenされているのが日本人だとも言えるのじゃないかしら。その哲学が、あまりpurifizierenされているので、かえって気がつかなかったのですね。

…

123) 太宰治(1989), 「惜別」, 『太宰治全集 7』. 東京: 筑摩書房, pp. 211-212.
124) 「석별」, pp. 362-363. 괄호는 인용자.

権謀詭計の借拠みたいなものにしてしまって …[125]

"일본인은 조상으로부터 훌륭한 교양을 물려받았지요. 중국사상의 건전한 면만을 본능적으로 골라내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126]

日本人は、いい教養を祖先から伝えられているのですね。支那の思想の健全なところだけを、本能のように選んで摂取しますからね。[127]

우선, 이러한 발화 내용은 루쉰의 실제 모습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쉰의 초기 사상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문화편향론」에는 일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그러하지만, "초기 루쉰의 사상에 있어서 아주 독특하면서 중요한 대목이 바로 개인의 존중과 다수의 배척"[128]이라는 점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천황에 대한 충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즉 충의통일론은 루쉰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가 바랐던 것은 단순한 계승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초월한, 니체의 위버멘쉬(Ubermensch)와도 같은 존재의 등장[129][130]이었다. 그러한 현실 루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출신 청년 지식인인 저우수런의 입에서, 자기 초월보다는 자기 보전에 가까운, 혈통 이외에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일본 천황의 '만세일계'에 대한 신성화와 그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의 확보, 덧붙여 동양의 사상적 대표로서 일본의 우월성이 발언 되는 것이다. 이어서 후지노 선생의 언설을 검토해보자.

---

125) 「惜別」, pp. 270-271.
126) 「석별」, p. 365.
127) 「惜別」, p. 273.
128) 서광덕(2018), 『루쉰과 동아시아 근대』, 산지니, p. 189
129) "진정으로 만약 현재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지난 일을 고려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물질을 배척하여 정신을 발양시키고 개인에 맡기고 다수를 배격해야 마땅하다. 사람들의 의기가 크게 앙양되면 국가도 그에 따라 부흥될 것이다. 어찌하여 지엽적인 것들을 붙들고 주워 모아 헛되이 금철이니 국회니 입헌이니 하고 외치는가?" 루쉰(2010),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역, 「문화편향론」, 『루쉰 전집 1권』, 그린비, p. 83.
130) "니체와 같은 사람은 개인주의의 최고 영웅이었다. 그가 희망을 걸었던 것은 오로지 영웅과 천재였으며, 우민을 본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뱀이나 전갈을 보듯 증오했다.", 루쉰(2010), p. 93

"저는 동양 전체가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양각색의 꽃을 피워도 상관없습니다. 중국의 혁명 사상에 대해서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삼민주의라는 것도 민족의 자결, 아니 민족의 자발이라는 것에 뿌리를 둔 것 아닐까 싶습니다. … 중요한 것은 민족의 자발성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중국의 사정은 일본과 다른 점도 있지요. … 동양 본래의 도의라고 할 수 있는 그 근본정신은, 어딘가에 항상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우리 동양인 모두가 이어져있는 것입니다."[131]

私は東洋全部が一つの家だと思っている。各人各様にひらいてよい。支那の革命思想に就いては、私も深くは知らないが、あの三民主義というのも、民族の自決、いや、民族の自発、とでもいうようなところに根柢を置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まあ、民族自発ですね。私はそれを期待しています。支那の国情は、また日本とちがっているところもあるのです。… 東洋本来の道義、とでも言うべき底流は、いつでも、どこかで生きているはずです。そうしてその根柢の道において、私たち東洋人全部がつながっているのです。[132]

저우수런의 인용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 후지노 선생은 "단지 묵묵히 노트를 고쳐주고, '해부도는 미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루쉰에게 가르쳐주었을 뿐 … 그리고 루쉰이 의학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 탄식"[133]했을 따름이다. 루쉰 역시도 후지노 선생의 행동을 두고 "작게 보자면 중국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크게 보자면 학문을 위해서였다"[134]라고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용부에서 다자이는 후지노 선생에게 확장된 역할을 부여, 아시아의 지도자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양 전체가 하나의 집"이라는 표현은 오카쿠라 덴신의 저서 *The Ideals of the East*[135]의 첫 문장, "The Asia is one."을 확장한,

131) 「석별」, pp. 343-345.
132) 「惜別」, pp. 251-252.
133) 다케우치 요시미(2003), 『루쉰』, 서광덕 옮김, 문학과 지성사, p. 71.
134) 노신(1994), 「등야선생」,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도서출판 창, p. 237.
135) 김용철(2015), 「중일 ·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재조명」, 『일본비

아시아는 일본 안에서 참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떠오르게 만든다. 종합하자면, 「석별」 속 비서양 일본은 비서양 중국의 지도(指導) 역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문명성'이라는 후천적 조건을 지닌 국가 중에서도, 비서양적 근원을 중국과 공유하는 일본에만 수행 가능한 일로 묘사된다.

이상과 같이 저우수런과 후지노 선생의 발화 속에는 선천적인 동양에의 의존으로 말미암아, 잇따른 "독립협화"와 '일지친선'의 외침으로 대표되는 현실 왜곡이 가득하다. 그러나 단순 발화의 차원을 떠나, 화자와 저우수런, 그리고 때때로 후지노 선생을 경유하며 구성된 관계를 살펴보면 어떨까?

도호쿠(東北)지방의 작은 시골에서, 동북의 중심지인 센다이로 올라와 센다이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화자는 도회지에 압도된다. 대도시 출신의 신입생이 가득한 상황에서 시골이라는 자신의 출신지와 시골 냄새나는 말투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고립을 선택하며 센다이 곳곳을 홀로 돌아다니던 화자는 우연히 들려온 서툰 노래 소리를 따라가다가 저우수런과 만나게 된다. 의도치 않은 조우에 긴장한 그였으나, 곧 서툰 말씨를 듣고 안심한다.

> 말에 특유의 억양이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그가 도쿄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나는 항상 내 시골 사투리(田舎訛り)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그만큼 다른 사람의 사투리(言葉の訛り)에도 민감했다. 어쩌면 내 고향 부근에서 온 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노래의 천재에게 친근함을 느끼며 말했다.[136]

> 言葉に訛りがある。東京者ではない、と私はとっさのうちに断定した。たえず自分の田舎訛りに悩んでいる私はそれだけ他人の言葉の訛りにも敏感だった。ひょっとしたら、私の郷里の近くから来た生徒かも知れぬ、と私はいよいよこの歌の大天才に対して親狎の情を抱き、[137]

평』 Vol.1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 따르면 오카쿠라 덴신의 이 저서는 1903년 영어로 발표되었으나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1919년의 개요 소개가 최초로, 완역본은 1935년에 들어서야 나타났다. 1930년대 쇼와연구회, 대아세아협회(大亞細亞協會)등에 의해 주도된 아시아연대론이 대동아공영권의 사상적 조직 중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석별」 중 위 인용부의 내용 역시 그러한 자장 아래에 존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136) 「석별」, p. 294

또한 이는 화자와 저우수런의 양자적 관계를 넘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후지노 선생에게까지 확장된다.

선생님은 억센 관서지방 사투리를 썼다. … 그러고 보면 나중에 후지노 선생님과 저우 씨, 나 이렇게 셋이서 친해진 것도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어가 서툰 사람들끼리 뭉치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닐까? … 우리가 그런 비속한 이유 하나 때문에 친하게 지낸 것은 결코 아니라며 큰소리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 말고 다른 고차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무엇인지, 실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 서로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일까? 아니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일까? 혹은, 정의라고 해야 할까? 아니, 그런 모든 느낌을 뭉뚱그린, 무언가 어렴풋하면서도 더 커다란 것 같다. 어쩌면 후지노 선생님이 자주 말했던 '동양 본래의 도'라는 것이 그것일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잘 모르겠다. … 우리의 우정관계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내 능력이 모자라므로 언젠가 사상가 분들의 의견을 듣는 수밖에 없겠지만 …138)

先生は、ひどい関西訛りであった。 … かくの如く観じ来れば、後に到いたって、この藤野先生と周さんと私と三人が結んだあの親密な同盟も、何の事は無い、日本語不自由組の同気相求めた結果のものに過ぎ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 … 私たちは、ただそんな卑俗の理由ひとつだけで結ばれていたわけでは断じて無いのだ、とすこし大きく出たい気持も現在の私には有るのである。然しからば、その他の高遠な理由というのは、何であるか。それは実のところ、私にもはっきりわかっていないのである。… 相互の尊敬というものであろうか、隣人愛とでもいうものであろうか、或あるいは、正義とでもいうべきものであろうか、いやいや、そんな気持をみんなひっくるめた何かぼんやりして、もっと大きいもののような気がする。或いは、藤野先生がよくおっしゃっていた「東洋本来の道」とかいうものが、それに当っ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が、どうもよくわからない。… 私たちの同盟の本質は何であったか、その判定は、私の力には余ることで、いずれ

137)「惜別」, p. 200.
138)「석별」, pp. 330-331.

思想家どもの御意見にたよるより他は無かろうが、… 139)

작품을 꿰뚫는 세 사람은 연대, 나아가 동맹으로 표현되는 관계이지만, 정작 연대의 근원은 설명되지 못한다. “동양 본래의 도”를 가능성으로 생각해 보지만, 쉬이 그렇다는 결론에 닿지도 않는다. 과연 “올바른” 일본어 사용자라는, 이질적이며, 한편으로는 우월한(것으로 인식되는) 외부가 없었다면 연대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저우수런과 후지노 선생의 입을 빌려, 선천적인 동양의 결연, 그리고 서양의 위협을 근거로 주장되던 ‘일지친선’이지만, 정치적 이상(理想)에 대한 발언을 넘어 실질적인 연대로서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동질성은 자취를 감춘다. 즉, 연대는 목적 아닌 수단이며, 자립 불가능한, 도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아래 장면에서는 도구로서의 성격이 낳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낯을 많이 가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내가, 도쿄나 오사카도 아니고 바다 건너 먼 이국에서 온 유학생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저우 씨의 통 큰 인격 덕분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우 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만큼은 자신이 촌놈이라는 우울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실로 수준 낮은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 그저 도쿄 말씨를 쓰는 것이 나보다 더 힘들 사람을 발견하고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와 저우 씨 사이에 친분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 상대가 중국 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큰 용기를 얻어 무척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140)

…人みしりをするという点では決して人後に落ちない私が、京、大阪どころか、海のかなたの遠い異国からやって来た留学生と、何のこだわりも無く親しく交際をはじめる事が出来たのは、それは勿論、あの周さんの大きい人格の然らしめたところであろうが、他にもう一つ、周さんと話をしている時だけは、私は自分の田舎者の憂鬱から完全に解放されるというまことに卑近な原因もあったよう

139)「惜別」, pp. 237-238.
140)「석별」, pp. 296-297

である。…私より以上に東京言葉を使うのに苦労している人を見つけて私が大いに気をよくしたという事が、私と周さんとの親交の端緒になったと言ってよいかも知れないのである。…相手が支那の人と知ってからは、大いに勇気を得て頗る気楽に語り、[141]

저우수런이 청나라 유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연대감 속에는 은폐된 서열이 발생한다. 자신은 일본어를 모국어로서 소유한다는 우월감에서 출발하는, 넘을 수 없는 민족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동아 공동선언의 중대한 근거가 되어야 할 아시아라는 민족성이란, 그 속에 숨겨진 위계로 인해 근본부터 기만적인 연대임을 지적하듯, 다자이는 이어지는 독백에서 연대의 허위성을 풍자적으로 서술한다.

말 한번 잘하네. 아무래도 독일어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순식간에 작전을 바꾸어, 독일어는 안 쓰기로 했다.[142]

なるほど、うまい事を言う。どうも独逸語は、私よりもはるかに上手なようだ。もう独逸語を使う事はよそう、と私はとっさに戦法をかえて、[143]

내부의 위태로움만큼이나 외부를 향한 전망도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저우씨에게 스파이 의혹을 품은 쓰다(津田)씨와 화자가 이야기를 나눈 후 이뤄지는 화자의 독백을 살펴보자.

"…뤼순이 함락되기 전에 큰 함대가 일본으로 쳐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지나쳤던 나머지, 모든 사람이 수상쩍어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저우 씨가 혼자 아무 말 없이 마쓰시마에 간 것도, 어쩌면 그가 러시아 스파이여서 … 센다이 시의 전멸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는 것이다. …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내심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겼으니, 괜찮았다. 그래서 싸움은

141)「惜別」, pp. 202-203.
142)「석별」, p. 297.
143)「惜別」, pp. 203.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전세가 또다시 불리해진다면 친구 사이에도 서로를 믿기가 힘들어진다. 민중의 심리란 원래 이처럼 미덥지 못한 것이다. 작게는 국민의 일상 윤리의 동요를 막고, 크게는 후지노 선생님의 이른바 '동양 본래의 도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절실히 느꼈다."[144]

旅順陥落せざるうちにその大艦隊が日本に押寄せて来たらどうしようと心配のあまり、人皆うたがわしく見えて来て、周さんがひとりでこっそり松島へ出掛けて行ったのも、或は露国のスパイとして、かの松島湾の深浅を測量し、もって露国の艦隊をここに導き入れ、仙台市の全滅をたくらんで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と、…　私はそれを聞いて内心大いに呆れたが、しかし、もういいのだ。勝ったから、いいのだ。戦いは、これだから、絶対に勝たなければならぬ。戦況ひとたび不利になれば、朋友相信じる事さえ困難になるのだ。民衆の心裡というものは元来そんなに頼りないものなのだ。小にしては国民の日常倫理の動揺を防ぎ、大にしては藤野先生の所謂「東洋本来の道義」発揚のためにも、戦いには、どんな犠牲を払っても、必ず勝たなければならぬ、とその夜しみじみ思った。[145]

연대의 확장은 '우리' 혹은 '국민'이 외부의 우위에 서야만 가능하다. 전제조건으로서 제시되는 '우리', '국민'은 이미 일본과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상상을 저해하는 분열적인 단위이다. 나아가 우위에 서야만 가능해지는 연대의 실상은 연대가 아닌 승자의 관용에 가깝다. 그리고 관용은 우위에 선 존재의 은총일 뿐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상의 방식으로 그려지는 관계성은 '일지관계', 혹은 '비서양인 일본의 비서양을 향한 관계'의 충실한 비유이다. 도회지에 맞서 발생하는 시골들의 연대는, 비서양인 동양의 연합을 통해 서양에 대응하려는 구조의 반복이다. 동시에, 사투리 화자가 도쿄와 표준어라는 외부 권위로부터의 압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저 도쿄 말씨를 쓰는 것이 나보다 더 힘들 사람을 발

144)「석별」, p. 357.
145)「惜別」, pp. 265-266.

견”[146]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 즉 연대 속 서열의 구조는, 비서양 일본이 비서양 중국을 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포용하되 멸시하는, 역설적인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의 풍자로도 읽힌다. 이상을 종합하면 「석별」은 “독립친화”, ‘일지친선’의 전쟁협력을 주장하되, 제국일본의 구조적 모순성을 명확히 서술하는 작품이 된다. 『문학보국』지에서 제기된 다자이의 질문은 석별을 통해 구체화 된 것이다.

나아가 거대한 프로파간다의 이야기에서 내려와 「석별」을 다시 개인의 삶과 밀접한 위치에서 읽어내기 위해 당대의 작품 중 드물게 ‘지나’인에게 개인사와 얼굴을 부여하였다는 부분에 주목해볼 수 있다. 특히 저우수런이라는 인물의 설정은 흥미롭게 다가온다. 원본이 되는 인물이 대문호 루쉰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기표인 동시에, 아직 루쉰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 자연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때 「석별」은 국가, 민족 단위의 이야기인 동시에 미시적인 인간의 비유가 된다. 즉, 다자이의 관심사였던 개인의 확보란 제국일본의 체제에 귀의하는 것, 의탁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겠다.

146) 「석별」, p. 297.

3. 자립의 다자이 오사무 소설

항복선언과 수락을 통해 전투상태가 종결되며 일본열도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속칭 GHQ, General Headquaters)의 관리 감독하에 들어갔다. GHQ는 종전 직후 일본 정부 측에 언론, 출판 제한의 폐지를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각종 잡지의 창간, 복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서점에 서서 잡지와 책을 사는' 많은 독자들에 의해, 소설가들은 물론 출판계의 왕성한 활동이 눈부신 시기였다. 이렇듯 패전 직후는 언론의 자유에 굶주렸던 일본 전체가 GHQ의 민주혁명 지향이라는 점령정책에 선도되어 언론활동 및 출판업계의 활동이 활발했다."147)148)

다자이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종전 직후부터 활발한 창작, 출간 활동을 재개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먼저 출간한 작품은 앞서 언급한 「석별」이었다. 이외에도 그는 전시에 집필해 두었던 몇 가지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종전에 따라 되돌아볼 수 있는 대상이 된 전시기의 경험을 글로 풀어놓고, 나아가 집필 당대를 말하기 시작했다.

3.1. 전시 기록하기

다자이 오사무의 전시를 회고하는 작품 중 이번 절에서는 단편 「화폐」(貨幣)를 다루고자 한다. 「화폐」는 1946년 2월 1일, 「부인 아사히」(婦人朝日)지에 발표되었다.

---

147) 홍명희(2018).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문학에 나타난 전후 일본의 사회상 -전후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다자이 신화'와 관련하여-」, 『일본어문학』 82, 일본어문학회, p. 477

148) 물론, 제국일본의 패망 후 수립된 미군정 하에서는 새로운 검열제도가 도입되었기에 모든 내용을 자유로이 출판할 수 없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1945년 8월 19일에 SCAPIN-33을 통해 "Press Code For Japan"이 기본적인 검열의 틀로 발표되었으며, 세부 지침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에토 준(江藤淳)의 연구(江藤淳(1994), 『閉された言語空間』, 東京: 文藝春秋.)를 통해 알려졌다.

「화폐」는 백엔 지폐를 의인화된 여성 화자로 삼아, 지폐인 그녀의 회고를 통해 전시의 일본을 그려낸다. 지폐는 도쿄 중앙은행 창구에서 젊은 목수의 손에 건네지며 그 삶을 시작한다. 목수는 가장 큰 단위였던 백엔 지폐를 앞주머니에 고이 집어넣어 집으로 가져온다. 목수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듯 부인에게 지폐를 보여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곧이어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결국 지폐는 부인의 지갑으로 들어가고, 들어간 지폐는 전당포에서 부인의 기모노 열 벌과 교환된다. 지폐는 본격적으로 사람의 손을 타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쓰임을 따라 정처 없이 오 년간 시코쿠, 규슈 등지를 떠돈다. 닳아 초췌해진 백엔 지폐는 육 년 만에 도쿄로 돌아오게 되나, 도쿄 역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저녁 여덟 시를 지나면 도시는 캄캄해져 깊은 숲을 걷는 감각에 빠지도록 만들며,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길은 마치 죽음의 거리와도 같은 불길한 느낌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는, 그리고 지폐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공습으로 인한 대혼란 속에서도 지폐는 쉴 새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거칠 뿐이다. 1939년에 시작하는 통제경제가, 이미 존재하던 '공정가격'에 의한 상품가격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한 결과, 암거래가 횡행하였던 사실[149]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지폐는 사람들의 손을 가쁘게 오가던 자신의 경험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언제나처럼 '탕탕, 슈욱슉'이 시작되었는데, 매일 밤낮으로 벌어지는 그런 대혼란 속에서도 저는 쉴 새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거쳐 마치 릴레이 경기 중인 바통처럼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했고, 덕분에 이렇게 주름 가득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서 악취가 몸에 배어 어찌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즈음 일본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굴러가던 시기였지요.[150]

149) 逆井聡人(2018),『<焼跡>の戦後空間論』, 東京: 青弓社, pp. 109-110
150) 다자이 오사무(2013), 정수윤 역, 「화폐」,『다자이 오사무 전집 7』, 도서출판 b, p. 223.

それからまもなく、れいのドカンドカン、シュウシュウがはじまりましたけれども、あの毎日毎夜の大混乱の中でも、私はやはり休むひまもなくあの人の手から、この人の手と、まるでリレー競走のバトンみたいに目まぐるしく渡り歩き、おかげでこのような皺くちゃの姿になったばかりでなく、いろいろなものの臭気がからだに附いて、もう、恥ずかしくて、やぶれかぶれ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あのころは、もう日本も、やぶれかぶれになっていた時期でしょうね。[151]

경험을 털어놓는 것은 지폐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술되는 것은 지폐의 경험이 아니다. 지폐는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이동하게 된다. 즉, 지폐의 바쁜 이동이란 대공습의 와중에, 일억일심과 멸사봉공을 외치던 시기에 그와는 동떨어진 개인적인 욕구와 필요의 급류가 흘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화자인 백엔 지폐를 사용하였을 사람들은 상황이 등을 떠밀었을지언정 공습 와중의 암시장에 나아갔고, 전시의 사회에서 입체적으로 살아간 존재인 셈이다.

화폐가 암시하는 인민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전시의 압제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지식인들의 회한이 얼마나 일반적인 삶의 형태, 혹은 일상과 밀착한 기억인지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전시의 일본인이 진실을 몰랐기에 국가에 협력하였을 뿐이라는 미군정 이후 '태평양 전쟁사관'과 이를 향한 포스트 전후기 역사 수정주의적 반박이 의존하는, 사실로서의 역사에 대한 믿음[152]이 전쟁의 본질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지폐의 자기 서술은 전시 신민에 대한 주체적 가능성의 제시이며, 당대의 사람을 객체화하여 덮어버리려는 전후의 시도에 불빛을 비추는 행위이다.

질리도록 보고 들으셨을 테니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짐승 같았던

151) 太宰治(1989), 「貨幣」, 『太宰治全集 8』. 東京: 筑摩書房, p. 203.
152) 일본 국민을 향한 동조 혐의 벗기기의 시도, 그리고 소위 "사실로서의 역사" 만들기의 매커니즘 작용에 관하여는 정지희(2016), 「사실로서의 역사와 역사적 진실 —전후와 포스트 전후 일본의 '태평양 전쟁'사 다시 쓰기와 진실의 정치—」, 『동아시아문화연구』 65,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p. 181~213.을 참조.

건 비단 군부 세력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단순히 일본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성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인간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웃음기 가신 얼굴로 서로 물고 뜯으려 드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이가 있는 한. 자신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이아말로 진정 인간다운 감정일진데,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한순간의 안락함을 얻으려, 이웃을 욕하고, 기만하고, 밀어 넘어뜨리고, (아니요, 당신도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무의식중에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도,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끔찍한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인간이라면 부끄러워하십시오. 부끄러움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니까요) 마치 지옥에 떨어진 죽은 자들이 서로 붙들고 늘어지며 싸우는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그림이라도 보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153]

聞き飽き見飽きていらっしゃることでしょうから、くわしくは申し上げませんが、けだものみたいになっていたのは、軍閥とやらいうものだけではなかったように私には思われました。それはまた日本の人に限ったことでなく、人間性一般の大問題であろうと思いますが、…　人間は命の袋小路に落ち込むと、笑い合わずに、むさぼりくらい合うものらしうございます。この世の中のひとりでも不幸な人のいる限り、自分も幸福にはなれないと思う事こそ、本当の人間らしい感情でしょうに、自分だけ、あるいは自分の家だけの束つかの間まの安楽を得るために、隣人を罵ののしり、あざむき、押し倒し、（いいえ、あなただって、いちどはそれをなさいました。無意識でなさって、ご自身それに気がつかないなんてのは、さらに怒るべき事です。恥じて下さい。人間ならば恥じて下さい。恥じるというのは人間だけにある感情ですから）まるでもう地獄の亡者がつかみ合いの喧嘩をしているような滑稽で悲惨な図ばかり見せつけられてまいりました。[154]

이어서 지폐는 전시에 사람들이 선택해온 길을 문제시한다. 전시의 비인간성은 어떠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도구이기에 철저한 객체의 입장에

153)「화폐」, pp. 223-224.
154)「貨幣」, pp. 203-204.

설 수 있는 지폐는, 욕구에 따라 자신을 사용한 인간들이 진정 인간이라면 부끄러워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질리도록 보고 들”었을 것이라는 지폐의 말은 화자까지도 일본인, 혹은 제국일본의 내지에 살았던 사람 일반으로 특정한다. 하지만 일본의 인민들에게 밀착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의 근거를 “인간”에서 찾을 뿐, 이야기를 일본적인 무언가로 귀결시키지는 않는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지적한 전근대성도, 요시모토 다카아키의 민중사적, 생활사적 원인도 아니라, 지폐는 “일반적인 인간성의 문제”로 현 상황을 바라본다.

한편으로 지폐는, 자신을 사용했던 사람에 얽힌 아련하게 그리운 추억도 있음을 고백한다. 이는 너무나 “인간”적인 추억이다. 암거래상 무리 중 하나인 대위의 손에 넘어갔을 때의 기억이다. 대위는 호주머니에 백엔 지폐를 구겨 넣고 마을 외곽의 너저분한 술집을 향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접대하는 작부(酌婦)를 험하게 대한다. 여우를 닮은 얼굴이라며 모욕하고 조롱하며, 나아가 작부의 아기가 울음소리를 내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시끄러워 죽겠다. 기분 잡쳐. 나는 예민한 놈이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 너 아주 괘씸한 년이구나. 아이를 끼고 물장사를 하다니. 진짜 뻔뻔해. 일본에 너같이 지 주제도 모르는 비열한 여자만 가득하니까 전쟁에서도 고전하는 거야. 너처럼 아둔한 맹꽁이들은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멍청하긴. 그래. 이제 이따위 전쟁은 얘깃거리도 안 돼. 여시하고 강아지처럼 빙빙 돌다가 픽 하고 쓰러지는 거야. 이길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매일 밤새 술을 퍼마시고 여자를 사는 거야. 떫어?”155)

> 「うるさい餓鬼だ、興がさめる。おれは神経質なんだ。馬鹿にするな。… どだいお前は、けしからんじゃないか、子供を抱えてこんな商売をするとは、虫がよすぎるよ。お前のような身のほど知らずのさもしい女ばかりいるから日本は苦戦するのだ。お前なんかは薄のろの馬鹿だから、日本は勝つとでも思っているんだ

155)「화폐」, p. 226.

ろう。ばか、ばか。どだい、もうこの戦争は話にならねえのだ。ケツネと犬さ。くるくるっとまわって、ぱたりとたおれるやつさ。勝てるもんかい。だから、おれは毎晩こうして、酒を飲んで女を買うのだ。悪いか」156)

대위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발견되지 않는다. 패배, 그리고 자신의 음주를 여인의 탓으로 돌릴 뿐이다. 전쟁이라는, 본디 파괴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이지만, 이제는 그에게 맡겨진 소임조차도 포기한 채 아무런 것도 추구하지 않는 상태를 보일 뿐이다. 그를 향해 작부는 아래의 말로 쏘아붙인다.

"떫어. …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술이나 푸면서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 건 너네뿐이야. 니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생각해봐. 우리가 버는 돈의 반은 나라에 바친다고. 나라에서는 그 돈을 니들한테 주면서 이런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해주는 거지. 나 무시하지 마. 여자라고. 아이도 가질 수 있어. 요즘 세상에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니들이 알기나 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젖 한 방울 안 나와. 가짜 젖꼭지나 쪽쪽 빨면서, 아니지, 요즘은 빨 힘도 없어. … 그래도 우리는 꾹 참고 있어. 너희들이 이겨줬으면 하고 참고 있다고 그런데 너네는 뭐야."157)

「悪い…

いまの日本で、こうして酒を飲んで女にふざけているのは、お前たちだけだよ。お前の給料は、どこから出てるんだ。考えても見ろ。あたしたちの稼ぎの大半は、おかみに差し上げているんだ。おかみはその金をお前たちにやって、こうして料理屋で飲ませているんだ。馬鹿にするな。女だもの、子供だって出来るさ。いま乳呑児をかかえている女は、どんなにつらい思いをしているか、お前たちにはわかるまい。あたしたちの乳房からはもう、一滴の乳も出ないんだよ。からの乳房をピチャピチャ吸って、いや、もうこのごろは吸う力さえないんだ。…　それでも、あたしたちは我慢しているんだ。それをお前たちは、なんだい」158)

156)「貨幣」, pp. 206-207.
157)「화폐」, p. 226.

그녀는 은연중에 대위의 파괴자적인 위치와 대조되는 자신의 생산자적 위치를 강조한다. 그녀는 노동할 뿐 아니라 국가적 재생산에 일조한다. 평범한 신민일 뿐이지만 자신의 노동이 제국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아마도 그녀는 당대의 많은 사람이 그러하였듯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할 것이다. 에른스트 카씨러(Ernst Cassirer)는 "근대국가를 '만든' 것은 바로 다수의 긍정적인 느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기에, 국가 혹은 국가의 대리자는 우선 국민에게 물질적 혹은 도덕적 이바지를 요구했다"[159]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서로 다른 파시즘의 구조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 국가의 대다수 국민은 계급, 젠더, 연령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헌신적으로 '수행'했다.[160] 작부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무엇이 달성되었으면 하는지도 명확히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신민은 아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 움직인 신민 또한 아니다. 작부의 앞에서 전쟁에 관한 소위 '진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공습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투하된 폭탄으로 인해 건물에 불이 붙으나 술에 취한 대위는 몸을 가누지 못한다. 작부는 그러한 대위를 안아 올려 피난한다. 지페는 장면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 인간의 직업 가운데 가장 천대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이 까무잡잡하고 깡마른 부인은, 그녀[161]의 어두운 일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아, 욕망이여, 사라져라. 허영이여, 사라져라. 일본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술 따르는 여인은 아무런 욕망도, 허영도 없이, 그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눈앞의 손님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162]

---

158) 「貨幣」, p. 207.
159) 알프 뤼트케(2020), p. 202.
160) 알프 뤼트케(2020). p. 208.
161) 오역, 원문은 私の(나의)로 되어있으며, 작품의 화자는 지페이므로 3인칭인 그녀로 처리하는 것은 지페의 어두운 일생을 작부의 어두운 인생으로 바꾸어버리는 오역이 된다.

人間の職業の中で、最も下等な商売をしているといわれているこの蒼黒く痩せこけた婦人が、私の暗い一生涯において一ばん尊く輝かしく見えました。ああ、欲望よ、去れ。虚栄よ、去れ。日本はこの二つのために敗れたのだ。お酌の女は何の慾もなく、また見栄もなく、ただもう眼前の酔いどれの客を救おうとして、こん身の力で大尉を引き起し、[163]

지폐는 일본이 욕망과 허영으로 인해 망하였다고 말한다. 그러한 망함을 극복할 계기로 제시되는 것은 "인간의 직업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제국을 전유하며 자신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술집 여자이다.

다음 날 아침 피난처에서 깨어난 대위는 자기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여자와 그 옆의 아기를 발견한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그는 도망치듯 멀어지다 이내 돌아와, 주머니에서 백엔 지폐 여섯 장을 꺼내 아기의 내복 안쪽에 밀어 넣고 급하게 모습을 감춘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쓰인 지폐는 "이렇게 좋은 곳도 없을 거야. 우리는 행복하구나. 언제까지나 여기 있으면서 이 아기의 등을 따뜻하게 살찌워 주고 싶어."라고 말하며 작품이 끝난다.

「화폐」는 패배로서 전후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품과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풍겨야 할 것만 같다. 그러나 전시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쓰인 「12월 8일」과 비교하였을 때 어쩐지 닮아있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전쟁이 일상을 누르고 있으나 지배하지는 못하는 점, 대조적 위치의 두 인물이 등장하는 점, 결말에 모종의 도움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유사한 요소들을 가지고 풀어내는 세부적 양상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물의 조형을 살펴보았을 때 변화는 도드라진다. 우선 「화폐」의 작부는 제국에 자신을 가까이 붙인다는 의미에서 「12월 8일」의 화자인 부인을 담고

162) 「화폐」, p. 227.
163) 「貨幣」, p. 208.

있다. 그러나 작부는 부인처럼 제국에 압도되기보다는, 제국을 적극적으로 전유하고 있다. 이는 앞서 구원자로서 등장한 남편과도 유사한 특징이다. 다만 남편과 작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바로 구원자로서의 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이다.

레비나스는 이웃의 얼굴과, 그 얼굴이 모인 사회, 나아가 국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 나는 언제나 이웃의 얼굴을 어떤 명령의 담지자로 묘사하는데, 그 명령은 타인과 관련하여 무상(無償)의 책임을 *내*게 부과합니다. 이 책임은 양도 불가능하지요. 자아는 선출된 자고 유일한 자인 셈이에요. 여기서 타인은 절대적인 타자입니다. 다시 말해, 비교 불가능하고 그래서 유일한 자죠.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들은 다수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이것은 정의가 불가피한 질문이죠.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을 비교하고 사람들을 식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시적 모습의 조형적 형태로서, 이를테면 '얼굴에서-벗어난'(dé-visagés) 채로 나타납니다. 즉, 그로부터 얼굴의 유일성이 떨어져 나온 그런 한 집단으로 나타나지요. 다른 인간들에 대한 나의 의무의 원천인 컨텍스트에서 떨어져 나온 격이에요. 이 의무의 원천은 정의의 추구 자체가 끝내 거슬러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경우 정의의 순고하고 어려운 작업이 순전히 정치적인 계산으로-또 전체주의적 남용으로까지-변형될 위험이 있어요.[164][165]

---

164) 에마뉘엘 레비나스(2020), 김도형·문성원 역, 「얼굴의 폭력」, 『타자성과 초월』, 그린비, pp.193-194.

165) 또한 레비나스는 또다른 저술 『전체성과 무한』의 「결론」 중 "9.주체성의 유지-내적 삶의 현실과 국가의 현실-주체성의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형이상학 또는 타자와의 관계는 봉사로서 그리고 환대로서 성취된다. 타인의 얼굴이 우리를 제삼자와 관계맺게 함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나의 형이상학적 관계는 우리라는 형식으로 흘러들어가고, 보편성의 원천인 국가, 제도 그리고 법을 열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자신에 내맡겨진 정치는 자기 안에 전제정치를 가지고 있다. 정치는 자신을 야기한 자아와 타자를 왜곡시킨다. 왜냐하면 정치는 자아와 타자를 보편적 규범에 따라 심판하며, 그렇게 하여 궐석판결을 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을 맞아들이는 가운데 내 자유가 종속되는 지고함(Trés-Haut)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 종속은 부재가 아니다. 즉 그것은 내가 도덕적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인격적 작업(이것이 없다면 심판의 진리는 생산될 수 없다) 속에서 실현되며, 단일성으로서의 그리고 얼굴(정치적인 것의 가시적인 것은 얼

「화폐」 속 작부는, 비록 짐승인 여우처럼 생겼다는 비하의 맥락일지언정 얼굴이 직접적으로 묘사될뿐더러, 자신을 매도한 '대위'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은 채 그의 삶을 상상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녀는 「12월 8일」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압도되기보다는 전유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로부터 출발하여 타인의 타자성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통해 대위에게 닿음을 인식하기에 대위에게 항의할 수 있다. 나아가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대위가 비록 자신을 매도하는 못 되어 먹은 놈(出来そこない)일지라도 그를 구해낸다는 점에도 주목할만하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구해냄은, 레비나스적인 얼굴을 통해 현현되어 이루어지는, 동일자인 나에게 속하지 않는, 타자의 발견과 그들에 대한 환대(hospitalité)의 전형에 가깝다. 작부가 대위에게 쏘아붙이는 과정에서 내뱉는 제국일본과 얽힌 언설은 전제정치로의 매몰을 의심케 하지만, 대위를 향한 무상의 구조(救助)는 "얼굴의 유일성이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독자의 의심으로부터 그녀 역시 구한다. 이상의 얼굴에 얽힌 경험은 대위에게도 타자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듯 전염되어, 지폐의 가장 따듯한 추억을 만든다.

물론 해당 상황은 전제주의와 환대의 공존으로도 보이며 언뜻 모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작부를, 권력을 맞이한 역사적 행위자로 바라볼 수 있다면, 행위란 본디 "'단 하나의' 명료한 모습"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동시에, "다의성과 다면성 속에서, 무엇보다도 아마 서로 모순되는 방향 사이에서"166)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굴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남겨둔다)로서의 타인에 대한 주의 속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이 주의는 나의 단일성 속에서만 생산될 수 있다. 주체성은 이렇게 진리의 작업 속에서 복권되지만, 자신에 해를 입히는 체계를 거부하는 에고이즘으로 복권되는 것은 아니다. 주체성이 행하는 이 자기중심적 저항에 대해서는-1인칭에 입각한 이 저항에 대해서는-헤겔이 말하는 현실의 보편주의가 아마 이유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그토록 오만하게 보편적 원리들을, 즉 가시적 원리들을 타자의 얼굴에 맞세운다는 것인가! 이 비인격적인 정의의 냉혹함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말이다. 또 그럴 경우, 어떻게 자아의 주체성을 선함의 가능한 하나뿐인 원천으로서 도입하지 않을 수 있는가?

따라서 형이상학은 우리를 단일성으로서의 자아의 성취로 이끈다. 국가의 작업은 이 자아의 성취와 관련하여 자리잡아야 하며 형성되어야 한다." 에마뉘엘 레비나스(2018),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pp.451-452.

166) 알트 뤼트케(2020), p.135.

「12월 8일」, 「동경 소식」에서 어렴풋이 지적되었던 주체성의 강조, 그리고 「석별」에서 보여준 제국의 선천성에 대한 의존 불가능성은 「화폐」를 통하여 정리된다. 헤매되 여전히 제국일본을 넘지 못하였던 시선은 의탁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한 인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3.2. 통전 공간 넘어서기

인간에 모인 다자이의 전시(戰時), 그리고 전후를 향한 시선은 하나의 소리로 모인다. 타앙탕탕 하는 망치 소리이다. 단편 「타앙탕탕」(トカトントン)은 1947년 1월 1일, 잡지 『군상』(群像)에 발표되었다. 다자이 오사무가 호치 유지로(保知勇二郎)라는 애독자 청년으로부터 받은 편지 속의 쇠망치 소리에서 단서를 얻어 집필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다자이는 1946년 9월 30일에 호치 유지로에게 서신을 보내 망치 소리의 사용에 허락을 구하며, 그 소리를 통해 현재 젊은 사람의 고뇌를 그려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 "이번 작업 속에 언젠가 당신이 보낸 편지 속에 있던 쇠망치(トンカチ)의 소리를 넣고 싶습니다(아직 착수하지는 않았지만요). 물론 당신의 편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은 실례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민폐를 끼칠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쇠망치의 소리를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지금의 고뇌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 こんどの仕事の中に、いつかのあなたの手紙にあつたトンカチの音を、とりいれてみたいと思つています。(まだ、取り掛かつてゐませんけど) もちろんあなたの手紙をそつくり引用したり、そんな失礼なことは絶対にいたしませんから。また、あなたに少しでもご迷惑のかかるやうなことは決してありませんから。トンカチの音を貸してくださるやうお願いします。若い人たちのげんざいの苦悩を書いてみたいと思つてゐるのです。[167]

일반적으로 작가의 말을 그대로 신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분명히 나타난 집필 의도이다. 그러나 소설의 내용은 난해하기만 하다. 당대 청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복원(復員)병의 고민은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나 영문을 알 수 없고, 이러한 질문을 향해 주어지는, 마태

---

167) 太宰治(1979), 「書簡 638, 昭和21年9月30日 保知勇二郎宛」, 『太宰治全集 11』, 筑摩書房, p.340

복음을 인용하는 매우 짧은 답변은 선문답을 떠오르도록 만든다.

서사의 독특함과 불친절한 결말로 인하여 선행연구들 사이에서도 많은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자주 주목받은 것은 앞서 인용한 편지와도 연관된, 집필 당대의 상황이었다. 즉, '옥음방송과 더불어 들려오기 시작한 "타앙탕탕"의 결과 주인공은 '중지'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청년이 편지에서 "게다가 이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말고도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저희들을 위해 가르쳐주십시오."[168]라고 말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겠다. 둘을 결합한다면 "타앙탕탕"은 패전으로 인한 기존 가치와 억압의 붕괴에 따라 넘쳐 나온 소리이며, 작품은 가치 혼란 속 청년들의 허무함과 마비상태를 비유한 것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편지에서 드러나는 주인공 청년의 고민이란, 소리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소리를 멈추게 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 역시 그러하다. 그에게 있어 소리는 순전히 장애물로서만 자리매김한다.

답장에서 이루어지는 작가의 일갈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답장은 "타앙탕탕"으로 말미암아 중지를 일삼는 상황, 일종의 안이한 니힐리즘에 대한 처방이다. 성서의 말을 따랐을 때 느끼게 되는 벽력이 천둥을 동반할 것임을 생각한다면, 자연히 "타앙탕탕"의 소리는 천둥으로 지워지게 되는 것이다. 오오쿠보 쓰네오(大久保典夫)의, "전후의 어중간한 니힐리즘 풍조를 향한 비판"[169]이라는 평가, 최혜수의 "전쟁이 끝난 뒤 지식인들의 관념적 니힐리즘에 대해 반감은 느끼던 다자이가 또 다른 차원의 심정적 허무감을 그려낸 작품이다"[170]라는 작품해설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상의 관점은, 일본의 패전과 전후라는 공간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한 다자이의 연속적 시대 인식을 충분히 그려내고 있지 못한다. 그러므

168) 다자이 오사무(2014), 최혜수 역, 「타앙탕탕」, 『다사이 오사무 전집 8』, 도서출판 b, p. 61.

169) 大久保典夫(1988), 「戦後太宰治の社会観」, 『国文学 : 解釈と鑑賞』 53(6), 至文堂, pp. 67~72(金奈炅(2017), 「太平洋戦争の敗戦による《苦悩》の意味 - 太宰治の「親友交歓」「トカトントン」「女神」を中心に -」, 『일본근대학연구』55, 한국일본근대학회 p233.에서 재인용).

170) 최혜수(2014), 「타앙탕탕 앞머리 해설」, 『다사이 오사무 전집 8』, 도서출판 b, p. 58.

로 본고의 맥락에서는 「타앙탕탕」을 향한 새로운 의미 부여가 필요해진다.

읽기에 따라서는 이 장애물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지적해내는 것 역시 가능하다. 시미즈 히데미(清水秀美)는 그의 논문[171]에서 청년에게 긴장감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편지를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나만 가르쳐주십시오. 난감한 상황입니다"[172], 라거나, "심지어는 몹시 다급한 일입니다"[173]라고 적긴 하였으나, 이어지는 장황한 개인사의 나열, "다자에몬"(太左衛門), "우자에몬"(羽左衛門)의 말장난 등의 지점에서 발견되는 여유와 탈선은 그가 진정으로 곤란한 것인지를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이토 마사오(斎藤理生)는 앞선 비평들과는 다소간의 거리를 두고 웃음이라는 관점에서 「타앙탕탕」에 접근하며 "타앙탕탕"의 은총(恩寵)적인 성격을 주장한다. 그는 작품이 서로 다른 세 화자의 이야기로 이루어졌음에 주목하며, 청년의 편지가 작품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제삼자와 어떤 작가의 답장 양쪽에 의해 상대화됨을 이야기한다. 이어서 사이토는 "타앙탕탕"이 들려오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며 청년이 실제로는 "타앙탕탕"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지적한다. 소리로 인해 청년은 자살을 면하고, 과로를 면하고, 하나에(時田花江)씨라는 수상한 여성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소설 집필을 그만둔 것, 데모나 스포츠에 대한 정열을 포기한 것은 "일시적인 실망이나 환멸"을 가져오기는 하나, 여전히 "그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거나, 생활이 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하는 일이 없었던 것도 사실"[174]이다. 이와 같이 "타앙탕탕"을 은총으로 볼 수 있다면, 은총으로 내려진 "타앙탕탕"에 의한 멈춤은 허무주의와는 무관하다. 더하여 미요시 유키오(三好行雄)는 "'타앙탕탕' 소리는 열중하기 때문에 들려온다"[175]라고 말한다. 실제로 작중 청년이 경험한 "타앙탕탕"은 1945년 8월

171) 清水秀美(2006), 「太宰治『トカトントン』の構造分析ーーその虚構性について」, 『京都教育大学国文学誌』 33, 京都教育大学国文学会(唐雪(2017), 「虚無よりの創造 : 太宰治「トカトントン」論」,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研究論』 17,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에서 재인용).

172) 「타앙탕탕」, p. 59.

173) 「타앙탕탕」, p. 61.

174) 斎藤理生(2017), 「太宰治の小説の〈笑い〉:『トカトントン』を中心に」, 『キリスト教文学研究』 34, 日本キリスト教文学会, p. 20

175) 三好行雄(1980), 「トカトントン作品論への新しい視点」, 『太宰治必携』, 學燈社(斎藤理生

15일 정오[176]부터 1946년 11월 초[177]에 걸쳐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계속되는 멈춤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1년 남짓한 사이에 새로운 몰두, 시도를 멈추지 않은 부지런한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둘을 종합하였을 때, “전후 니힐리즘 풍조에 대한 비판, 혹은 심정적 허무감”이라는 「타앙탕탕」 독해는 철저한 재고를 요구받는다.

“타앙탕탕”이 은총으로서 자리한다는 사이토의 의견을 채택하여 새로운 독해를 시도해보자. “타앙탕탕”이 은총이라면, 우리는 은총의 목적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젊은이들의 현재의 고뇌”를 그리겠다는 이번 절 첫머리에 인용한 다자이의 서신 속 의지에 발을 디디면, 거대한 흐름 아래에 개인이 눌려있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개별적 존재의 가능성을 위한 다자이 오사무의 답안으로서 은총 “타앙탕탕”을 상상할 수 있다. “타앙탕탕”이 들려오는 장면마다 욕망과 허영, 그리고 속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아래의 부분을 살펴보자.

> “들었나? 알겠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항복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일이다. 우리 군인은, 언제까지고 대항전을 계속하여, 마지막에는 한 명도 남김없이 자결하고 그로써 천황 폐하께 용서를 빌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있었으니, 자네들도 그런 각오로 있도록. 알겠나? 좋다. 해산.”
>
> 그렇게 말한 뒤, 그 젊은 중위는 단 아래로 내려가 안경을 벗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걸었습니다. 엄숙이란,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똑바로 서 있었는데, 주위가 자욱이 어두워지더니,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제 몸이 자연히 땅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
> 죽자고 생각했습니다. …
>
> 아아, 그때였습니다. 등 뒤의 병영 쪽에서, 타앙탕탕 하고 누군가가 쇠망치로 못을 박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진다는 건 그런 느

(2017)에서 재인용)

176) '옥음방송'

177) 1946년 11월 3일 일본국 헌법 공포

낌을 말하는 걸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비장함과 엄숙함이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한테 들렸던 귀신이 떨어져나간 것처럼 멍해져서 아무것도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여름철 대낮의 모래벌판을 바라보았는데, 제겐 아무런 감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낭 속에 많은 물건을 쑤셔 넣고 멍하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멀리서 들려왔던 어렴풋한 쇠망치 소리 덕분에, 저는 이상하리만치 깔끔하게 밀리터리즘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178]

「聞いたか。わかったか。日本はポツダム宣言を受諾し、降参をしたのだ。しかし、それは政治上の事だ。われわれ軍人は、あく迄も抗戦をつづけ、最後には皆ひとり残らず自決して、以て大君におわびを申し上げる。自分はもとよりそのつもりでいるのだから、皆もその覚悟をして居れ。いいか。よし。解散」

そう言って、その若い中尉は壇から降りて眼鏡をはずし、歩きながらぽたぽた涙を落しました。厳粛とは、あのような感じを言うのでしょうか。私はつっ立ったまま、あたりがもやもやと暗くなり、どこからともなく、つめたい風が吹いて来て、そうして私のからだが自然に地の底へ沈んで行くように感じました。

死のうと思いました。…

ああ、その時です。背後の兵舎のほうから、誰やら金槌で釘を打つ音が、幽かに、トカトントンと聞えました。それを聞いたとたんに、眼から鱗うろこが落ちるとはあんな時の感じを言うのでしょうか、悲壮も厳粛も一瞬のうちに消え、私は憑つきものから離れたように、きょろりとなり、なんともどうにも白々しい気持で、夏の真昼の砂原を眺め見渡し、私には如何いかなる感慨も、何も一つも有りませんでした。

そうして私は、リュックサックにたくさんのものをつめ込んで、ぼんやり故郷に帰還しました。

あの、遠くから聞えて来た幽かな、金槌の音が、不思議なくらい綺麗きれいに私からミリタリズムの幻影を剥はぎとってくれて[179]

178)「타앙탕탕」, p. 63
179) 太宰治(1989),「トカトントン」,『太宰治全集 8』. 東京: 筑摩書房, pp. 372-373

중위의 항복을 향한 시선은 주목할만하다. 실제로, 8월 15일은 가시적인 정치 구조의 몰락을 가져온 날이었을 뿐, 전시의 가치를 단숨에 무너뜨린 날은 아니었다. 서론에서 검토한 다자이의 '전후'를 향한 자세를 고려한다면, 중위의 발언은 단순한 군국주의적 사고를 넘어, 모든 것을 새로이 시작하며 앞선 시기를 가리어버리는 전후 공간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이러한 중위의 말에 감명받은 청년은 자신을 그대로 전시의 가치인 군국주의에 맡기려고 하나, 망치 소리는 그를 방해한다. 그러나 방해는 연속적 세계관의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다. 군대를 떠나는 청년은 배낭에 많은 물건을 쑤셔 넣고 길을 떠난다. 아마도 그것은 군 생활과 얽힌 많은 물건, 때로는 보급품이기도 할 것이다. 나아가 그가 도착하는 곳은 원래부터 살던 고향이다. 망치 소리에 의하여, 청년은 전시의 경험과 유산을 껴안고, 과거의 맥락으로 돌아가 전후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중위의 말을 따랐다면 멈췄을 전시는, 오히려 "타앙탕탕"에 의해 그 잔향을 청년에게 남긴 채 이어진다.

다음으로 들려오는 "타앙탕탕"은 허세스러운 집필활동으로부터 청년을 해방한다. 군 생활의 추억담으로 백 장 정도를 쓰고 완성을 앞둔 순간 들려오는 소리에, 청년은 자신의 글을 살펴보게 된다. 다시 본 글은 너무나 시시한 이야기였으며 이를 계기로 그는 글을 쓰지 않게 된다. 절필을 긍정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이후 그의 행동이 읽기로 옮겨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큰아버지 댁에는 적으나마 장서가 있어서, 가끔 메이지 다이쇼시대의 걸작소설집 따위를 빌려 읽고, 감탄하기도 하고, 감탄하지 않기도 하고, 무척이나 불성실한 태도로,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일찍 자고, 전혀 '정신적'이지 못한 생활을 했는데, 그러는 동안 세계 미술 전집 따위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프랑스 인상파 그림에는 그렇게까지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지만, 일본 겐로쿠시대의 오가타 고린과 오가타 겐잔, 이 두 명의 작품이 가장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고린의 철쭉 같은 것은, 셀린느, 모네, 고갱 등의 그림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또다시 차츰, 이른바 저의 정신생활이 되살아나

는가 싶었지만, 저 스스로가 고린, 겐잔 같은 대가가 되겠다는 엄청난 야심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촌구석의 딜레탕트이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기껏해야 아침부터 밤까지 우체국 창구에 앉아 다른 사람의 지폐를 세는 일 정도지만, 저처럼 무능하고 무식한 인간에게는, 그런 생활도 반드시 타락한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겸손의 왕관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고, 평범한 하루하루의 업무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정신생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씩 저의 평소 생활에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180]

伯父のところに、わずかながら蔵書がありますので、時たま明治大正の傑作小説集など借りて読み、感心したり、感心しなかったり、甚だふまじめな態度で吹雪の夜は早寝という事になり、まったく「精神的」でない生活をして、そのうちに、世界美術全集などを見て、以前あんなに好きだったフランスの印象派の画には、さほど感心せず、このたびは日本の元禄時代の尾形光琳と尾形乾山と二人の仕事に一ばん眼をみはりました。光琳の躑躅などは、セザンヌ、モネー、ゴーギャン、誰の画よりも、すぐれていると思われました。こうしてまた、だんだん私の所謂精神生活が、息を吹きかえして来たようで、けれどもさすがに自分が光琳、乾山のような名家になろうなどという大それた野心を起す事はなく、まあ片田舎のディレッタント、そうして自分に出来る精一ぱいの仕事は、朝から晩まで郵便局の窓口に坐って、他人の紙幣をかぞえている事、せいぜいそれくらいのところだが、私のような無能無学の人間には、そんな生活だって、あながち堕落の生活ではあるまい。謙譲の王冠というものも、有るかも知れぬ。平凡な日々の業務に精励するという事こそ最も高尚な精神生活かも知れない。などと少しずつ自分の日々の暮しにプライドを持ちはじめて、[181]

소리로 인한 중지는, 단순한 중지 이상이다. 소리 이후에도 청년은 계속하여 읽고, 예술적 소양을 쌓는다. 데카당스의 퇴폐가, 축적에 의한 발현으로서 연속적인 관점에서는 맹아기였듯, 그의 정지가 영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다자이가 「12월 8일」 등에서 주체성 없는 일체화, 혹은 주체성

180) 「타앙탕탕」, pp. 64-65.
181) 「トカトントン」, pp. 375-376.

없는 표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음을 의식한다면, 출판 붐, 혹은 사회적 분위기에 압도되어 즉흥적으로 쓰기 시작한 청년의 회고록이란 완성되었다고 한들 얼마나 의미 있는 글쓰기로 결실을 보일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서로 비교하기 쉽지 않을 프랑스 인상파 그림과 겐로쿠시대 일본화를 함께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된 청년의 상황에서 엿보이듯, 집필을 멈추게 한 소리는 자신만의 시대 감각을 쌓을 수 있는 근거의 축적을 유도한 것이다.

이어서 청년은 의식 없는 과로에 빠진다. "수면 부족으로 충혈된 눈을 가늘게"[182] 뜨는 상황에서도 청년은 노동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는 청년이 노동하는 것이 아닌, 노동이 청년을 집어삼킨 것으로, 일본제국기 발견되었던 주체의식 없는 몰입상태를 떠오르게 만든다. "타앙탕탕"은 청년을 해방시키며 과로를 해소시키는데, 그 결과 청년은 "보통의 창구 직원"[183]이 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는 그가 다음 경험으로 넘어가게끔 해준다.

이제 청년은 도키다 하나에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다. 이유는 서술되지 않는다. 통장에 수상할 정도로 큰 금액을 찍어 넣을 때마다 그녀의 매춘을 의심하며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낀다. 사랑 이전에 집착의 형태를 띤 욕망이 먼저 성립된 형태이다. 이러한 집착은 한편으로 남성들의 여성 소유를 상상하도록 만든다. 총력전 체제는 온 국민을 동원하였다. 동원령은 해제되어 과거의 남성 군인들은 원래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일본군의 '위안'을 위해 동원되었던 성노예제의 존재는 그 위치를 기묘하게 바꾸어 유지되었다.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会,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소수의 여성들을 모집해서 '선한' 일본 여성들을 지키는 방파제로 삼는다"[184]는 명분 아래에 일본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여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182) 「타앙탕탕」, p. 65
183) 「타앙탕탕」, p. 65
184) 존 다우어(2009), p. 150.

그러한 현실의 근저에 위치하던 사상은 당시 대장성에서 특수위안시설협회의 지원을 맡았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의 언설, “이 정도의 돈으로 일본 부녀자의 정조를 지킬 수 있다면 싼 것이다”(これだけの金で日本婦女子の貞操が守られるならは安い)[185],에 노골적으로 드러난다.[186]

그녀의 내면은 알 수 없지만, 청년은 자신의 집착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몰입이 완성되려는 순간, “타앙탕탕”이 들려오며 하나에씨의 이미지는 개똥으로 대체된다. 이후 청년은 하나에씨를 향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

현상 유지의 삶을 이어오던 청년은, 1946년 6월, 아오모리에서 노동자들의 데모를 목격한다. 지금까지 시국에 별다른 흥미를 갖지 않았던 그는 행진의 이미지에 감명을 받아, 이를 진정한 자유의 모습으로 인식하게 된다.

> 생기발랄하다고나 할까요? 어쩜 그리도 즐겁게 행진을 할까요? 저는 그들에게서, 우울한 기색이나 비굴한 주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넘치는 활력뿐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들도 손에 깃발을 들고 노동가를 불렀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아아, 일본이 전쟁에 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 운동과 사회 운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습이라면, 인간은 우선 정치사상과 사회사상을 가장 중시하며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187]

> 生々溌剌、とでも言っ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なんとまあ、楽しそうな行進なのでしょう。憂鬱の影も卑屈の皺も、私は一つも見出す事が出来ませんでした。伸

185) 川島高峰(1998), 「被占領心理」, 『日本思想の地平と水脈: 河原宏教授古稀記念論文集』, 東京: ぺりかん社.

186) RAA를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는 川島高峰(1998), 「被占領心理」, 『日本思想の地平と水脈: 河原宏教授古稀記念論文集』, 東京: ぺりかん社 및 존 다우어(2009), 최은석 역,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를 참고할 수 있으며, 문학장에서의 RAA에 대하여는 Michael S Molasky(1999),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and Okinawa: literature and memory,* New York: Routledge, 107-135.를 참고할 수 있다.

187) 「타앙탕탕」, p. 73.

びて行く活力だけです。若い女のひとたちも、手に旗を持って労働歌を歌い、私は胸が一ぱいになり、涙が出ました。ああ、日本が戦争に負けて、よかったのだと思いました。生れてはじめて、真の自由というものの姿を見た、と思いました。もしこれが、政治運動や社会運動から生れた子だとしたなら、人間はまず政治思想、社会思想をこそ第一に学ぶべきだと思いました。188)

이어 "어스름한 풍경 속에 진홍빛 깃발이 타오르는 모습을, 아아, 그 빛깔을 훌쩍훌쩍 울면서, 죽어도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189) 순간, 들려오는 "타앙탕탕" 소리에 청년의 모든 감동은 사라진다. 그가 감동에 빠지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비록 그 방향성은 다를지언정, 그가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자신을 동화시키는 모습은 전시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망치 소리가 청년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두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이 역전마라톤을 보고 스포츠를 하며 무보수의 행위와 허무의 정열에 빠지려 할 때, 소리는 다시 일어나 이것마저도 부수는 것이다.

이후 소리는 점차 자주 들려오게 된다. 청년은 소리가 자신의 거의 모든 행동을 막는 것처럼 느낀다. 신문에 실린 새 헌법을 읽을 때도, 외삼촌의 우체국 인사이동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편지를 받을 모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도, 과음할 때도, 심지어 자살하려 할 때도 소리가 들려와 멈추게 된다.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꾸준히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며, 따라서 청년은 소리를 도저히 풀 수 없는 장애물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청년을 구원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타앙탕탕"하는 망치 소리는 말 그대로 청년을 자살에서 구하였고, 구습으로부터 구하였으며, 전후의 열광적인 분위기 한가운데서 "살도록" 만들었다. 소리는 그를 개인으로 만들었고, 유지하도록 했다. 소리를 겪은 그는 읽고, 느끼고, 생각하고, 스스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폐」에서 지적되

188) 「トカトントン」, p. 385.
189) 「타앙탕탕」, p. 74.

었던, 일본을 망하게 한 욕망과 허영은 청년을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이 어찌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소리이다. 소리에 "고통받는", 당대의 일반적인 젊은이의 이미지에도 가까운, 청년은 모 작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담은 편지를 보낸다.

소리에서 벗어날 방법을 묻는 편지는 집배원과도 비슷한 제삼자의 손을 거친다. 기나긴 편지를 보낼 때, 배달부의 흔적은 봉투의 우표와 그 소인에만 남듯, 짧은 문장이 연결부에 쓰여있다. 그러나 평범한 집배원과는 달리 제삼자는 청년의 편지를 기이한 것으로, 모 작가를 무학무사상으로 평가하며 작품에 살며시 관여한다.

작가에게 보내진 기나긴 편지에 대하여 쓰인 답장은 명백히 짧으나, 난해하기는 매한가지이다. "무학무사상의 작가"라는 연결부의 서술은 모 작가가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의심을 품게도 만든다. 하지만, 답신 속 확신에 찬 말투는 답장의 의미를 찾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모 작가는 신랄한 말투로, 청년이 명명백백한 추태를 피하고 있다며 지적한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190]을 인용하며, 이 내용을 통해 벽력(霹靂)[191]을 느낄 수 있다면 환청이 그칠 것이라고 말한다.

난해한 답장이지만, 일차적인 수준의 통전적 시점과 연결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남에 맞추어 소란스럽게 일어난 세상의 소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기에 전쟁 후가 되어서야 일어날 수 있는 소리일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근거로 삼아 일관되게 나오는 소리는, 혹은 나오지 못하는 소리는 오직 몸과 영혼 모두를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에게 달려 있을 터이다. "타앙탕탕" 소리는 모두 자신의 내부를 충분

190)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모두를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191) 「타앙탕탕」, p. 77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원어는 벽력(霹靂)이다. 작품의 주된 소재가 "타앙탕탕"하는 소리임을 생각한다면 천둥번개를 의미하는 벽력은 원어의 모양새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히 근거로 삼지 못한 장면에서 들려왔다. 기나긴 편지에 거짓말만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타앙탕탕이라는 소리만큼은, 거짓말이 아닌 듯”[192]하다는 부분을 통하여 “타앙탕탕”의 실재성을 확보하고, 구조를 깨닫는다면, 자연히 소리는 들려오지 않게 될 것이다.

「타앙탕탕」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과연 작가의 답장은 청년에게 닿을 것인가. 물리적으로는, 청년이 답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닿을지는 의문이다.

첫째로, 마태복음에 의존하는 답장의 복잡성 때문이다. 다자이가 무교회주의로 성서에 접근하였으며, 기의로서의 성서 활용보다는 기표로서의 성서 활용이 눈에 띄었다는 점[193]을 고려한다면 인용된 성서 구절의 무게는 절대적이기보다는 차라리 「12월 8일」 중 남편의 말로 드러난 “신앙”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구의 이해는 외부의 특정한 절대자를 상정한 독해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본문에의 천착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자이와 분리된 모 작가의 짧은 답장이 얼마만큼의 맥락(context)을 청년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던져주고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둘째로, 작가를 향한 제삼자의 강력한 불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무학무사상으로 불리는 사람의 말이 듣는이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가청(不可聽)성은 시대 속 다자이의 무력함과도 닮아있다. 다자이의 시대를 향한 목소리는 그의 생애 동안 읽히지 않았고, 그의 사후에는 신화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사로 매몰되었다. 따라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작가의 답장은 한 무더기의 불평으로 읽히기 쉬울 것이다.

---

192) 「타앙탕탕」, p. 77.

193) 윤명로는 다자이가 “성서를 복음적으로 읽지 못했”다고 주장(윤명로(2005), 「太宰治와 聖書」, 『日本語教育』 (33), p.145)하였으며, 다나카 요시히코(田中良彦)는 다자이는 자신의 “문학을 성서에 기대어, 기성의 것, 이 세상의 권위있는 것에 대항하는 의미를 갖도록 만들었다”라고 논한 바 있다.(田中良彦(1995), 「聖書」, 『太宰治作品研究事典』(神谷忠孝·安藤宏編), 東京: 勉誠社, pp. 204).

「타앙탕탕」은 앞선 다자이의 발걸음을 이어받아 온전한 전후에 섰다. 그러나 다자이의 전후는 전전을 안고 있었으며, 개인을 압도하는 동시에 개인이 스스로를 의탁하는 제국, 사회의 분위기로 그 모습을 달리할 뿐이었다. 다자이는 자신이 바라본 사회에의 처방으로 “타앙탕탕”의 소리를 내려 개인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지 풀어낸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러한 자립에의 처방이 효과적일지, 다른 사람에게 닿을지는 의문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일본 '전후' 개념의 가치적 성격,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한 '전후문학'에 주목하여, 해당 가치관이 담지 못하는 상(像)을 포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전후'를 보충할 수 있는 통전사 개념의 검토에서 출발하여 1940년대 일본 문학에의 적용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자이 오사무의 1940년대 단편을 통하여 통전문학의 가능성을 보이고자 했다. 타 분야에서의 통전적 시도에 유의하며, 독해 과정에서는 대상 작품들의 특징이기도 한 일상성에 주목하였고, 알프 뢰트케의 일상사 개념, 레비나스적인 주체의 개념 등을 활용하여 통전성의 렌즈를 통하였을 때 비로소 표현될 수 있는 당대의 모습들을 조명해보았다.

1940년대 초반, 즉 전시 다자이의 작품들에서는 개인 그리고 주체를 세우는 일에 관한 관심이 드러났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모호함이 눈에 띄었다. 시국에 의한 국책의 배경을 지닌 「12월 8일」, 「동경 소식」은 바깥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에 비판적인 시선을 투사하되, 제국을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제국에 단순히 지배되기보다는 제국마저도 전유할 수 있는 주체의 구축에 가까웠으며, 특히 「석별」에 드러나듯 제국일본이 정체성을 주장하는 방식 중 하나였던 선천적인 권위와 선천적인 연대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12월 8일」에 나오는 제국의 열렬한 지지자인 부인은 작품 끝머리의 길 잃음에서 제국일본에 의해 구원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몰아넣은 것이 바로 전쟁에 돌입한 제국이었다. 그녀를 도우러 나타난 것은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고 나아가 천황과 제국까지 전유하였던 남편이었다. 「동경 소식」에서 주인공인 작가의 전쟁협력은 무력하게 표현되는 한편 대조적으로 근로동원에 나선 한 소녀는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처음에는 혈통에 근거한 선

천적인 고귀함으로 이유를 돌리려 하였으나, 실상은 동원을 계기로 삼은 주체적 자아의 회복에 그 이유가 있었다. 「석별」은 '아직' 루쉰에 다다르지 않은 저우수런이라는 '지나'사람이 중국과 일본의 아시아적 연관을 근거로 일본에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작중에서 다발하는 '대동아 공영'의 이념들은 현실의 교류 차원에서 가능성을 부정당하였다. 주인공, 저우수런, 후지노 선생의 교류는 선천적인 동양의 연대가 아닌, 언어를 통해 나누어지는 위계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는 소위 '대동아'의 이상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양상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제국에 갇히지 않는 등장인물들의 움직임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초반 다자이의 소설에서는 개인을 세우기 위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에 대한 암시, 혹은 제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전쟁이 일단락된 후 발간된 「화폐」, 「타앙탕탕」등의 단편에서는 전시 작품에서 읽어낼 수 있었던 문제의식에 대한 메시지를 해결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내었다. 「화폐」의 경우 「12월 8일」과 구조적으로 비슷하였으나, 구원의 주체가 작부로 옮겨갔기에 구원의 양상이 선명하게 변하였으며, 작부의 발화가 세밀하게 표현되었기에 전시의 주체적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 어떠하였는지, 제국과 어떠한 관계를 지녔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제국의 궐석판결[194]적인 한계가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로 삼을 수 있었다. 「타앙탕탕」은 그 어느 작품보다도 전후를 바라보는 메시지로 쓰였다. 전전으로부터 이어지는 동시에 전후에도 평범하게 유지되는 바깥의 망을 향한 압도와 의탁의 문제를 그리며, 그러한 문제로부터 개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원으로서의 소리를 내려주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결말부 "무학무사상"으로 묘사되는 작가의 말을 고려한다면 메시지는 청년에게 닿기 힘들 듯하며, 다자이가 선택한 이상의 구조는 자신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활발한 전후 세상에의 아쉬움이자, 자신 없음의 표현으로도 보인다.

194) 레비나스의 궐석재판. 본고 p.71의 각주 163) 참조.

본 연구에서의 다자이 오사무 1940년대 작품 분석을 통하여, 통전문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자이의 문학에 그려진 인물들은 전시, 그리고 전후라는 흐름에 영향을 받을 뿐 전복하거나 이끌 수 없다는 점에서 혁명가나 영웅과는 거리를 둔 존재였지만, 동시에 개인사를 지닌 존재들이었다. 많은 경우 인물들은 동원체제 속에서 자신을 제국에 의탁하였으나 어떤 인물은 체제에 순응하는 동시에 체제를 전유하며 자신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순응과 전유는 헌신과 이용이라는 양극단에 서 있기에 모순으로 보이나 일상사의 연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우리 삶의 보편적인 양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자이의 전시, 전후문학에 공통으로 나타난, 개인을 압도하는 사회 속 개(個)의 발견을 레비나스적인 동일자 구축의 선상에 놓는다면, 주체성과 개인을 중심으로 한 통전적 시도는 기존 문학 연구에 추가적인 레이어로 작용할 것이다. 이후의 연구를 통한 통전문학의 마련이 개인의 포기와 외부에의 의탁으로 발생하는 넓은 문제를 논하는 틀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대상 텍스트

다자이 오사무(2012-2014),『다자이 오사무 전집 1-10』, 도서출판 b.

太宰治(1989),『太宰治全集 全10巻』, 東京: 筑摩書房.

太宰治(1978-1979),『太宰治全集 筑摩全集類聚 全13冊揃』, 東京: 筑摩書房.

자료

노신(1994),「등야선생」,『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도서출판 창.

루쉰(2010),『루쉰 전집 1』,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그린비.

厚生労働省(2002),「全国戦没者追悼式について」, 東京: 厚生労働省.

参議院厚生委員会専門員室(1952),「全国戦没者追悼式の実施に関する件」,『厚生情報』4(5), 東京:参議院厚生委員会専門員室.

内閣官房(1982),「「戦没者を追悼し平和を祈念する日」について」,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M0000000000001159147.

日本文学報国会(1995),『復刻板,文学報国 : 第1号 ~ 第48号』, 山内祥史 編, 東京: 不二出版.

von Weizsäcker, Richard(1985), “Speech by Federal President Richard von Weizsäcker during the Ceremony Commemo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ar in Europe and of National-Socialist Tyranny on 8 May 1985 at the Bundestag, Bonn”, translated in English by Bundespräsidialamt, https://www.bundespraesident.de/SharedDocs/Reden/DE/Ric

hard-von-Weizsaecker/Reden/1985/05/19850508_Rede.html.

논저

강상중(2004), 임성모 역,『내셔널리즘』, 이산.

강영안(2005),『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고모리 요이치(2003), 송태욱 역,『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 뿌리와 이파리.

권숙인(2013),「전후 천황제와 젠더」,『일본비평』(9), pp. 18-55.

김경숙(2015),「다자이 오사무의 문학작품에 보이는 탈중심화 - 전시체제하의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54, 동아시아일본학회, pp. 5-24.

金奈炅(2017),「太平洋戦争の敗戦による《苦悩》の意味 - 太宰治の「親友交歓」「トカトントン」「女神」を中心に -」,『일본근대학연구』 55, 한국일본근대학회, pp. 223-238.

김명인(2018),「문학사 서술은 불가능한가-정치적실천으로서의 민족문학사/쓰기를 위하여」,『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 소명출판, pp.107-133.

김용철(2015),「중일 ·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재조명」,『일본비평』Vol.1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176-199.

나카노 도시오(2005), 서민교·정애영 역,『오쓰카 히사오와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의 총력전 체제와 전후 민주주의 사상-』, 삼인.

나카무라 마사노리(2006), 유재연,·이종욱 역,『일본 전후사 1945~2005』, 논형.

다카하시 토시오(2014),「'쇼와'라고 하는 투쟁 상태 -1월 7일의『인간실격』」,『다카하시 토시오 문예비평선집』, 곽형덕 역, 글누림, pp. 229-240.

李智賢(2015),「戦時下の太宰小説に描かれる疎外者と共感意識 -『東京だより』·『作家の手帖』における〈産業戦士〉を軸に-」,『日本研究』(63), 韓國

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硏究센터 日本硏究所, pp. 291-309.
서광덕(2018),『루쉰과 동아시아 근대』, 산지니.
서동욱(2000),『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서동주(2013),「'새로운 전쟁'과 문학적 자유주의의 행방 -〈근대문학〉을 둘러싼 사상 공간」,『전후 일본의 지식 풍경-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 4』(장인성 편), 박문사, pp. 25-57.
알프 튀르케 외(2002), 이동기 외 역,『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알프 튀르케(2006),「일상사 - 중간보고」,『일상사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책과함께, pp. 41-75.
앤드루 고든(2015), 문현숙,김우영 역,『현대 일본의 역사2 도쿠가와 시대에서 현대까지』, 도서출판 이산.
에마뉘엘 레비나스(2020), 김도형·문성원 역,『타자성과 초월』, 그린비
_____(2018),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오구마 에이지(2019), 조성은 역,『민주와 애국』, 돌베개.
_____(2003), 조현설 역,『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오사와 마사치(2010), 서동주·권희주·홍윤표 역,『전후 일본의 사상공간』, 어문학사.
오쿠 다케노리(2011), 송석원 역,『논단의 전후사, 한림대학교 일본학총서 96』, 도서출판 소화.
유숙자(2008),『자화상의 작가, 다자이 오사무』, 살림출판사.
윤명로(2005),「太宰治와 聖書」,『日本語教育』(33), pp.129-148
이요타니 도시오(2010), 김지연 역,「야마노우치 야스시 · V.코슈먼 · 나리타 류이치 엮음,『총력전과 현대화』」,『내셔널리즘론의 명저 50』, 일조각, pp. 462-472.
이유재, 이상록(2006),「프롤로그, 국경 넘는 일상사」,『일상사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책과함께, pp. 11-39.
정지희(2016),「사실로서의 역사와 역사적 진실 —전후와 포스트 전후 일본

의 ‘태평양 전쟁’사 다시 쓰기와 진실의 정치—」,『동아시아문화연구』65,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p. 181~213.
존 다우어(2009), 최은석 역,『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채숙향(2007), 「태재치(太宰治)의『석별(惜別)』론 -인물 구도를 통한 정치성의 탈락-」, 『한일군사문화연구』 5, 한일군사문화학회, pp. 251~266.
채숙향(2008),『다자이 오사무(太宰治)후기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카또오 노리히로(1998), 서은혜 역, 「패전후론」,『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창작과 비평사.
한수영(2015),『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호쇼 마사오 외(1998), 고재석 역,『일본 현대 문학사 상』, 문학과 지성사.
홍명희(2015),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국책소설〉과 루쉰(魯迅) -『석별(惜別)』에서 〈나(私)〉에 의해 회상되는 ‘저우 씨(周さん)’ -」,『일본어문학』70, 일본어문학회, pp. 383-406.
홍명희(2018).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문학에 나타난 전후 일본의 사회상 - 전후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다자이 신화’와 관련하여-」,『일본어문학』82, 일본어문학회, pp. 473-492.
홍수경(2006), 「"총력전체제"론의 이해를 위하여: 야마노우치 야스시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학림』 27, 연세사학연구회, pp. 93-115.

安藤宏(2019), 「太宰治と現代——「自己の内なる天皇制」をめぐって」, 『永遠の太宰治』, 東京: 河出書房新社, pp.80-87.
内海紀子, 小澤純, 平浩一(2019),『太宰治と戦争』, 東京: ひつじ書房.
大原祐治(2006),『文学的記憶・一九四○年前後 昭和期文学と戦争の記憶』, 東京: 翰林書房.
大久保純一郎(1943),『文化統制の研究』, 東京: 東洋書館.

奥出健(1995),「『十二月八日』」,『太宰治作品研究事典』(神谷忠孝·安藤宏 編), 東京: 勉誠社, pp. 125-126.
奥野健男(1984),『太宰治論』, 東京: 新潮社.
_____(1977),『日本文学史』, 東京: 中央公論社.
_____編(1975),『文芸読本,太宰治』, 東京: 河出書房新社.
小熊英二(1995),『単一民族国家の神話』, 東京: 新曜社.
尾崎秀樹(1965),「戦時下の文化統制と文学報国会の動き」,『國文學 : 解釈と教材の研究』10(7), 學燈社, pp. 49-54.
上泉秀信(1943),『文化のこころ』, 東京: 翼賛出版協会.
権錫永(2002),「アジア太平洋戦争期における意味をめぐる闘争 (3) : 太宰治「散華」・「東京だより」」,『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紀要』 106,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 pp. 61-79.
---(1995),「『東京だより』」,『太宰治作品研究事典』(神谷忠孝·安藤宏 編), 東京: 勉誠社, p. 202.
紅野謙介(2013),「太平洋戦争前後の時代-戦中から占領期への連続と非連続」,『コレクション戦争と文学 別巻〈戦争と文学〉案内』, 東京: 集英社, pp. 81-102.
小森陽一(2003),『天皇の玉音放送』, 東京: 五月書房.
斎藤理生(2017),「太宰治の小説の〈笑い〉:『トカトントン』を中心に」,『キリスト教文学研究』34, 日本キリスト教文学会, pp. 17-27.
逆井聡人(2018),『<焼跡>の戦後空間論』, 東京: 青弓社.
佐藤卓己(2005),『八月十五日の神話 —終戦記念日のメディア学』, 東京: 筑摩書房.
志村有弘, 渡部芳紀 編(2005),『太宰治大事典』, 東京: 勉誠出版.
瀬沼茂樹(1965),「戦後文学史論」,『國文學 : 解釈と教材の研究-特集:戦後の文学-』10(13), 學燈社, pp. 8-13.
-----(1963),「戦後派文学の系譜」,『文学』 31(11), 岩波書店. pp. 1179~1189.

田中良彦(1995), 「聖書」, 『太宰治作品研究事典』(神谷忠孝·安藤宏 編), 東京: 勉誠社, pp. 203-205.

東郷克美(1995), 「天皇·エロス·死」, 『シンポジウム:太宰治その終戦を挟む思想の転位』, 東京: 双文社出版, pp. 46-68.

唐雪(2017), 「虚無よりの創造 : 太宰治「トカトントン」論」,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研究論』 17,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 pp. 31-43.

野口尚志(2016), 「一九四二年九月-一二月 〈思想戦〉の中の「花火」」, 『太宰治スタディーズ』 6, 「太宰治スタディーズ」の会, pp. 16-19.

久松潛一 編(1981), 『日本文学史 : 近代 II』, 東京: 至文堂.

平浩一(2016), 「一九四一年一二月-一九四二年四月 「開戦」と文学 : 〈連続/切断〉の問題」, 『太宰治スタディーズ』 6, pp. 8-11.

本多秋五(1966), 『物語戦後文学史(全)』, 東京: 新潮社.

前田角藏(2017), 「太宰治「トカトントン」論 --戦後のうつの〈闇〉--」, 『近代文学研究』 30, 日本文学協会近代部会, pp. 1-18.

山之内靖, ヴィクター·コシュマン, 成田龍一 編(1995), 『総力戦と現代化』, 東京: 柏書房.

山内祥史(1995), 「解題」, 『文学報国 : 第1号 ~ 第48号, 復刻版』, 東京: 不二出版, pp. 3-6.

_____(1980), 「太宰治研究史」, 『太宰治必携』(三好行雄 編), 東京: 學燈社, pp. 207-214.

尹相仁(2010), 『世紀末と漱石』, 東京: 岩波書店.

吉見義明(1987), 『草の根のファシズム』,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渡部芳紀(2006), 『NHKカルチャーアワー·文学探訪·太宰治』, 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Gordon, Andrew(2000), "Society and Politics from Transwar through Postwar Japan" In *Histor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East As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72-296.
Gordon, Andrew(2007), "Consumption, Leisure and the Middle Class in Transwar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0(1), pp. 1-21.
Molasky, Michael S.(1999),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and Okinawa, New York, NY: Routledge.
Shirane et al.,(2016),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ed. by Haruo Shirane, Tomi Suzuki, David Lurie).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ranswar Literature of Japan: Focused on the Works of Dazai Osamu in the 1940s

JANG Hong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dissertation aims to show the possibility of Transwar literature, focusing on the *Sengo* (Postwar) as a value, and the society which is not depicted by *Sengo Bungaku* (Postwar Literature).

For the purpose of the above, I tried to find a way of reading literature that connects wartime and postwar,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contrition (悔恨) toward wartime formed during "*Sengo*" which looks over the existence of individual and subjectivity during the war. My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Transwar reading of 1940's Japanese literature by utilizing studies of Transwar from different fields, such as sociology, history, and intellectual history, and proceeded to overcome the structure of contrition applying the viewpoint of

Alltagsgeschichte (the history of the everyday). As a result, the 1940s' works of Dazai Osamu (太宰 治) became the main subject of this dissertation as they show depictions of everyday life and consistency which penetrates wartime and postwar.

In this study, I read "Jyūnigatsu Yōka" 十二月八日 (Feb. 1942) which depicts a landscape of middle-class family in the metropole Japan on the 8th of December when the war of the Japanese Empire escalated into the Asia-Pacific War, "TōKyō Dayori" 東京だより (Aug. 1944) a story of a witnessing a girl who was working at a factory due to mobilization of labor services at the final years of the war, "Sekibetsu" 惜別 (Sep. 1945) on the days of studying in Japan of Lu Xun (魯迅), "Kahei" 貨幣 (Feb. 1946) which depicts the wartime from the viewpoint of a 100 yen note, and "Tokatonton" トカトントン (Jan. 1947) about a demobilized young man who is suffering the sound of hammering. I divided these stories into two, one is "the works of Dazai Osamu 'of the Japanese Empire'" and another is "the works of Dazai Osamu of self-reliance." The first three works belong to the former, and the other two belong to the latter.

The works above, which are related to everyday life, are conscious of the possibilities of individuals and subjectivity regardless of their era written. But the way it is expressed is somewhat different. The works of Dazai Osamu "of the Japanese Empire" use the empire as a possibility of the subject. In "Jyūnigatsu Yōka," the husband, who appears like a savior, appropriates even the emperor and the empire and decontextualize them. In "TōKyō Dayori," the speaker looks at a handicapped woman, who was given a chance to work by the

mobilization, and sees beauty in her. In “Sekibetsu,” the possibility of Asia’s independence through the Japanese Empire is presented. However, this is suggested in parallel with the denial of the unconditional devotion or innate possibility of integration to the Japanese Empire.

In the works of Dazai Osamu of self-reliance, the limitation of the Japanese Empires as an instrument of relying on building one’s subjectivity or values, or as a substitute for the absence of subjectivity becomes clear. The main character of “Kahei”, a barmaid of a tavern, is a petty-bourgeois who hopes for the victory of the empire. But her actions are not confined to the Empire. As she has a face it is possible for her to see other’s faces in the Levinasian way. Therefore, she is able to willingly save the soldier who humiliated her and might not contribute to the victory of the country. Her behavior is contagious, and as a result, the saved soldier also helps the baby in the end. "Tokatonton" is an integration of the Dazai’s concerns towards individual and subjectivity. The work consists of a letter from a young man, who just became demobilized and hears sounds of hammering when he tries to immerse himself in something, and a reply from a writer. The wartime legacies, the postwar atmosphere that makes him immersed, are all stopped by the sound of the hammering. What the hammering sounds allow the young man to do is to build his identity from the inside of him and to challenge something new continuously. A writer answers with a reply full of confidence, but also in puzzling sentences, to a young man who wants to stop the sound. However, considering the unamiable attitude of the writer and the narrator's depictions

toward him, “a person who lacked both reason and educ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ply would reach the young man or the readers. At the same time, it seems to be a self-portrait of Dazai, who could not convey his ideologies to people.

If we focus on three things, such as society or nation that overwhelms individual, the advent of a subject by the interaction with domin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l basis for subjectivity, it would be able to overcome the dichotomous inertia in *Sengo*, *Sengo Bungak* or 1940’s literature of Japan, which have been often depicted as the oppression during the wartime and the new beginning with the contrition in postwar. Furthermore, I believe we can solve the problems of our times, which are rooted in our blindness toward other’s faces, by finding a subject, individual, and the ‘same’ that appropriate their outside.

keywords : Transwar, Individual, Subjectivity, Alltagsgeschichte, 1940s Japan, Japanese Literature, Dazai Osamu

Student Number **: 2019-26951**